

ISSN :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12/ 2018. Spring



북극연구단

Korea Arctic Research Group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12. 2018 Spring

2018년 3월 31일 초판 발행

2018년 10월 31일 제 2판 발행

역은이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364

FAX 070-4850-8428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연자1길14 배재대학교 21세기관 448호

펴낸곳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NRF-2014 B0153)하에 시작,
2016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NRF-2016 B0131)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

디자인 : 이다용

표지사진 : 이재혁(핀란드 Rovaniemi, 산타마을, 2012. 4.)

목 차

논 설

미국 알래스카 베링 해의 주요 항구: 개요와 역사, 항구상거래, 크루즈와 관광 (한종만) --- 1

미국 알래스카 주의 지역연구: 지리, 행정구분, 원주민, 주요 지표 (한종만) ----- 26

러시아연방공화국의 북극 관문 도시 및 지역소개 3 : 네네츠자치구와 야말로-네네츠자치구 (김정훈) ----- 44

‘북극정책’ 백서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배규성) ----- 57

오호츠크 해 광물자원과 발전 전망: 마가단 주를 중심으로 (박종관, 최주화) ----- 66

러시아의 시베리아 북극권 에너지자원 개발과 에너지 정책 (예병환) ----- 73

캐나다 북극지역 원주민의 언어권 (서승현) ----- 86

러시아 북방지역, 시베리아, 극동 토착소수민족의 명절 (계용택) ----- 92

부 록

북극권 관련 뉴스 (2017.09.26 – 2017.12.20. 최신 뉴스 순 정리) ----- 100

야말로-네네츠 통계자료 (백영준) ----- 102

북극 관련 이슈 정리 (박세영) ----- 114

북극연구단 소개

미국 알래스카 베링 해의 주요 항구. 개요와 역사, 항구상거래, 크루즈와 관광

한종만

베링 해의 면적은 200만km²로 경계는 동쪽과 북동쪽에서 알래스카, 서쪽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 추코트카 반도, 캄차카 반도, 남쪽으로는 알래스카 반도의 남부 해역과 알류산 열도이며, 최북쪽으로는 축치 해와 연계되는 베링해협이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는 알래스카 내륙의 알래스카 반도와 분리되면서 베링 해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국제수리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는 베링 해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북쪽 경계선은 축치 해 남부 경계, 남쪽 경계선은 알래스카 반도 내 카부흐 포인트(Kabuch Point: 북위 58도 48분, 서경 163도 21분)부터 알류산열도를 거쳐 코만도로프스키 제도 최남단과 캄차카 곳을 포함한다.” 베링 해의 주요 섬으로는 세인트 폴 섬을 포함한 프리빌로프(Pribilof)제도, 베링 섬을 포함한 코만도로프스키 제도, 세인트로렌스 섬, 디오메데 제도, 킹 섬, 세인트매튜(St. Matthew) 섬, 카라신스키(Karaginsky), 누니박(Nunivak)섬, 슬레즈(Sledge)섬, 하게마이스터(Hagemeister)섬 등이 소개하고 있다.¹⁾ 이 글에서는 미국령 알래스카 베링 해의 주요 항구를 개관한다.

<표 1> 미국 베링 해의 주요 항구 내역

| 번호 | 주요 항구 | 북위 | 서경 | 내역 |
|------|----------------------------|------------|-------------|---------------------------------------|
| (1) | 아닥 항(Adak) | 51도 51분 44 | 176도 38도 11 | 알류산열도 아닥 섬 |
| (2) | 더치 하버 (Dutch Harbor) | 53도 53분 49 | 166도 31분 30 | 알류산 열도 어넬래스카 섬 |
| (3) | 킹 코브(King Cove) | 55도 03분 31 | 162도 19분 20 | 알류산열도 동부자치구 |
| (4) | 콜드 베이 항(Cold Bay) | 55도 12분 19 | 162도 42분 00 | 알류산열도 동부자치구 |
| (5) | 샌드 포인트 항 (Sand Point) | 55도 19분 30 | 160도 30분 30 | 알류산열도 동부자치구 |
| (6) | 세인트 조지 항 (St George) | 56도 34분 19 | 169도 40분 13 | 세인트 조지 섬 |
| (7) | 세인트 폴 항(St Paul) | 57도 07분 28 | 170도 16분 47 | 프리빌로프 제도에 위치 |
| (8) | 브리스톨 베이 항 (Bristol Bay) | 58도 43분 17 | 157도 00분 28 | 딜링햄 항 남동쪽 83해리 |
| (9) | 딜링햄 항(Dillingham) | 59도 02분 22 | 158도 27분 47 | 브리스톨 베이 남서쪽 72해리 |
| (10) | 베설 항(Bethel) | 60도 47분 18 | 161도 45분 36 | 쿠스코쿱 강 어귀 65킬로미터 |
| (11) | 세인트 미첼 하버 (St Michael) | 63도 28분 43 | 162도 01분 46 | 베링 해 노턴 사운드 위치 |
| (12) | 놈 항(Nome) | 64도 29분 54 | 165도 25분 48 | 베링 해 노턴 사운드 위치 |
| (13) | 코츠뷰 항(Kotzebue) | 66도 53분 49 | 162도 35분 18 | 놈 항 북동쪽 300km, 러시아 프로비데니야 항 북동쪽 321해리 |
| (14) | 레드 독 하버(Red Dog) | 67도 34분 34 | 164도 04분 13 | 북서북극자치구 내 베링해협 북부 |

1) “Bering Sea,”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Bering_Sea (검색일: 2017.12.15).

자료: World Port Sources, "Alaska United States, Port Index, Alaska has 58 Ports,"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index/USA_AK.php (검색일: 2018.1.10.)

(1) 아닥 항(Port of Adak)

▶ 위치²⁾: 북위 51도 51분 44, 서경 176도 38도 11, 항구 당국: 알류트 기업단체, 항구 규모: 매우 소, 항구 형태: Harbor, UN/LOCODE: USADK

아닥 섬 내 소규모 항으로 알류트기업단체(Aleut Enterprise Corporation)가 관리하고 있다.

(2) 더치 하버 (Dutch Harbor):

▶ 위치³⁾: 북위 53도 53분 49, 서경 166도 31분 30, 항구 위치: 어넬스카(Unalaska), 항구 당국: 정보 없음, 항구 규모: 소, 항구 형태: Harbor, UN/LOCODE: USUAA

▶ 개요와 역사

더치 하버 항은 알래스카 알류산열도 어넬스카(Unalaska)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르도바(Cordova) 항으로부터 서 남서쪽 835해저마일, 주노 항의 남서쪽 1,125해리 떨어져 있다. 이 항은 미군의 '더치 하버 해군 운용기지와 미어 요새(Dutch Harbor Naval Operating Base and Fort Mears)'와 '국립 역사표지물(National Historic Landmark)'이 있다. 더치 하버 항의 게 잡이 함대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죽음과 같은 포획 다큐 시리즈로 특종의 역할을 담당했다. 2005년 더치 하버 항과 어넬스카 인구수는 4,350명 정도이다.

수산물 포획 규모 면에서 더치 하버 항은 미국에서 가장 큰 어항이며, 이 지역경제는 전적으로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대학과 공동으로 연료의 대안 파일롯 프로젝트에서 지역 수산가공업은 연간 350만 톤의 어유(fish oil)와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어유를 다른 지역으로 선적하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비원주민이 진입하기 이전까지 어넬스카((Unalaska) 섬은 알류트[혹은 언안간(Unangan)]족이 수천 년 동안 정착해왔다. 1759년에 알류트 족은 24개 정착지에서 복합 사회를 형성했었다. 언안간(Unangan)족은 이 섬을 '오운알라카(Ounalahka)'로 명명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지역원주민단체들은 그들의 협력을 위해 이 이름을 수용하고 있다.

1759년 러시아인 스테판 글로토프(Stepan Glotov)와 그의 선원들은 모피거래의 확장을 위해 미래의 더치 하버로 명명될 지역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인들은 더치 하버 항으로 명명했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 선박이 러시아인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상륙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763년부터 1766년까지 이 지역 원주민들은 러시아 침입자와 싸웠으며, 그들은 200여명의 상인과 4척의 러시아 선박을 파괴했다. 러시아는 군대를 파견하여 많은 원주민을 대량 학살했다. 1768년 어넬스카(Unalaska)와 더치 하버 항은 물개 가죽의 거래를 위한 러시아의 무역항으로 변모했다. 최종적으로 러시아-아메리카회사(Russian-American Company)가 이 무역

2) "Port of Adak,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Adak_741.php

3) "Port of Dutch Harbor,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Dutch_Harbor_742.php

독점권을 행사했다.

1778년에 제임 쿡(James Cook) 선장은 더치 하버 항 근처까지 도달했으며, 사고 방지 피난을 위해 쿡 선장은 항해사 게라심 이즈마일로프(Gerasim Izmailov)를 항구에서 조우했다. 10년 후인 1788년에 스페인 선박이 이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몇 개의 러시아 정착지를 방문했다. 더치 하버 항은 스페인의 최서단 정류지로 생각하면서 어넬래스카(Unalaska) 섬을 요구했다. 스페인은 이 섬을 'Puerto de Dona Marie Luisa Teresa'으로 명명했다.

1825년 예수 승천(Holy Ascension)의 러시아 정교회가 더치 하버 항에 건설됐다. 성직자 이반 베니아미노프(Ivan Veniaminov)는 첫 번째로 알류트 문자 체계를 개발했으며, 성경을 알류트 원주민의 도움으로 알류트어로 번역했다. 1836년부터 1840년까지 불행하게도 알류트 인구는 수두, 홍역, 백일해의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10분의 1로 감소했다. 1840년에 더치 하버 항 지역에 거주하는 알류트 족은 400명 미만이었다.

미국은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하면서 어넬래스카(Unalaska)와 더치 하버 항은 미국 영토로 편입됐다. 1880년에 감리교회는 병원과 고아원 학교를 개설했다.

20세기 초에 알래스카 골드러시로 인해 많은 선박들이 더치 하버 항으로 진입했다. 북아메리카 상업회사(North American Commercial Company)는 이곳에 석탄 공급 항구를 개설했다. 20세기 초에 이 섬과 더치 하버 항에 전염병이 다시금 발생했다. 1919년에 세계적으로 확산한 스페인 독감 전염병이 이 섬에 상륙하면서 인구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1940년에 미국은 '더치 하버 해군 운용기지 및 미어 요새(Dutch Harbor Naval Operating Base and Fort Mears)'를 건설하면서 더치 하버 항의 요새화를 시작했다. 1942년에 알류트 열도를 일본군이 공격했다. 일본군이 최서단에 위치한 알류트 아투(Attu)섬을 점령한 당시 원주민의 대부분을 체포하면서 그들을 남동 알래스카 억류캠프로 수송했다. 많은 원주민이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20세기 중반 더치 하버 항과 어넬래스카(Unalaska)섬은 킹크랩 어업센터로 발전했다. 1978년 더치 하버 항은 미국에서 가장 큰 어업항구로 발전했다. 그러나 1982년 킹 크랩 어족 수는 줄어들면서 이 산업부문은 후퇴했다. 1980년대 중반 경 수산함대는 깊은 침전물 포획을 추구하면서 저인망 어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5년부터 더치 하버 항의 어부들은 디스커버리 채널의 죽음과 같은 포획 다류 프로그램으로 특징화되고 있다.⁴⁾

▶항구 상거래

항구/부두 분과는 더치 하버 항의 5개 시 소유의 항구시설물의 관리, 운용, 유지, 책임을 갖고 있다. 이 분과는 해상 수색과 조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6명의 전일제 부두 직원, 2명의 오피스 직원, 대표와 부두 매스터를 고용하고 있다.

더치 하버 항은 계획, 발전, 해상 관련 자치체 재산 관리를 통해 어넬래스카(Unalaska) 커뮤니티의 복지와 성장 촉진을 추구하고 있다. 이 항은 자체지원 조건 하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해상관련 상업, 어업, 안전, 레크레이션, 관광,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계류 정박지와 해상서비스

4) "Port of Dutch Harbor, Review and History,"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USA_AK_Port_of_Dutch_Harbor_742.php

를 제공하고 있다.

더치 하버 항 내 시 소유로 운용되는 해상시설은 미국 해안경비부두(Coast Guard Dock), 어넬래스카(Unalaska) 해상센터, 스픛 독(Spitt Dock), 경화물 부두(Light Cargo Dock), 로버트 스토스 국제소규모 보트부두(Robert Storrs International Small Boat Harbor)를 포함하고 있다.

어넬래스카 해상센터(UMC: Unalaska Marine Center)와 해안경비부두(Coast Guard Dock)는 길이 12.2미터의 625미터 길이를 가진 부두를 운용하고 있다. UMC는 여객, 화물(컨테이너 포함), 물류창고, 기타 항만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호리즌 라인스(Horizon Lines)사는 크레인 과 UMC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태평양연료(North Pacific Fuel)사는 연료 시설물과 선적을 관리하고 있다.

더치 하버 항 내 스픛 독(The Spitt Dock)은 731미터의 부두와 단기 및 장기 계류 정박을 위한 몇 개의 정박 계류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계류지는 길이 61미터 상당의 선박 수용과 전력, 식수, 쓰레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치 하버 항의 로버트 스토스 국제 소규모 보트 하버(Robert Storrs International Small Boat Harbor)는 장기 및 일시 정박 계류를 위한 71개의 슬립(slip)을 갖춘 375미터 플로트들을 갖추고 있다.

2000년에 더치 하버 경화물 독(Light Cargo Dock)은 2개의 부두를 건설했으며, 각각 길이는 15.2미터이다. 경화물 독(Light Cargo Dock)은 총 103미터 상당의 계류지 공간을 갖추고 있다.⁵⁾

▶ 크루즈와 관광

어넬래스카(Unalaska) 시는 약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알래스카에서 11번째로 큰 도시이다. 더치 하버는 미국 서부해안과 태평양 국가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 북태평양 해운 루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더치 하버의 주민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향유할 수 있으며, 한 때 러시아의 일부였던 미국 도시 중에서 독특한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치 하버는 바다부터 산꼭대기의 화산, 여름철에 야생화가 풍부한 그린 벨리, 겨울철에 많은 눈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 항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직접 미국의 항구로 개발된 몇 개 항구 중의 하나이다. 더치 하버 항의 방문객은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산책로를 배회할 수 있으며 낚시, 들새 관찰, 베리 채집, 스키, 카약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곳은 아직까지 미 발견된 자연경관은 비행, 페리, 크루즈 선을 통해 모험을 위한 무제한의 기회를 제공한다.

알류산열도의 기타 섬처럼 더치 하버와 어넬래스카(Unalaska) 섬은 적절하며 연중 일정한 온도와 많은 강우량을 가진 아북극 해양성 기후대를 갖고 있다. 더치 하버는 항상 안개가 존재하며, 여름철 기온은 남동 알래스카보다 더 싸늘한 편이다. 그러나 겨울에서 여름처럼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치 하버 항의 연간 평균기온은 섭씨 3.4도이며,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1도부터 영상 11도로 다양하다. 비오는 날은 연중 250일이며, 미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5) "Port of Dutch Harbor, Port Commerce,"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ommerce/USA_AK_Port_of_Dutch_Harbor_742.php

내리는 지역이다.

‘알류트 제2차 세계대전 국립역사지역(Aleutian World War II National Historic Area)’은 더치 하버 공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연중 오픈되고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5월부터 10월 사이이다. 이 지역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공격을 대비하여 더치 하버 항의 방어를 위해 건설한 4개의 요새 중 1개는 남아 있다. 이 지역은 미군이 혹독한 기후 조건 하에서 싸웠으며, 일본군은 1,60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원주민을 억류했다. 1812년 전쟁(프랑스와 미국 간 무역의 간섭을 위해 영국과 미국 간의 전쟁) 이후 알류트 인들은 미국 영토의 침략을 목격했으며, 격렬한 전투를 했다.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 부르고 있다. 1942년에 일본은 어넬래스카(Unalaska)와 애머크낙(Amaknak) 섬에 폭격했으며, 미국은 이 지역 방어를 위해 수천 여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일본은 1943년 아투(Attu) 전투까지 아투 섬과 키스카(Kiska) 섬을 점령했다. 미국은 이 전투로 이 섬들을 탈환했다. 일본은 알류트 원주민을 3년 동안 열악한 환경 하에서 포로로 감금했다. 공원 및 방문객 센터는 운알라카(Ounalahka) 원주민단체 소유이며 운용되고 있으며,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더치 하버 해군 운용기지와 미어 요새(Dutch Harbor Naval Operating Base and Fort Mears)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알류산열도 방어를 위한 유일한 미국의 유일한 군사시설이며, 요새화는 1940년에 건설됐다. 1942년에 일본은 무자비하게 이 시설물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43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 이 군사기지는 해군 비행장의 방어로 설립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1943년에 비행장, 잠수함 기지, 선박 수선 시설, 식량공급 시설물 등을 갖추고 있다. 5,600명의 해군과 1만 여명의 육군이 근무했다. 1942년 일본군의 폭격으로 5개의 빌딩이 파괴됐으며, 방송국이 훼손됐다. 또한 25명의 미국인 사망, 25명 부상당했다. 또 다른 일본군의 폭격으로 인해 추가로 건물 파괴, 43명 사망했다. 더치 하버 해군 운영기지는 벨리후 산(Mount Ballyhoo)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지 시설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건설되어 사용되고 있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 해군 활주로는 현재 상업 공항으로, 운영 건물은 항공터미널로 변모했다.⁶⁾

(3) 킹 코브 항(Port of King Cove)

▶ 위치⁷⁾: 북위 55도 3분 31, 서경 162도 19분 20, 항구당국: 킹 코브 시, 항구규모: 소, 항구형태: Pier, Jetty or Wharf, UN/LOCODE: USKVC

▶ 개요와 역사

알래스카 만 동쪽 알류트 동부자치구(Aleutians East Borough)에 소재한 킹 코브(King Cove)항은 앵커리지 남서쪽 1,000킬로미터(625마일) 떨어져 있다. 이 항은 더치 하버(Dutch Harbor) 북동쪽 180해리 떨어져 있어, 알래스카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항구이며, 알래스카 놈(Nome)항으로부터 남남서쪽으로 1,00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6) "Port of Dutch Harbor, Cruising and Travel,"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ruising/USA_AK_Port_of_Dutch_Harbor_742.php

7) "Port of King Cove,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King_Cove_3487.php

알류트어로 아그다아구흐(Agdaagux)로 불리는 킹 코브 항의 인구는 800여명이다. 이 항에 피터 팬 시푸즈(Peter Pan Seafoods)사의 가장 큰 수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항의 지역 경제는 킹크랩, 폴럭, 대구와 알래스카 만과 베링 해 어류를 포획하는 상업 어업, 수산물 가공에 기반하고 있다. 이 지역주민들은 생계형 어업과 사냥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미래 킹 코브 항으로 불리는 이 지역의 첫 번째 정착민은 로버트 킹(Robert King)이었다. 그는 1880년대 동굴에서 거주했다.

1911년 현대적 킹 코브 항은 태평양 미국수산회사(Pacific American Fisheries)의 연어 통조림공장의 건설과 함께 생성됐으며, 첫 번째 정주민은 언안간(Unangans) 원주민, 스칸디나비아인, 기타 유럽인, 아시아인들이었다. 원주민은 폴스 파스(False Pass), 사낙(Sanak), 벨코프스키(Belkofski)마을에서 이 항으로 이주했다.

킹 코브 항 통조림공장은 1911년부터 1976년 화재로 인해 파괴될 때까지 운영됐다. 이 시설물은 재건축됐으며 후에 태평양 미국수산회사(Pacific American Fisheries)가 인수했다. 이 공장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연어 통조림공장이며, 청어, 넙치와 메기 등 물 바닥에 서는 어류, 게, 기타 어류를 연간 가공하고 있다.

1947년 킹 코브 항은 통합됐으며, 연방법으로 재조직된 킹 코브의 아그다아구흐(Agdaagux)족의 고향이며, 이 항의 21분의 1 주민들은 전부 혹은 일부 알래스카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콜드 베이(Cold Bay) 해안가에 몇 개의 전통적 사냥과 텃 농기 캠프가 있다. 20세기 초부터 주민의 생계활동 차원에서 정착민이 이용하고 있다. 킹 코브 항은 북쪽 7킬로미터(4,5마일) 마을로 통하는 몇 개의 자갈길을 가지고 있다.⁸⁾

▶ 항구 상거래

킹 코브 항은 상업적 어업, 화물선, 여객선, 레이크레이션 보트를 위한 해상 및 계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킹 코브 시는 항만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 부두분과가 관리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 페리는 5월부터 10월까지 격월제로 이 항에 기항하며, 피터 팬 시푸즈회사(Peter Pan Seafoods)가 3개의 부두를 이용하고 있다.

킹 코브 소규모 보트 부두 항은 18미터(60피트) 길이의 50척을 처리할 수 있다. 킹 코브 항 내 가장 큰 보트 부두는 46미터(150피트) 길이로 46척을 수용할 수 있다. 소규모 및 대형 보트 선착장은 해안전력망을 갖추고 있다. 킹 코브 항 심해 선착장은 알래스카 주 페리, 화물선, 크루즈선박들을 수용하고 있다.

킹 코브 하버 마스터는 VHF 채널 6, 16을 번갈아가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며, 항만당국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오픈하고 있다(목요일은 오후 5시까지).

킹 코브 시는 킹 코브 항 심해 도시 독(Deep Water City Dock)을 소유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주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독은 컨테이너선과 전통적 일반화물, 연료, 여객선과 자동차운반을 처리하고 있다. 시 전기과에서 운영하는 2,400배럴 용량을 지닌 5개의 철강 저장

8) "Port of King Cove, Review and History,"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USA_AK_Port_of_King_Cove_3487.php

탱크에서 5인치 파이프라인으로 부두와 연계되어 있다. 하버 매스터의 사무소는 시 독(City Dock) 뒤편에 위치해 있다. 이 독은 수심 9미터(30피트)의 100미터(330피트) 길이의 선박 계류를 가능케 하고 있다.

‘코브 로버트 뉴먼 보트 하버(Cove's Robert E. Newman Small Boat Harbor)’는 킹 코브 시 소유이며 관리하며 시티 독(City Dock) 북서쪽 킹 코브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소규모 보트 하버의 수심은 5.5미터(18피트)이다. 또한 킹 코브 소규모 보트 하버 T 독은 시 소유로 관리하고 있다. 이 독은 어업선의 시설장비 제공업무, 상업적 및 레이크레이션 선박의 정박 계류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심 4.5미터(15피트)와 110미터(360피트)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다.

킹 코브 소규모 보트 하버 벌크헤드 워프(Bulkhead Wharf)도 시 소유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선의 장비와 공급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수심 4.5미터(피트) 55미터(180피트)길이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다.

피터 팬 시푸즈(Peter Pan Seafoods)사는 킹 코브 항 내 몇 개의 독(dock)을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킹 코브 크랩 독(Crab Dock)과 킹 코브 펌프 독(Pump Dock)은 수산물 하역과 어선의 장비 공급을 처리하고 있다. 킹 코브 연료 독(Fuel Dock)은 어선, 연료 및 냉동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킹 코브 항 내 석유제품을 하역한다. 킹 코브 워프(King Cove Wharf)는 어선, 수산물의 지원과 컨테이너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있다.⁹⁾

▶ 크루즈와 관광

킹 코브 항은 선박 혹은 항공편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폭 30미터(100피트), 길이 1,066미터(3,500피트) 자갈이 깔린 비행기 활주로는 알래스카 주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항은 2개의 화산 사이의 계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풍 급의 옆바람에 의존된다. 킹 코브 방문객은 2개 황야지에서 야외 레이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즐길 수 있다.

킹 코브 항은 디어 패시지(Deer Passage)와 디어 섬(Deer Island) 남쪽을 바라보는 남부 알래스카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해양성기후로서 연중 기온은 영하 4도(화씨 25도)에서 영상 13도(화씨 55도) 정도이다. 겨울철 최저기온은 영하 23도(화씨 9도), 여름철 최고기온은 24도이다. 이곳의 적설량은 연간 52인치, 강우량은 33인치이다. 여름철에 안개로 접근이 제한되며, 겨울철은 강풍으로 여행객은 좋지 않은 시즌이다.

킹 코브 항 북서쪽 27킬로미터(17마일) 떨어진 지역에 32만 1,000에이커 ‘이젠크 국립 야생보호지(Izembek National Wildlife Refuge)’가 있다. 이 보호지는 미국 수산/야생관리당국(Fish and Wildlife Service)이 관리하고 있으며, 25만 마리의 철새들이 매년 가을 방문하고 있다. 그중 흑기러기, 캐나다거위, 오리, 바닷가에 서는 조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 해산식물(거머리말) 중 하나로서 이 식물들이 이젠크 라군(Izembek Lagoon)석호에서 서식하고 있어 철새의 식량과 피난처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다. 해달은 연중 이 석호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툰드라 백조도 이 보호지에서 연중 살아가고 있다. 해안가에서 여러 형태의 밍크고래, 회색고래, 범고래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보호지는 방대한 규모의 연어들이 태어나고 죽는

9) "Port of King Cove, Port Commerce,"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ommerce/USA_AK_Port_of_King_Cove_3487.php

곳으로 많은 갈색 곰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카리부(삼림순록) 무리들이 배회하고 있다.

위엄 있는 아기힐렌 피너클(Aghileen Pinnacles)산봉우리는 ‘이젠펙 국립야생보호지(Izembek National Wildlife Refuge)’와 ‘이젠펙 황야지(Izembek Wilderness)’를 분리시키고 있다. 빙하산과 활화산들은 베링 해로 유출되는 강들과 호수 위에 있다. 보호지와 황야지는 둘 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Leave No Trace)’는 방문객의 필수적 요구조건을 지닌 보호지역이다. 이 요구조건은 방문 중 여행객들이 스스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문객들은 내구력 있는 지표면에서만 여행하고 캠핑해야 하고, 떠날 때 자연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쓰레기 처리, 캠프파이어 잔해물의 극소화, 야생과 기타 방문객들을 존중해야만 한다.

킹 코브 항으로부터 항공기준으로 200킬로미터(121마일) 떨어진 지역에 알래스카반도 최남동쪽 섬인 ‘시묘노프 황야지(Simeonof Wilderness)’가 있다. 2만 5,000에이커 면적을 지닌 시묘노프 섬(Simeonof Island)은 1958년 해달의 보호지로 지정됐으며, 1976년 미국 황야지로 지정됐다. 이 섬은 3개의 섬으로 구성된 슈마진 제도(Shumagin Group) 중 하나로 1980년 ‘알래스카 해상 국립야생보호지(Alaska Maritime National Wildlife Refuge)’로 지정됐다. 총 17여종의 고래들이 해안가로부터 목격되고 있다. 놀랍게도 해달 혹은 해안 조류들이 이 섬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3개의 섬 하천에서 연어들이 살아가고 있다.

1890년부터 1930년까지 이 섬에 거주하는 목장 주들이 소와 여우를 사육했지만 폐업했다. 1960년에 이 섬으로 소들이 반입되면서 소 떼들이 대규모로 증가했다. 1985년에 마지막 소들이 떠나면서 이 보호지 관리자들은 조류들의 생활 터로 변모했다. 이 섬은 강풍, 안개, 비, 저온의 특징을 지닌 시묘노프 섬은 내륙지역에서 이곳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정으로 야생 환경으로 축복받은 이 지역의 관리자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Leave No Trace)’는 슬로건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¹⁰⁾

(4) 콜드 베이 항(Port of Cold Bay)

▶ 위치¹¹⁾: 북위 55도 12분 19, 서경 162도 42분 0, 항구 당국: 콜드 베이 시, 항구규모: 매우 소, 항구형태: Pier, Jetty or Wharf, UN/LOCODE: 정보 없음

(5) 샌드 포인트 항(Port of Sand Point)

▶ 위치¹²⁾: 북위 55도 19분 30, 서경 160도 30분 30, 항구당국: 샌드 포인트 시, 항구규모: 소, 항구형태: Harbor, UN/LOCODE: USSDP

(6) 세인트 조지 항(Port of St George)

▶ 위치¹³⁾: 북위 56도 34분 19, 서경 169도 40분 13, 항구당국: 세인트 조지 항구당국, 항구규모: 매우 소, 항구형태: Pier, Jetty or Wharf, UN/LOCODE: USSTG

10) "Port of King Cove, Cruising and Travel,"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ruising/USA_AK_Port_of_King_Cove_3487.php

11) "Port of Cold Bay,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Cold_Bay_3578.php

12) "Port of Sand Point,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Sand_Point_3491.php

13) "Port of St George,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St_George_3624.php

(7) 세인트 폴 항(Port of St Paul)

▶ 위치¹⁴⁾: 북위 57도 7분 28, 서경 170도 16분 47, 항구당국: 세인트 폴 항만당국, 항구규모: 소, 항구형태: Pier, Jetty or Wharf, UN/LOCODE: USSTP

▶ 개요와 역사

세인트 폴(St. Paul)항은 알래스카 서부해안 프리빌로프(Pribilof)제도의 하나로 오지 섬에 위치해 있다. 이 항에서 가장 근접한 항구는 더치 하버 항으로 238해리(항공기준으로 424킬로미터 혹은 263마일) 떨어져 있다. 이 항의 북서쪽 473해일(항공기준으로 824킬로미터 혹은 512마일) 떨어진 곳에 러시아의 프로비데니아(Provideniya)항이 있다. 세인트 폴 섬은 104평방킬로미터(30평방마일)로 화산 폭발로 형성됐다.

2000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세인트폴 항의 인구수는 53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중 86%는 알래스카 원주민이다. 이 항은 중앙 베링 해의 수산함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가공공장과 해안 가공업자들의 고향이다. 순록무리들이 섬을 공유하고 있으며, 물개 집단번식지이며, 200여종이 넘는 조류 서식지이다. 이 지역경제는 생계형 어업, 사냥, 생활채집에 의존하고 있다.

훨씬 이전에 알류트 원주민이 사냥하기 위해 세인트폴 섬으로 들어왔다. 이 지역에서 상주 정착지의 증거들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1786년 세인트 조지 섬에 도착한 첫 번째 러시아 모피 무역 인이 전통적 알류트 어카운트에서 기술됐다. 1788년 러시아-미국회사는 알류트 제도와 시베리아부터 세인트폴과 세인트 피터(Peter) 섬들로 물개 모피를 수집하기 위해 예측된 알류트 인을 이동시켰다. 현재 비자발적 정착인의 자손들은 여전히 이 섬에서 살고 있다.

1867년 미국의 알래스카 구입은 세인트폴 항 거주민의 일상생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870년 미국 정부는 20년 물개어업권을 식료, 의료, 주택을 위해 알류트 인들과 모피거래를 했던 알래스카 상업회사(Alaska Commercial Company)에게 양여했다. 불행하게도 몇 년의 물개 사냥으로 물개 숫자는 매우 감소했으며, 세인트폴 항 커뮤니티는 빈곤의 부담이 가중됐다.

1910년 섬에서 민간 임대는 물개 법(Fur Seal Act)으로 종료됐으며, 커뮤니티와 물개는 미국 수산청 당국으로 이전됐다. 프리빌로프 알류트인의 심각한 빈곤은 지속됐다. 작업환경은 끔찍했으며, 사회적 및 인종차별은 분명하게 사람들을 분리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알류트 열도의 침략 위협으로 알류트 인들은 베링 해 거주민들은 피난 정책의 일환으로 툰터 베이(Funter Bay) 내 애드미럴티 섬(Admiralty Island)으로 이주시켰다. 세인트폴 섬 알류트 인은 폐쇄된 통조림공장과 광산캠프에서 거주했었다. 그들은 1944년까지 캠프에 남아있었다. 1979년 알류트 인들은 1870년부터 1946년까지 받은 불공정한

14) "Port of St Paul,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St_Paul_3626.php

대우의 보상차원에서 미국정부로부터 85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1983년 미국 의회는 상업적 물개 포획의 정부 통제를 끝내는 ‘물개 법’을 수정했으며, 연방 정부도 이 섬을 떠났으며, 지방기관이 커뮤니티 서비스와 물개 관리의 책임을 가지게 됐다. 연방 정부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인트폴 항에 1,200만 달러를 제공했다.

1985년부터 세인트폴 항에서 물개의 상업적 포획은 금지됐다. 생계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물개 잡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다른 커뮤니티의 제염 연어 혹은 구운 연어와 교환하는 물개와 큰 넙치의 공유는 세인트폴 문화의 중심이다.

세인트폴 폴 섬과 세인트조지 섬의 빌로프 제도 알류트 커뮤니티는 연방법이 인정한 종족이며, 세인트폴 항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세인트폴 항의 대부분의 거주인은 알류트 인이며, 지금도 러시아정교회의 역할은 커뮤니티 생활에서 중요하다. 거주민은 큰 넙치, 순록, 해상 무척추동물 중뿐만 아니라 딸기류와 식물재배로 살아간다.¹⁵⁾

▶ 항구 상거래

고립된 섬에 있는 세인트폴 항은 항공 및 해상교통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알래스카 주는 2,000미터(6,500피트) 아스팔트 활주로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화물과 공급품은 선박으로 세인트폴 항에 운반된다. 213미터(700피트) 방파제의 부두 공간과 바지선 하역 공간을 지닌 세인트폴 항은 경제발전을 자극하기 위해 2009년에 소형보트 하버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세인트폴 항은 중앙 베링 해 수산함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항의 거주자 30명이 사업적 큰 넙치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 1981년 트라이던트 시푸즈(Trident Seafoods)사는 게 가공공장을 세인트폴 항 내 건설했다. 최근에 냉장저장시설이 추가 건설됐다. ‘아이스클/유니시(Icicle and Unisea) 수산가공업자’는 하버 인근에 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며, 9개의 역외 가공업자들이 이곳에 기지를 갖고 있다.

수로안내가 몇 개 면제된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게 필수적이다. 알래스카 마린 파일로트(Alaska Marine Pilots)사는 베링 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인트폴 항 내 정상적 정박지는 리프 포인트(Reef Point)와 자파드니 포인트(Zapadni Point) 사이에 있는 빌리지 코브(Village Cove) 서쪽에 있다. 정박지는 리프 포인트 북동지역에서도 가능하다.

4월과 5월에 빙하 에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세인트폴 항은 극적으로 바람 영향을 받는다. 섬 근처 정박 중 선박들은 강풍을 주의해야만 한다. 선박들은 충돌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빙하를 조명해야 한다.

세인트폴 항 내 하버는 발트 해 수산함대의 피난처로서 2006년 입구 수로의 수심은 5.5미터(18피트)였다. 세인트폴 항은 갑판 높이 3.4미터(11피트)와 수심 2.9미터(9.5피트)부터 7미터(23피트)의 3개의 주요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북동 하버가 빠르게 알아지면서 선박들은 해안에 가깝게 유지하라고 권고된다. 세인트폴 항 입구 근처에서 강한 물결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선박들은 6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번식기 동안 물개 서식지에 도착할 수 없다.¹⁶⁾

15) "Port of St Paul, Review and History,"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USA_AK_Port_of_St_Paul_3626.php

16) "Port of St Paul, Port Commerce,"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ommerce/USA_AK_Port_of_St_Paul_3626.php

▶ 크루즈와 관광

세인트폴 항은 어두운 지붕의 밝은 색의 통나무집의 소규모 커뮤니티이며, 교회, 소형 병원, 호텔, 기계공장이 있다. 날씨의 허용 시 더치 하버 항 혹은 콜드 베이(Cold Bay)경유 앵커리지 우편 및 여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인트폴 항은 연중 기온의 큰 변화가 없는 서늘한 북극 해양성기후를 지니고 있다. 평균기온은 영하 7도(화씨 19도)부터 영상 10도(화씨 51도)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짙은 안개가 보통이다. 이 항의 연간 강우량은 25인치, 적설량은 56인치이다.

이 섬의 다양한 야생동식물을 관람하기 위해 세인트폴 항을 찾는 여행객의 수는 연간 700명이다. 이 섬에서 248종 이상의 조류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조류들은 봄철에 시베리아로부터 찾아온다.

북방 물개서식지는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매년 5월에는 남성 물개들이 이 서식지로 찾아오면서 여성 물개의 도착을 준비한다. 6월부터 10월까지 이 서식지는 민간에게 폐쇄된다. 10월 이후에는 물개들을 관람할 수 있는 2개의 블라인드 창이 있다.

오테(Otter)섬 남서쪽 몇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항구물개들이 서식하고 있지만 빈번히 세인트폴 섬 해안가에 나타난다. 때때로 스타(stellar) 물개들이 세인트폴 항 해안가에 출현하지만 정상적으로 월러스 섬(Walrus Island) 북동쪽 16킬로미터(10마일) 떨어진 곳에 운집하고 있다. 방문객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범고래, 회색고래, 바다코끼리도 볼 수 있다. 1911년 이 섬으로 도입한 대형 순록들도 이 섬에서 서식하고 있다.

북극 여우종인 푸른 여우는 세인트폴 섬의 고유종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 여우들은 세인트폴 항 쓰레기통, 수산 부두, 수산가공공장의 먹이를 찾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가끔 새끼 바다표범들이 어부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컨테이너 저장시설에 숨어 있다. 푸른 여우는 물개 서식지 가장자리에서 등지를 틀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고 있다.

봄철에 세인트폴 항과 그 주변지역은 툰드라의 밝은 색깔을 뿌리는 아름다운 야생화의 전시장으로 변모한다. 100여종 이상의 야생화는 여름까지 이 지역을 환영하고 있다.

해상교통으로 세인트폴 항을 찾는 방문객들은 크루즈 선을 이용할 수 있다.¹⁷⁾

(8) 브리스틀 베이 항(Port of Bristol Bay)

▶ 위치¹⁸⁾: 북위 북위 58도 43분 17, 서경 157도 0분 28, 항구당국: 브리스틀 자치구, 항구 규모: 소, 항구형태: Pier, Jetty or Wharf, UN/LOCODE: USNNK

▶ 개요와 역사

브리스틀 베이(Bristol Bay)항은 베링 해의 팔로서 320킬로미터 알래스카 남동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다. 이곳은 알래스카 반도 남동쪽 끝 지점으로 딜링햄(Dillingham)항 남동쪽 83해리(항공기준으로 86킬로미터 혹은 53마일), 코디악(Kodiak)항 서 서북쪽 300킬로미터(182마일) 떨어져 있다. 이 항은 자치구 의석이 소재한 나크넥(Naknek)에 위치하고 있다. 이 자치구에

17) "Port of St Paul, Cruising and Travel,"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ruising/USA_AK_Port_of_St_Paul_3626.php

18) "Port of Bristol Bay,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Bristol_Bay_3481.php

1,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 지역에 최소 6000년 이전부터 원주민 유픽(Yup'ik)인과 아타파스카(Athabaskan)인들이 거주해왔다. 이 지역과 베링 해 랜드브리지 지역은 고대시대부터 건조지였으며, 농경지에 적합했다. 태초부터 인류는 광물, 동물, 수산물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브리스톨 베이 항 지역으로 이주해왔다.

1778년 제임스 쿡(James Cook)선장이 이 지역으로 항행한 후 영국 해군제독 얼 오브 브리스톨(Earl of Bristol)를 기념하여 이 이곳을 브리스톨 베이라고 명명했다. 18세기 말 러시아미국회사는 브리스톨 베이 근처에 일련의 정착지를 개설했으며, 해안과 인접 섬들을 탐험했다. 첫 번째 브리스톨 베이의 상세한 해도는 1819년 알류트 인 안드레이 유스티유고프(Andrei Ustiugov)에 의해 만들어졌다. 러시아 해군도 18세기말 베링 해 연안을 조사했으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과 지리적 특징을 제공했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는 알래스카 주 내에서 창설된 첫 번째 자치구(boroughs) 중 하나였으며, 1962년 합병되어 알래스카 자치구들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자치구 중 하나로서 유일한 타운 나크넥(Naknek)을 포함하고 있다.

1821년 해군대위 선장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바실리에프(Mikhail Nikolayevich Vasilyev)는 러시아로 나크넥(Naknek)으로 불렸던 나우게익(Naugeik) 유픽(Yup'ik)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다. 러시아인들은 마을 근처에 스바로프 요새(Fort Suvarov)와 러시아정교회를 건설했으며, 1867년 미국의 알래스카 구입 때까지 러시아 모피 상인들이 거주했었다.

1890년 첫 번째 연어 통조림공장이 나크넥(Naknek)강가에 건설됐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경 브리스톨 베이 근처에 12개 통조림공장이 소재했었다. 원주민들은 러시아 정교회 주변으로 은신처를 조성하면서 이곳은 나크넥(Naknek)과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의 센터로 변모했다. 1907년 이곳에 우체국이 개설됐다.

현재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은 상업 어업 및 스포츠 연어 낚시 센터로서 중요한 지역이며, '세계의 붉은 연어 수도'라고 칭해지고 있다. 이 항에서 가공된 통조림 수산물은 25킬로미터(15마일) 떨어진 킹 살몬(King Salmon)공항으로 선적되어 알래스카 외부로 공급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초 미국은 브리스톨 베이 항 근처 킹 살몬(King Salmon)에 공군기지를 건설했다. 1949년 미국 공병대는 킹 살몬(King Salmon)과 나크넥(Naknek)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했으며, 우체국도 개설했다. 1994년 공군기지는 폐쇄됐다.

브리스톨 베이 항 반대편 강둑에 소재한 남부 나크넥(South Naknek)은 외부세계와 연결하는 도로가 없는 매우 전통적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겨울철에 얼음 덮힌 나크넥(Naknek)강을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퀴누야나(Qinuyana)원주민 마을 장소는 1912년 카트마이(Katmai)화산 분출 이후 포기했던 뉴 및 올드 사바노프스키(New and Old Savanoski) 마을에서 온 이주민들의 장소였다.

1980년 세인트 헬렌스(St. Helens)화산 보다 10배나 강력한 노바루프타 화산(Novarupta Volcano)이 912년 6월에 분출됐다. 일주일 동안 발생한 지진은 카트마이(Katmai)지역을 영원

히 변화시키는 화산분출의 사전경고였다. 모든 생명체 파괴, 화산부석, 화산재, 용액이 내뿜으면서 북반구 대부분의 햇빛이 흐릿해졌다. 이 화산분출로 213미터(700피트)침적물로 2만 5,000에이커 면적은 매몰됐다. 화산분출이 종료한 후 연기와 가스로 발산된 화산재 침적물들이 남았으며, 국립지리협회(National Geographic Society) 탐험가 로버트 그리그스(Robert Griggs)는 이 지역을 ‘1만개의 연기 계곡(The Valley of Ten Thousand Smokes)’라고 명명하면서 조사했다.¹⁹⁾

▶ 항구 상거래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은 이 만에서 가장 큰 상업화물 독(dock)을 갖고 있으며, 남서부 알래스카 화물운송의 허브 지역이다.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부터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1995년 물동량 기준으로 이 항은 미국 10위, 수산물 수출규모 기준으로 미국 4위를 기록했다. 21세기 첫 10년 동안도 이 항은 물동량과 달러 기준으로 톱 25내 항구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의 나넥(Naknek) 콘크리트 철강 화물 독(dock)은 518평방미터(5,574평방피트)에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6에이커 터미널, 370평방미터(4,000평방피트) 수화물의 창고부지도 보유하고 있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 내 어부 독(Fisherman's Dock)은 시트 파일 독으로 3,700평방미터(4만 평방피트)공간에 상업 어선의 서비스, 계류지, 주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는 개인 정박지가 없기 때문에 정박 시 어선들은 공동으로 부표하고 있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 터미널은 5-8월에는 주 7일 내내 24시간 운영되며, 기타 시즌에는 하루 12시간 운영된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 남부 나크넥 독(South Naknek Dock)은 2,200평방미터(2만 4,000평방피트)면적의 T 스타일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형성된 독이며 250개 컨테이너 화물용량과 향후 발전을 위한 미개발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어선들은 61미터(200피트) 시트 파일(널말뚝) 지역에 정박할 수 있다. 이 독은 1993년 개설 이후 연간 200-400TEU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 수산업의 성장을 지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브리스톨 베이 독(Bristol Bay docks)은 4월부터 11월까지 오픈되고 있다. 나크넥 독(Naknek Dock)은 봄철 준설 시 평균 5미터(16-18피트)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은 137미터(450피트)길이의 150척 이상의 바지선뿐만 아니라 수산 시즌 동안 400척 상당의 기타 상업 어선, 소형선박, 거룻배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항의 입출항은 하루 2번 조류간만에 의존되고 있다.

현재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 내 시설은 우수한 편이다. 생선 펠핑 작업용량은 100만 파운드 이상으로 킹 살몬 공항기지로 적재되어 알래스카 외부지역으로 운송된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연어로 이 항은 수천 개 TEU 화물을 한 번에 처리하고 있다.²⁰⁾

19) "Port of Bristol Bay, Review and History,"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USA_AK_Port_of_Bristol_Bay_3481.php

20) "Port of Bristol Bay, Port Commerce,"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ommerce/USA_AK_Port_of_Bristol_Bay_3481.php

▶ 크루즈와 관광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는 베링 해 동쪽 끝 팔로서 400킬로미터(250마일) 길이와 290킬로미터(180마일) 폭을 지니고 있으며, 이 만으로 유입되는 몇 개의 하천을 가지고 있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이다. 심한 경우 그 폭은 9.9미터(30피트) 이상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주, 모래톱(물이 얇은 곳), 사퇴 등이 결합되거나 강풍을 유발시켜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 주변의 항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은 주로 습하며, 바람과 서늘한 기온을 지닌 해양성기후를 지니고 있다. 여름에는 빈번한 안개와 20인치 강우량, 적설량은 평균 45인치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1월의 평균기온은 영하 8.5도(화씨 16.7도), 7월의 평균기온은 13도(화씨 55도)이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은 ‘카트마이 국립공원/보존지(Katmai National Park and Preserve)’의 관문, 미국의 갈색곰을 위한 국립공원, ‘만개 연기 계곡(Valley of Ten Thousand Smokes)’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존지는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 동 북동쪽 114킬로미터(71마일) 떨어진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웨일스(Wales)와 유사하며, 1만 9,000평방킬로미터(7,400평방마일)에 이르고 있다. 유명한 화산 카트마이(Katmai)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국립공원의 3분의 2가 황야지로 지정됐다.

이 공원의 본부는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 수산물 배급 센터인 킹 살몬(King Salmon)에 위치하고 있다. 1912년 화산 분출로 이 지역의 보호를 위해 1918년 국립기념지로 지정됐으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1912년 카트마이(Katmai)산 아래로 내뿜은 거대한 마그마 규모는 2킬로미터(1.2마일) 상당의 라바 돔은 노바루프타(Novarupta)로 불리고 있으며, 이 산은 붕괴됐으며, 깊이 600미터(2,000피트)의 칼도라 호수를 만들었다. 화산분출로 15년 동안 화산재와 가스가 방출된 많은 분기공으로 형성된 1만개 연기 계곡(Valley of Ten Thousand Smokes)이 만들어졌다.

카트마이 국립공원/보존지(Katmai National Park and Preserve)는 캠핑, 배낭여행, 하이킹, 스키, 카약, 보트 투어, 낚시, 자료 프로그램 등 수많은 야외 여가활동의 장소지이다. 이 보존지에 최소 14개 활화산이 소재해 있다. 수만 년 동안 휴면상태 후 퀴피키드 화산(Fourpeaked Volcano)은 2006년에 활성화됐다. 이 공원 내에 오래된 역사시대 이전과 관련된 수많은 고고학적 장소지가 있다.

브리스톨 베이(Bristol Bay)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갈색곰의 서식지이다. 연어 산란기 때 갈색곰들은 부루크스 폭포(Brooks Falls)지역에 운집하면서 관광의 플랫폼과 사진촬영을 위한 멋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중 대부분의 갈색곰들은 할로 베이(Hallo Bay), 쿠각 베이(Kukak Bay), 치니악(Chiniak)지역에서 조개, 연어, 기타 생선, 사초 속의 각종식물을 먹고 있다.

유일하게 개발된 지역 중 하나는 브루크스 캠프(Brooks Camp)는 곰 관광 플랫폼으로 이 국립공원 방문객에게 가장 좋은 매력지이다. 이 캠프는 숙박서비스가 제공되는 유일한 장소로서 6월부터 9월까지 오픈된다.

공원 내 곰들은 상대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관심한 편이다. 공원 내 곰 사냥은 알래스카 수산 및 야생동물분과의 규제를 받고 있다.²¹⁾

(9) 딜링햄 항(Port of Dillingham)

▶위치²²⁾: 북위 59도 2분 22, 서경 158도 27분 47, 항구 당국: 딜링햄 부두분과, 항구규모: 소, 항구 형태: Harbor, UN/LOCODE: USDLG

▶개요와 역사

딜링햄(Dillingham)항은 브리스틀 베이(Bristol Bay)항 남서쪽 72해리 떨어진 누샤가크 베이(Nushagak Bay)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2008년 딜링햄 항의 인구수는 2,300여명이다. 이 항은 외부세계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해상교통 혹은 항공교통으로만 진입할 수 있다. 이 지역 주민의 거의 70%는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알래스카 내 ‘부시 타운(bush town)’으로 간주되고 있다.

20세기 말에 딜링햄 어부들은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수백만의 홍송어(sockeye salmon)를 포획하고 있다. 사실상 어업은 매우 생산적이지만 여름철에 포획된 수산물 규모를 운송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이 항의 상업적 어업은 과거보다는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알래스카 연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상승으로 지역 어민들은 양호한 임금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딜링햄 항으로 변모된 이 지역은 원래 누샤가크(Nushagak)로 불리는 유픽(Yup'ik)원주민들의 거주지였으며, 19세기 말 러시아인이 이곳에 도착하면서 무역중심지로 발전했다. 1818년 러시아정교 종교사절단이 딜링햄 항을 건설했으며, 지역 마을 사람과 외국인들이 무역을 위해 만남의 장소 혹은 거주지로 변모했다.

1881년 미국 통신대(Signal Corps)가 딜링햄 항 내 기상관측소를 구축했다. 1883년에 북극 선적회사(Arctic Packing Company)는 딜링햄 항 내 수산통조림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 지역의 상업적 수산업의 발전을 기여했다. 1884년에 첫 번째 연어 통조림공장이 오픈됐으며, 1990년 10개 이상의 통조림공장들이 활동하고 있다.

1904년에 우체국이 설립됐으며, 이 타운은 미국 상원 의원 폴 딜링햄(Paul Dillingham)의 성에서 기원했다. 20세기 초에 인플루엔자 유행병이 창궐하면서 딜링햄 항의 비극이 찾아왔다. 그후 딜링햄 항 남쪽에 병원과 고아원의 건설이 이루어졌다.

2010년 늦여름에 비행기 충돌과 기타 4명의 여행객(전직 상원의 의장과 상원의원 테드 스티븐스 등)이 사망하면서 딜링햄 항은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오랫동안 세계 태평양 연어의 수도로 알려진 브리스틀 베이(Bristol Bay)해역은 누샤가크(Nushagak)와 우드 강(Wood Rivers)이 합류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연어서식지 중의 하나이다. 딜링햄 항은 브리스틀 베이 지역에서 가장 큰 타운으로 수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21)“Port of Bristol Bay, Cruising and Travel,”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ruising/USA_AK_Port_of_Bristol_Bay_3481.php

22)“Port of Dillingham,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Dillingham_3482.php

항구이다. 현재 딜링햄 항의 주요산업은 상업적 어업, 통조림산업, 스포츠 낚시, 정부부문, 관광업이다.²³⁾

▶항구 상거래

딜링햄 항구 대표는 시 매니저에게 보고하며, 독(docks), 소규모 보트 부두, 보트 계류지를 감독 및 관리하고 있다. 소규모 보트부두는 방파제와 우드 강 런치(Wood River Launch)를 포함한 모든 부두시설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딜링햄 항은 시 해안, 교대용 바지선, 대형트럭 지역, 부두 매스터 사무소 근처의 시 벌크헤드(bulkhead), 시티 독(dock)을 관리하다.

딜링햄 항은 조수간만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자연적 해안 부두로 구성되어 있다. 수로 안내는 부두 매스터로부터 사전에 주의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선박들은 식량, 식수, 디젤 기름 등의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알래스카 로지스틱 회사(Alaska Logistics Company)는 장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품을 시애틀부터 서부 알래스카로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딜링햄 항은 이 회사의 주요 간선 바지선의 주요 정착지이며, 독(dock)에서 하역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²⁴⁾

▶크루즈와 관광

딜링햄 항은 생태관광을 위한 주요 관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거대한 어업을 제공하는 ‘우드 틱치크 주립공원(Wood-Tickchik State Park)’은 미국에서 가장 큰 주립공원이다. 딜링햄 항은 ‘토지악 국립야생보호지(Togiak National Wildlife Refuge)’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 청어 어장 중 하나로서 방문객들은 어류, 물개, 바다코끼리(해마), 철새, 다양한 육상 포유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딜링햄 항은 연중 습기와 차갑고 바람이 부는 해양성기후를 지니고 있다. 2월의 평균기온은 영상 1.1도 이하, 7월 평균기온은 영상 16도이다. 연중 강우량은 20인치이며, 45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

딜링햄 항 방문객은 브라스톨 베이(Bristol Bay)지역에서 다양한 야외 및 자연적 레이크레이션 기회, 낚시, 사냥, 빙하낚시, 크로스컨트리 스키, 하이킹, 베리 따기, 비치코밍(해변가에 흩어진 표류물을 주워 모으는 일), 카약, 카누, 캠핑, 사진촬영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항공 관광투어도 즐길 수 있다.

딜링햄 항은 낚시 선박대여와 투어를 원하는 여행객을 위해 일련의 숙박과 아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냥 장비와 스포츠 필수품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가장 큰 ‘우드-틱치크 주립공원(Wood-Tickchik State Park)’은 160만 에이커 상당의 호수, 산악 계곡, 산 정상에 풍부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공원의 모든 지역에서 캠핑을 할 수 있으나 몇 개 장소는 캠핑허가가 필요하다. 수상 활동도 허가가 필요하다. 몇 개 장소에서 캠핑은 1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공원 내 스포츠 낚시에호가를 위한 5

23) “Port of Dillingham, Review and History,”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USA_AK_Port_of_Dillingham_3482.php

24) “Port of Dillingham, Port Commerce,”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ommerce/USA_AK_Port_of_Dillingham_3482.php

개의 민간소유 숙박지가 있으며, 사전예약이 필수적이다.

‘토지악 국립야생보호지(Togiak National Wildlife Refuge)’는 미국 어류/야생서비스(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 관리하는 국가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410만 에이커 상당의 면적이며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야생보호지이다. 이 보호지는 다양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진, 화산, 빙하로 형성된 이 보호지에 거의 50종의 포유동물(육상 31종, 해상 17종)이 서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카리부, 늑대, 곰, 무스, 오소리, 붉은 여우, 가타 동물들이 있다. 해상 포유동물로는 해안선에서 600마일(965킬로미터)범위 내에 서식하고 있는 고래, 물개, 바다코끼리(해마), 바다사자 등이 존재한다. 쇠슴털오리(Stellers eider)같은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200여종 이상의 조류 등도 서식하고 있다. 바다조류, 해안조류, 명금, 물새, 송골매를 포함한 맹금류 등이 풍부하며 자연애호가의 재미난 경험을 제공한다.²⁵⁾

(10) 베설 항(Port of Bethel)

▶위치²⁶⁾: 북위 60도 47분 18, 서경 161도 45분 36, 항구 당국: 베설 시, 항구 규모: 소, 항구 형태: River Port, UN/LOCODE: USBET

▶개요와 역사

베설 항은 미국에서 가장 큰 황무지로서 알래스카 서부해안 내 쿠스코킵(Kuskokwim) 강어귀로부터 65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항은 딜링햄 항구 북서쪽 300해리 떨어져 있으며, 진입은 선박이나 혹은 항공교통만 가능하다. 이 항은 쿠스코킵(Kuskokwim) 강의 중심 항이며, 유콘-쿠스코킵 델타(Yukon-Kuskokwim Delta) 지역 내 위치한 56개 마을을 위한 허브 지역이다.

이 델타 지역 내 지역 센터로서 베설 항은 이 지역의 식료품, 의료, 교통, 연료, 기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설 항 일자리의 반 정도는 정부 공무원이며, 수산업이 이 지역의 주요 소득 수입원이다. 베설 항의 주민은 200여명이며, 상업적 어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수산업 자체가 주요 생계수단이다

베설 항은 ‘훈제소 인(Smokehouse People)’을 의미하는 뭄트레클로하무테(Mumtreklogamute)로 불리는 유픽(Yup'ik)마을 근처에 모라비아(Moravia) 선교단이 전초기지를 건설하면서 정착했으며, 최초로 항구를 개설하면서 정착했다. 유픽 족은 남부와 서부 알래스카와 러시아 극동 원주민으로 이누이트 족과 관련되어 있다.

알래스카 상업회사의 무역기지가 여전히 활동했던 1880년 미국 인구센서스 결과 베설 항에 4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베설이라고 명명한 모라비아 교회는 1885년에 개설됐다. 베설 항 거주지는 무역, 교통, 상품 배급지의 센터로 발전했으며, 주변 마을지역으로 새로운 정착자들을 유인했다. 1905년에 우체국이 개설됐다. 그 후 연방 및 주 정부 분과가 베설 항의 지역 사무소를 개설했다. 1957년에 공식적으로 베설 시로 승격됐으며, 오늘날에도 유콘-

25) "Port of Dillingham, Cruising and Travel,"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ruising/USA_AK_Port_of_Dillingham_3482.php

26) "Port of Bethel,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Bethel_3480.php

쿠스코킵 델타(Yukon-Kuskokwim Delta)지역에는 56개의 마을을 위한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와 모라비아 전도사의 영향력 결과 베설 항의 원주민은 지역문화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을 가지게 됐다.

연방법적으로 인정한 ‘오루트사라무이트 원주민 위원회(Orutsaramuit Native Council)’는 베설 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70%는 전체 혹은 일부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하면서 전통적 유픽 에스키모(Yup'ik Eskimo)의 문화와 언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²⁷⁾

▶항구 상거래

하버 대표(Harbor Director)가 관리하는 베설 시 항구/부두 분과는 베설 항 내 시설과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다. 시 매니저는 베설 항 대표를 임명하고 감독한다. 이 분과는 소규모 보트 부두, 방파제, 화물 및 석유 부두를 포함한 모든 항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분과는 베설 항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등을 관리하는 규정을 부과한다. 베설 항은 환적 선박의 석유제품을 수령하며 유콘—쿠스코킵 델타(Yukon-Kuskokwim Delta)지역으로 향하는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 항은 지방의 상업적 연어산업도 지원하고 있다.

베설 화물부두 항에 소재한 9에이커 상당의 시설물은 창고와 화물을 타운과 알래스카 북부와 서부 지역 마을로 공급하고 있다. 외부세계와 철도 혹은 도로와 연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베설 화물 부두 항과 항구지역은 델타 지역 내 화물 이동의 생명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베설 항은 2개의 주요 여객 항공선, 2개의 화물운송, 다양한 항공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유 베설 공항을 관리하고 있다. 베설 항 내 공항 근처에 2개의 수상비행 기지가 있다.

26킬로미터 상당의 지방도로를 갖추고 있는 베설 항은 미국 최북단 중간 드래프트 항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여름철에 하천 수송이 주요 교통로이며, 겨울철에 하천은 이 지역 마을의 동결 도로(241킬로미터 상당)로 이용되고 있다.²⁸⁾

▶크루즈와 관광

베설 항은 스키, 카약, 자전거, 설상차, 사냥, 낚시 등 다양한 야외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3월에 3일 동안 개최되는 카마 댄스 페스티벌(Camai Dance Festival)은 수백 명의 가수, 드럼연주가, 전통의복을 입은 댄서들이 전통적인 유픽(Yup'ik)원주민의 이야기를 연주한다.

베설 항은 인기 있는 중간 거리의 ‘쿠스코킵(Kuskokwim) 300’이라는 개썰매 경주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이 경주는 한 때 베설 항에서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과거의 우체국 루트에서 이루어진다. 매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우수한 개썰매 참가들이 참가하며 상금 규모는 1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27) “Port of Bethel, Review and History,”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USA_AK_Port_of_Bethel_3480.php

28) “Port of Bethel, Port Commerce,”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ommerce/USA_AK_Port_of_Bethel_3480.php

베설 항은 아북극 기후대로서 길고 차가운 겨울인 반면에 여름은 짧고 온화하다.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14도이며, 7월 평균기온은 영상 13도이다. 매 여름철에 기온이 21도를 상회하는 날은 평균 13일 정도이다. 강수량은 여름철에 제일 많으며, 적설량은 주로 11월과 12월이며, 연간 적설량은 평균 45인치이다.

‘유콘 델타 국립야생보호지(Yukon Delta National Wildlife Refuge)’가 베설 항의 가장 인상적인 방문 목적지이다. 이 보호지는 수질과 수량의 확보, 수산물과 야생동물, 천연서식지의 보존과 보호,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한 1909년 시어더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대통령의 협정 준수 차원에서 첫 번째로 설립됐다. 이 보호지에는 해안 조류와 바다 조류, 툰드라 백조, 거위, 철새, 연어, 사향소, 수많은 해상 포유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베설 항을 포함한 2,200만 에이커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 보호지는 남서 알래스카의 북방 한대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보호지에는 2개의 섬을 포함하고 있다. 100만 에이커 상당의 화산 누니바크(Nunivak)섬과 넬슨(Nelson)섬이 있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2개의 강, 즉 유콘 강과 쿠스코킴(Kuskokwim)강으로 형성된 이 보호지의 2분의 1은 하천/바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시 시대의 수생 서식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콘 보호지의 대부분은 툰드라 서식지이지만 대부분의 생산적 야생 동물 서식지는 베링해 해안지에 존재한다.

이 보호지에서 주 및 연방 규정에 부응하는 규제 조건 하에서 사냥이 가능하다. 주정부 사냥 면허가 필수조건이다. 큰 사냥감(big game)은 드물며, 곰, 사향소, 카리부(삼림순록) 등의 사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호지에서 생계어업은 스포츠 낚시를 능가하고 있으며, 모든 하천과 바다에서 알래스카 주 어업면허로 낚시를 할 수 있다. 주요 어종으로는 태평양 연어, 무지개 송어, 기타 어류 등이 존재하며, 어업지역으로의 접근은 항공교통, 전통 보트, 하천 뗏목으로만 가능하다. 또한 이 보호지에서 면허를 받을 경우 모피 동물의 땃 놓기도 가능하다. 물새와 해안조류는 해안가에서 집중 서식하고 있다.

베설 항부터 높은 여행비용이 들지만 유콘 델타 야생보호지는 야생동물의 관람과 사진촬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누니바크(Nunivak)섬은 사향소와 순록의 서식지이며, 물새와 해안조류는 해안가에서 집중 서식하고 있으며, 내륙 하천에는 무스(말코손바닥사슴)과 흑곰들이 있다. 갈색곰, 카리부, 늑대는 킬벅 산(Kilbuck Mountains)에서 서식하고 있다.²⁹⁾

(11) 세인트 미켈 항(St Michael Harbor)

▶ 위치³⁰⁾: 북위 63도 28분 43, 서경 162도 1분 46, 항구당국: 정보 없음, 항구규모: 매우 소, 항구형태: Pier, Jetty or Wharf, UN/LOCODE: USSMK

(12) نوم 항(Port of Nome)

▶ 위치³¹⁾: 북위 64도 29분 54, 서경 165도 25분 48, 항구당국: 정보 없음, 항구규모: 소,

29) "Port of Bethel, Cruising and Travel,"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ruising/USA_AK_Port_of_Bethel_3480.php

30) "St Michael Harbor,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St_Michael_Harbor_4188.php

31) "Port of Nome,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Nome_314.php

항구형태: Harbor, UN/LOCODE: USOME

▶ 개요와 역사

놈(Nome)항은 서부 알래스카 베링 해 ‘노턴 사운드(Norton Sound)’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항은 러시아 프로비덴िया(Providenija)항 동쪽 225해리, 어널래스카(Unalaska)섬 더치 하버(Dutch Harbor)항부터 652해리 떨어져 있다. 놈(Nome)항의 북쪽은 ‘베링 랜드 브리지 국립보존지(Bering Land Bridge National Preserve)’가 있으며, 이 랜드 브리지는 한때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연결로 인류를 신대륙으로 이동하는 통로였다. 2005년 기준으로 놈(Nome)항 지역에 3,6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놈(Nome)항의 지역경제는 수산업, 교통, 순록업, 에스키모 공예품, 관광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여름철에 화물증기선이 사람과 화물을 놈(Nome)항으로 운송하고 있다. 놈(Nome)항부터 방사선 도로들이 북극툰드라 지역까지 펼쳐져 있다. 항공편은 연중 놈(Nome)시(市)가 서비스하고 있다. 놈(Nome)항은 알래스카 골드러시에서 역사적 역할, ‘이디타로드 개썰매 레이스(Iditarod Trail Sled Dog Race)’의 종착지로 유명하다.

역사시대 이전부터 미래 놈(Nome)항으로 불릴 이 지역은 이누피아타어를 구사하는 원주민들의 사냥지였다. 금광이 발견되기 이전부터 놈(Nome)항 지역에 시트나수악(Sitnasuak)이라 불리는 이누피이트(Inupiat)정착지의 고고학적 증거들이 입증되고 있다.

1898년 여름 3명의 스웨덴계 미국인들이 안빌 크릭(Anvil Creek)지역에서 금광을 발견했으며, 겨울에 이 발견이 외부세계에 알려졌다. 1899년 놈(Nome)항의 인구수는 1만 명이었다. 놈 광산지구(Nome Mining District)라 불리는 지역에서 금광 시굴자들은 놈(Nome)항 해안가 몇 마일 펼쳐진 해안 모래에서 금을 발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이 지역으로 진입했다.

1900년 봄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항부터 놈(Nome)항으로 증기선을 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입했다. 해안가의 텐트 시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케이프 놈(Cape Nome)부터 케이프 로드니(Cape Rodney)까지 48킬로미터 펼쳐져 있었다.

1900-1909년 동안 놈(Nome)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2만 여명을 상회했다. 1900년 미국 인구센서는 기록적 인구수로 거의 1만 2,500명으로 집계했다. 동시에 놈(Nome)항은 알래스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미군이 치안을 유지하면서 움막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혹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나운 겨울 이전까지 강제 퇴거가 이루어졌다.

1920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광이 소진되면서 인구수는 852명으로 감소했다. 준설 금광들이 폐쇄된 1960년대 말까지 금광은 놈(Nome)항의 주요 소득수입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금광 발견 후 놈(Nome)항 지역에서 최소 360만 온스의 금을 채굴했다.

놈(Nome)항 인구가 증가하면서 신참자들은 첫 번째 금광 채굴자들의 행운을 질투하는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동일한 부동산 권리 주장을 시도했다. 연방법원은 첫 번째 제소를 지지하는 동안 공화당 관료 알렉산더 맥켄지(Alexander McKenzie)는 놈(Nome)항의 연방판사로서 옛 친구를 임명할 수 있었다. 맥켄지(McKenzie)와 그의 지명판사는 대부분의 생산적인 금광을

탈취할 목적으로 알래스카 놈(Nome)항으로 갔다. 이 도적질이 최종적으로 정지되면서 이 스토리는 렉스 비치(Rex Beach)의 베스트셀러 소설, 스포일러(Spoilers)의 기지가 됐다. 이 소설은 5번 영화화 됐다. 존 웨인(John Wayne)(1907-1979년 본명은 Marion Michael Morrison)과 말렌 디트리히(Marlene Dietrich)(1904-1992년)배우는 이 영화의 가장 인기 있는 버전의 스타가 됐다.

놈(Nome)항 골드러시 건축의 대부분은 1905년과 1934년 화재, 1900년, 1913년, 1947년 강풍으로 파괴됐다. 화재 이전의 재산물인 디스커버리 살롱(Discovery Saloon)은 재 복원된 민간 거주 지역으로 살아남았다. 1925년 에스키모 원주민들은 디프테리아 유행병이 심하게 강타 당했다. 혹독한 겨울철 지원을 위해 개썰매들이 디프테리아 혈청을 이동하는데 사용됐다. 생명구조의 역사적 이벤트를 기념하여 놈(Nome)항은 1973년부터 개최된 1,600킬로미터 이상이나 펼쳐진 이디타로드 개썰매 레이스(Iditarod Trail Sled Dog Race)의 목적지이다.

놈(Nome)항은 페리 시스템의 마지막 정류지로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무기대여 프로그램 내에서 소련 행 미국 비행기의 종착지였다. 미군이 건설한 활주로는 지금도 활주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과거 ‘마크스 공군기지(Marks Air Force Base)’는 현재 놈(Nome)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에도 놈(Nome)항 지역경제는 여전히 금광이 주요산업이며, 기타 주요부문으로 정부, 도로건설, 수선, 목공품 등이다.³²⁾

▶ 항구 상거래

놈(Nome)항은 서부 중앙 알래스카의 남부 슈어드 반도(Seward Peninsula) 내 노턴 사운드(Norton Sound)해안가에 소재하고 있다.

남쪽 시티 독(City Dock)은 놈 코즈웨이(Nome's Causeway)항에 위치하고 있으며, 벌크화물과 커뮤니티 연료공급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심 6.9미터, 61미터 길이를 가지고 있다. 북쪽 웨스트 골드 독(West Gold Dock)은 수심 6.9미터, 57.9미터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암석과 자갈 수출품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이 독은 중장비 하역과 선적을 위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방파제와 독길(Causeway) 사이 폭 152미터 건설개시는 심해 ‘코즈웨이 독(Causeway docks)’과의 접근과 스네이크 강(Snake River)의 소형보트 하버(Small Boat Harbor)와 연결이 가능하다. 외측 항부터 내측 항으로 진입 항행채널은 부표로 표시된다.

놈(Nome)항 내 소형보트 하버는 3미터 수심, 2개의 플로팅 독에서 어선과 레이크레이션 보트의 계류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소형화물선은 마을 화물을 남, 서, 동쪽 내측 하버 시트 파일(널말뚝) 독에서 적재하여 동쪽 해안 하역, 서부 바지 승강대로 운송된다.

2005년에 새로운 18.3미터 폭을 지닌 콘크리트 바지 승강대가 내측 하버 내에서 놈(Nome)항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구축됐다. 이 승강대는 벌크화물선에게 환적화물을 바지선 착륙을 위해 코즈웨이(Causeway)독에 가깝게 하고 있다. 컨테이너, 선박, 장비를 위한 2에이커 상당의 토지 공간도 확보되고 있다.³³⁾

32) "Port of Nome, Review and History,"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USA_AK_Port_of_Nome_314.php

33) "Port of Nome, Port Commerce,"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ommerce/USA_AK_Port_of_Nome_314.php

▶ 크루즈와 관광

놈(Nome)항은 아북극지대 내 위치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추운 겨울과 여름기온은 적절하고 평온한 편이다. 7월은 연중 가장 따뜻하며, 평균기온은 14.8도(화씨 58.6도) 이상이며, 가장 추운 달은 2월이며, 평균기온은 영하 19도(화씨 마이너스 2.3도) 이하이다. 강우량은 공평하게 연중 일정한 편이다. 6-8월에 1인치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눈은 7-8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리고 있다. 가장 건조한 달은 3월이며, 가장 습한 달은 8월이다.

매년 3월 중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디타로드 개썰매 레이스(Iditarod Sled Dog Race)는 놈(Nome)항이 최종 목적이다. 이 레이스 이벤트는 한 달 내 개최되고 있으며, 1,700킬로미터의 혹독한 황야 조건 하에서 펼쳐진다. 레이스 종료 시점에 놈(Nome)항의 인구수는 몇 천 명으로 증대된다. 극한 이벤트의 모험과 동지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년 3월 놈(Nome)항으로 집결된다.

1984년 2월부터 3,000킬로미터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아이언 도그 스노우모빌 레이스(Iron Dog Snomobile Race)는 빅 레이크(Big Lake)부터 놈(Nome)을 거쳐 페어뱅크스(Fairbanks)로 이어진다. 극단적인 열악한 겨울 조건과 알래스카에서 가장 험난하고 오지의 지형 조건 하에서 매년 2명이 팀을 이룬 35-40개의 팀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특하고 극단적 모험을 추구하는 골프인들을 위해 '베링 해 아이스 골프 클래식(Bering Sea Ice Golf Classic)'이 3월 3번째 토요일에 개최된다. 골프 인들은 6개 홀에서 플레이 하며, 캐디로서 허스키가 끄는 개썰매를 이용하고 있다.

놈(Nome)항 지역은 3개의 독특한 동식물의 서식지(해양, 습지, 높은 산악 툰드라)를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150여종 이상의 철새들이 찾아온다. 봄철 빙하와 눈이 녹는 시절에 철새의 이동이 시작된다. 많은 조류 종이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이곳으로 찾아오며, 8월 중순 가을에 철새들은 떠난다. 이 시기 동안 놈(Nome)항 지역은 조류 관찰자의 천국이다.

놈(Nome)항의 방문객들은 해안에서 선광냄비로 씻어서 금을 발견할 수 있다. 허가권은 필수적이지만 놈(Nome) 동쪽 민간 소유의 해안가는 모험을 위해 대중에게 오픈되고 있다. 모래에서 금을 발견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매년 일부 금광업자들은 놈(Nome)항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해안가에 채류하는 동안 금 채굴을 시도한다. 레이크레이션 금 채굴의 정의는 채굴업자들이 경장비 조건 하에서 제한된 규모의 모래를 준설 및 흡입하고, 하루 3만 톤 깎린 이상 물의 펌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해안에서 금광 채굴과 선광냄비로 씻는 방법의 금 채굴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놈(Nome)항 해안가에서 여전히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식사용 불 혹은 모닥불을 위한 목재찌꺼기는 풍부하며, 하천에는 생선 또한 가득하다. 해안으로 밀려오는 물결은 전 세계로부터 태평양 조류로 운반된 유리wa 기타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백야 현상으로 여름 기온은 카약과 서핑을 위해 충부한 편이다. 놈 로터리 클럽(Nome Rotary Club)은 폴라 베어 스вим(Polar Bear Swim)의 후원을 받아 매년 미드나이트 선 페스티벌(Midnight Sun Festival)을 개최하고 있다.³⁴⁾

(13) 코츠뷰 항(Port of Kotzebue)

▶ 위치³⁵⁾: 북위 66도 53분 49, 서경 162도 35분 18, 항구당국: 코츠뷰 시, 항구규모: 소, 항구형태: Harbor, UN/LOCODE: USOTZ

▶ 개요와 역사

북서 알래스카 북극 서클(Arctic Circle) 내에 위치한 코츠뷰(Kotzebue)항은 놈(Nome)항 북동쪽 300킬로미터(186마일), 베링 해를 가로질러 러시아 프로비덴िया(Provideniya)항 북동쪽 321해리 떨어져 있다. 코츠크 사운드(Kotzebue Sound)로 명명된 코츠브 항은 1818년에 러시아를 위해 북서항로를 모색했던 탐험가 오토 폰 코츠뷰(Otto von Kotzebue)에 기원을 두고 있다.

코츠뷰 항은 북극 서클 북쪽 53킬로미터(33마일) 떨어진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2000년 미국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코츠뷰 인구수는 3,082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알래스카 원주민이 거의 4분의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츠뷰 항은 선박 및 항공교통의 지역 센터로서 3개의 강 [노아탁(Noatak), 셀라웁(Selawik), 코북(Kobuk)]어귀에 위치해 있으며, 배로 화물과 여객을 코츠뷰 항부터 인접 계곡을 따라 암블러(Ambler), 누르빅(Noorvik), 노탁(Noatak)마을에 운송하고 있다. 코츠뷰 항에 소재한 공항은 지역 항공교통의 센터이다.

코츠뷰 항과 주변지역은 오랫동안 이누피아트 에스키모(Inupiat Eskimos)원주민의 고향지이다. 이 원주민들은 15세기 이 지역이 지방 무역과 모임 장소가 된 이전부터 거주해왔다. 원주민은 코츠뷰 항 지역을 이누피아트 (Inupiat)언어로 ‘거의 하나의 섬’이라는 의미를 지닌 키키크타그루크(Kikiktagruk 혹은 Qikiqtagruk)라고 칭했다.

오토 폰 코츠뷰(Otto von Kotzebue)이 19세기 초 북서항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하면서 코츠뷰 항은 외부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러시아 무역인들이 모피, 새·동물에게 들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장소, 물개가죽, 밀봉유, 소총, 타약을 거래하기 위해 내부 마을 원주민들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종교사절단, 무역인, 금광 투기자들이 들어오면서 코츠뷰 항은 성장했으며, 무역 인들은 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897년 가축화된 아시아 순록이 알래스카로 반입되면서 코츠뷰 항 지역에 순록 무리들이 늘어났으며, 1899년에 우체국이 개설됐다.

현재 코츠뷰 항은 북서 알래스카에서 교통, 서비스, 의료 산업의 지역 센터이다. 주요 고용자는 지역경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관광, 수산업 부문이다. 코츠뷰 항은 알래스카 대학교의 축치 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코츠뷰 항은 세계에서 랭킹 10위권 개썰매 경기 중 2개의 종착지역이다. 이 경기는 유명한 이디타로드 슬레드 독 레이스(Iditarod Trail Sled Dog Race): 존 베이커(John Baker)와 에드 이텐(Ed Iten) 개썰매 경기이다. 코츠뷰 항은 1991년 새먼베리(Salmonberries)영화 촬영지였

34) "Port of Nome, Cruising and Travel,"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ruising/USA_AK_Port_of_Nome_314.php

35) "Port of Kotzebue,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Port_of_Kotzebue_3527.php

다.

코츠뷰 항은 2개의 주요 비영리 원주민 그룹의 기지, 나나 지역단체(NANA Regional Corporation)와 마니일라크 협회(Maniilaq Association)가 활동하고 있다. 북서 북극 원주민협회(NANA: Northwest Arctic Native Association)로 알려진 NANA 지역단체(NANA: Regional Corporation)는 코츠뷰 항에 거주하는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 촉진, 종족 영토의 보호, 건전한 커뮤니티 구축 등 이누피아트(Inupiat)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마니일라크 협회(Maniilaq Association)는 북서 아메리카 거주하는 원주민의 사회보장, 의료, 종족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³⁶⁾

▶ 항구 상거래

크로우리 마린 서비스회사(Crowley Marine Services, Inc.)는 코츠뷰 항 내 코츠뷰 부두의 소유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두는 컨테이너화물, 전통적 일반화물, 석유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14만 6,000배럴 용량을 지닌 15개 철강 저장탱크는 7개의 6인치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코츠뷰 항 부두 뒤편에 총 1.6에이커 상당의 3개의 비포장된 화물저장 지역을 가지고 있다. 이 부두는 코츠뷰 공항 북쪽 2킬로미터(1.2마일) 떨어져 있으며, 수심 3미터(10피트), 122미터(400피트)길이를 지닌 선박 계류지를 포함하고 있다.

코츠뷰 독(dock)항은 드레이크 건설사(Drake Construction, Inc.) 소유이며, 크로우리 마린 서비스회사(Crowley Marine Services, Inc.)와 공동운영하고 있다. 이 독은 모래와 자갈 화물의 처리, 선박 수리와 보수정비를 위한 계류지를 제공하고 있다. 화물은 모래, 돌, 자갈, 암석, 흙, 석회석, 준설자대 등이다.

선박 수리를 위한 코츠뷰 독(dock)항 근처에 1.5에이커 상당의 확 트인 지역이 있다. 드레이크 건설사(Drake Construction, Inc.)는 2만 5,000톤 용량을 지닌 이 독 항 뒤편에 저장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코츠뷰 공항 북쪽 2.5킬로미터(1.5마일) 떨어진 이 독은 수심 1.2미터(4피트), 7미터(24피트) 길이를 지닌 계류 공간을 가지고 있다.³⁷⁾

▶ 크루즈와 관광

코츠뷰 항 방문객은 NANA 북극박물관(Museum of the Arctic)과 노스 텐트 시(North Tent City)를 관람할 수 있다. NANA 북극박물관은 스토리텔링, 슬라이드 쇼, 디오라마(소형 입체 모형)로 전시된 야생 이누피아트(Inupiat) 문화와 문화 공예품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여름철 이 박물관에서 담요를 흔들면서 춤추는 에스키모 인들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매 여름철마다 노스 텐트 시(North Tent City) 어업 캠프가 조성되며 시즌 수산물의 건조와 굽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츠뷰 항은 겨울철은 길며 눈이 많이 내리며, 여름은 짧은 온화한 아북극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 얼음은 10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남아 있으며, 2월 평균기온은 영하 20도(화씨 마이너스

36) "Port of Kotzebue, Review and History,"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review/USA_AK_Port_of_Kotzebue_3527.php

37) "Port of Kotzebue, Port Commerce,"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ommerce/USA_AK_Port_of_Kotzebue_3527.php

3.5도) 이하이며, 7월 평균기온은 영상 12도(화씨 55도) 이상이다. 여름철 영상 21도(화씨 70도)로 올라가는 날은 연중 5일 정도에 불과하다. 비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연간 강우량은 평균 10인치, 연간 적설량은 평균 40인치이다.

코츠투 항 남서쪽에 '베링 랜드 브리지 국립보존지(Bering Land Bridge National Preserve)'는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한 통로를 기념하는 곳이다. 현재 이 보존지는 오래된 과거사를 연구하는 고생물학자와 고고학자들에게 오픈되어 있다. 이누피아트(Inupiat) 원주민도 수천 년 동안 이용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연중 오픈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방문객은 7월과 8월에 도착하고 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선착순이며 일류 서비스 급을 가진 병크 하우스(합숙소)가 있는 '서러핀틴 핫 스프링스(Serpentine Hot Springs)'로 비행해서 진입하고 있다.

코츠투 항 동쪽 142킬로미터(88마일) 떨어진 지역에 소재한 '코북 밸리 국립공원(Kobuk Valley National Park)'은 9000년 동안 인간들이 코북(Kobuk)강을 따라 50만 마리의 카리부를 수확하기 위해 진입한 지역이다. 이곳은 연중(6월부터 9월은 긴 시간 동안) 오픈되고 있어 방문객은 사구, 카리부, 코북 강, 오니온 포트지(Onion Portage)의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케이프 크루센스틴 국립 기념지(Cape Krusenstern National Monument)'는 코츠투 항 북서쪽 75킬로미터(46마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인류활동의 고고학적 흔적들이 해안굴곡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누피아트(Inupiat)인들은 습지에 서식하는 철새, 툰드라 야생화, 사향소, 카리부, 무스(말코손박닥사슴)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자연자원을 지금도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

코츠투 항 북동쪽 85킬로미터(53마일) 떨어진 지역에 '노아탁 국립 보존지(Noatak National Preserve)'는 북미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분지의 중 하나로서 이 하천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 이 보존지는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온전한 자연생태계를 지니고 있다. 노아탁(Noatak)강은 경관이 좋은 강으로 국가가 인정한 하천으로서 야외 탐험가들은 부르크스 랜지(Brooks Range)부터 축치 해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강어귀까지 배로 항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6월부터 9월 사이에 오픈되며 캠핑, 배낭여행, 하이킹, 래프팅, 사진촬영, 낚시, 사냥 등의 여가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더 거친 북극 겨울에 모험가들은 생존 기술, 스키, 개썰매, 설상차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이 보존지에는 발전된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접근은 비행기 혹은 배로만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설상차로만 가능하다.³⁸⁾

(14) 레드 독 하버(Red Dog Harbor)

▶ 위치³⁹⁾: 북위 67도 34분 34, 서경 164도 4분 13, 항구당국: 정보 없음, 항구규모: 매우 소, 항구형태: Pier, Jetty or Wharf, UN/LOCODE: USRDB

38) "Port of Kotzebue, Cruising and Travel,"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cruising/USA_AK_Port_of_Kotzebue_3527.php

39) "Red Dog Harbor, Contact Information,"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USA_AK_Red_Dog_Harbor_4097.php

미국 알래스카 주의 지역연구: 지리, 행정구분, 원주민, 주요 지표

한종만

I. 지리적 개황

알래스카는 알류트어로 ‘거대한 땅’의 의미를 지닌 ‘Alyaska’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북아메리카 북부와 서부지역의 연방 주로서 미국 영토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70만 138평방킬로미터이며, 50개 주 중 가장 큰 면적을 지니고 있다. 이 주의 수도는 알래스카 남동쪽에 위치한 주노(Juneau)이며, 가장 큰 대도시이며 공업중심지는 남부에 위치한 앵커리지 시(약 27만 명)이다. 2010년 미국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인구수는 71만 231명이며, 가계 수는 25만 8,058세대로 집계됐다. 알래스카의 인구구조는 18세 이하 13만 2,440명(18.7%), 18-64세 인구는 52만 2,853명(73.6%), 65세 이상 인구는 54,938명(7.7%)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주의 평균연령은 33.8세이며, 남성과 여성 비율은 각각 52%와 48%이다(U.S. Census Bureau, 2010).

알래스카의 지형은 평균 고도가 3,060미터에 달하는 산악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산악 고리의 북부 중앙지역에 위치한 매킨리(McKinley)산은 6,198미터로서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다. 알래스카 북쪽 북극지역은 브루크(Brook)고리(최고봉 2,749미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서쪽에는 랭겔(Wrangell)산맥, 와셀-바클리(Wasell-Barkley)고원과 세인트 엘리아스(Saint Ellias)산맥으로 캐나다와 국경형성하고 있다.

알래스카 수도가 소재하고 있는 남동쪽은 태평양을 따라 좁은 모서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선박과 항공교통을 가능케 하고 있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하천은 유콘(Yukon)강으로 서부 쪽으로 유입되면서 알래스카 중앙을 관통하고 있다 이 강의 원천은 캐나다 로키산맥에서 시작해서 베링 해로 유입된다.

지리적으로 알래스카는 다음과 같은 3개의 거대 구역으로 구분된다: 북극해 해안저지, 산악과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유콘 저지, 태평양을 따라 형성되는 산악 고리.

알래스카는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빈번한 지진과 화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악 고리의 남부지역의 대부분은 빙하로 덮혀 있으며, 특히 남동부 지역은 비북극권 지역에서 가장 큰 산악빙하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말라스피나(Malaspina) 산악 빙하지역의 면적은 4,275km²로 거대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알래스카의 지형은 수천 개의 호수로 형성됐다.

알래스카 남부와 남동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300미터 깊이의 영구동토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름철에만 상층부분이 해동되고 있다. 알래스카는 다양한 기후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3개의 기후대로 구분되고 있다: 남부 중앙지역을 포함한 해안지역에서 해양성 기후, 서부해안과 알래스카 중앙지역의 대륙성 기후, 북극지역에서 북극 기후대.

알래스카의 기후는 농업을 부적절한 조건지만 하천 계곡 지역에서 빙하가 녹은 상층 토양층에서 곡물, 야채, 사료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농업 외에도 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모피 사냥은 여전히 알래스카 주민의 가장 큰 수입원이다. 넓은 숲 지대에서는 제지/목재 산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산악지역에서는 구리, 납, 철, 금, 은이 채굴되고 있다. 해안지역에서는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어와 대구는 주요 수출품이다. 알래스카는 풍부한 석탄이 매장되어 있으며, 1968년에 발견된 가대한 유전(트랜스알래스카 송유관)도 여전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알래스카의 자연환경은 풍부한 동식물이 장애 없이 서식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을 보존하기 위해 아이젠하워어 대통령은 1960년에 북동 알래스카 해안지역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북극국립자연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은 미국의 최북동단에 소재하는 자연보호구역이다. 이 구역은 1980년에 확장되어 총 면적은 7만 6,869 km²로 알래스카 전체 면적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이 보호구역의 2분의 1은 울창한 숲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5여종의 해양 및 육상 포유동물, 36종의 어류, 180여종의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¹⁾

II. 행정구분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알래스카의 인구수는 71만 231명²⁾(미국 전체 50개 주 중 47위), 면적은 57만 541평방마일(1위), 인구밀도는 1평방마일 당 1.2명(50위), 수도는 주노(Juneau), 1959년 1월 3일에 49번째 주로 편입, 국경선은 캐나다와 러시아, 약어는 AK이며, ANSI/PIPS코드는 02.

미국은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했으며, 지금까지도 동일한 국경을 형성하고 있다. 알래스카와 캐나다 남동쪽 공식 국경선은 1903년 조약에 근거하여 확정됐다. 알래스카 영토는 1912년 8월 24일에 조직화됐다. 알래스카는 미국 영토의 일부임도 불구하고 1870년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되지 않았지만 1880년 인구센서스에 알래스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1959년 1월 3일 알래스카가 법적으로 미국의 49번째 연방 주로 승격하면서 1960년대부터 미국 연방인구센서스 차원에서 통계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 **아메리카인디언지역(American Indian Areas)**: 알래스카는 연방법적으로 인정된 하나의 ‘아메리카 인디언 보호구역(American Indian Reservation)’을 가지고 있다.

▶ **알래스카 원주민지역단체/알래스카 원주민지역(Alaska Native Regional Corporations/Alaska Native Area)**: 알래스카는 아네트 섬 보호구역(Annette Island Reserve) 외 알래스카 내륙에서 경계를 구성하는 12개의 ‘알래스카 원주민지역단체(Alaska Native Regional Corporations: ANRCs)’가 존재하고 있다. ANRCs는 ‘알래스카 원주민 요구 정착 규정(Alaska Native Claims Settlement

1) "Infoblatt Alaska," *Haack Weltatlas-Online*, 2017.

2) 미국 연방 인구센서스 조사에 의거한 알래스카의 인구수는 1970년 30만 382명, 1980년 40만 1,851명, 1990년 55만 43명, 2000년 62만 6,93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Act: ANCSA)’에 의거하여 설립됐다. 이 단체 구역 내에 220개의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 통계 지역(Alaska Native Village Statistical Areas: ANVSAs)’으로 구성되어 있다.

▶ **메트로폴리탄 통계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과 관련 통계지역(Statistical Areas):** 알래스카는 2개의 ‘메트로폴리탄 통계지역과 ‘3개의 미시정치 통계지역(Micropolitan Statistical Areas)’을 가지고 있다.

▶ **카운티(Counties):** 알래스카는 29개의 카운티가 존재하고 있다.

알래스카 내륙의 대부분은 정치적 하위단위로 구역화 되지는 않고 있다. 자치구(Boroughs), 시/자치구(Cities and Boroughs), 지방자치체(Municipalities)는 법적 실체이며, 센서스 지역은 통계 실체이다. 알래스카 주에는 12개의 자치구(Boroughs), 4개의 시/자치구(Cities and Boroughs), 자치구와 동등한 2개의 지방자치체(Municipalities)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4개의 통합 지방정부[앵커리지, 주노(Juneau), 시카(Sitka), 랭겔(Wrangell)]와 한 개의 지방자치체(Municipality) 스카그웨이(Skagway)는 지방정부로 분류되고 있다.

알래스카는 ‘센서스 지역단위(Census Areas)’로 불리는 11개의 통계 법적단위가 존재한다. 센서스 지역단위는 자치구(Boroughs) 이외의 알래스카 주 자료 수집을 위해 주정부와 협력 하에 설립됐다. 이 지역단위는 때때로 ‘비조직화 된 자치구(Boroughs)’로 언급되고 있으며, 주정부에 의해 행정 관리되고 있다.

▶ **카운티 하위단위(County Subdivision):** 알래스카 내 센서스 하부지역단위로 알려진 37개의 카운티 하위지역단위가 존재한다. 센서스 하부지역단위는 1980년 인구센서스를 위해 처음으로 설립했다.

▶ **장소(Places):** 알래스카는 355개의 ‘장소(Places)’가 있으며, 148개의 ‘통합장소(Incorporates Places)’와 207개의 ‘센서스로 지정된 장소(Census Designated Places: CDPs)’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장소는 144개의 시, 3개의 시/자치구(Cities and Boroughs), 1개의 지방자치체(Municipality)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알래스카 주에는 미국 의회(상원과 하원)에서 인정된 주 입법지역단위, 통합학교 지역단위, 선거구 지역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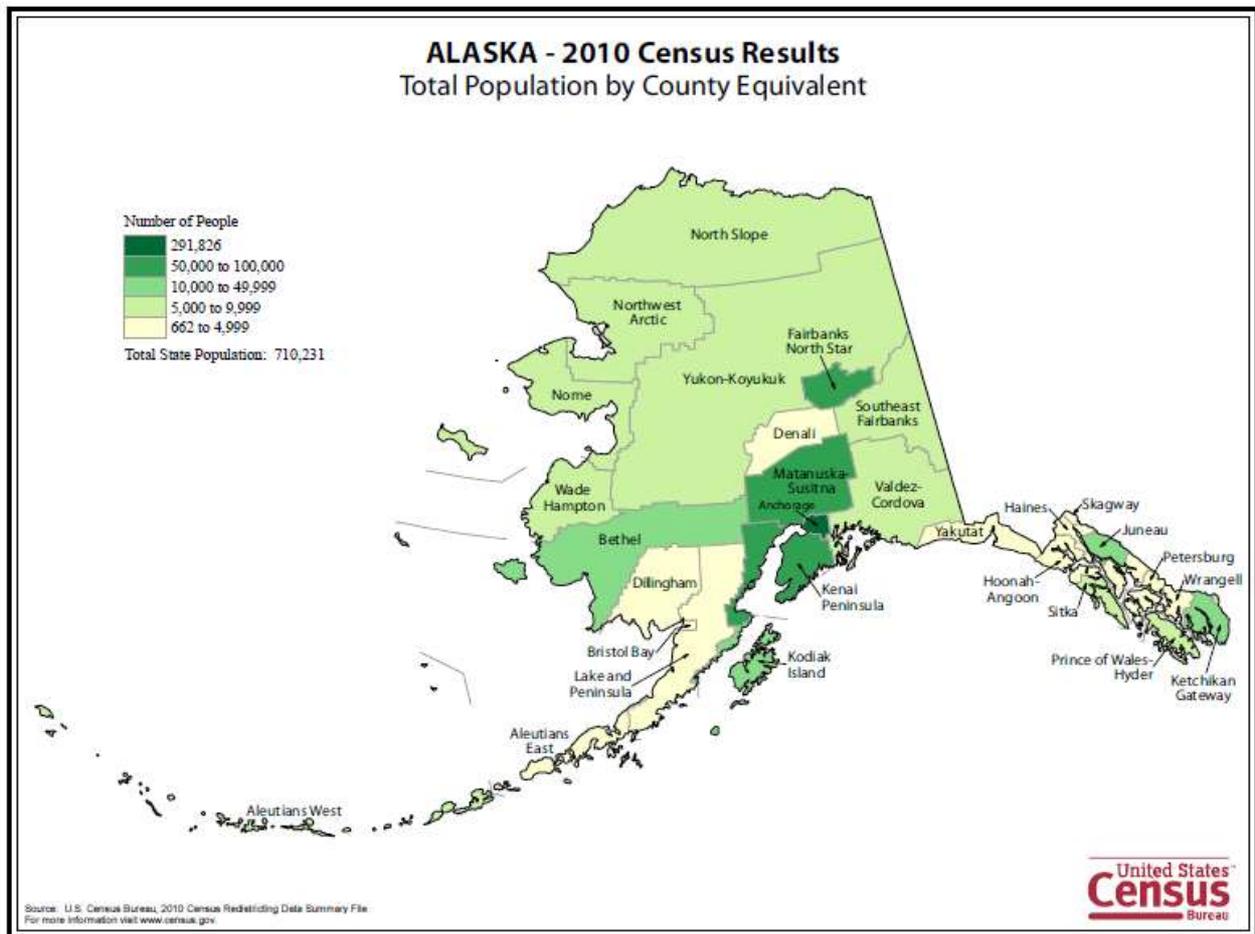
<표 1> 알래스카 주의 행정단위

| 지리적 단위 실체 | 2010년 인구센서스 | 2000년 인구센서스 |
|------------------------------|-------------|-------------|
|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하와이 원주민 지역 | 221 | 208 |
| 알래스카 원주민 지역단체 | 12 | 12 |
| 블록 그룹 | 534 | 533 |
| 센서스 블록 | 45,292 | 21,874 |

| | | |
|---|-----|-----|
| 센서스 트랙 | 167 | 158 |
| 의회 지역단위(Congressional Districts)(108차-112차) | 1 | 1 |
| 카운티 | 29 | 27 |
| 카운티 하부지역단위 | 37 | 36 |
| 장소(Places) | 355 | 349 |
| 주 입법 지역단위(하원) | 40 | 40 |
| 주 입법 지역단위(상원) | 20 | 20 |
| 통합 학교 지역단위 | 53 | 53 |
| 선거구 지역단위 | 456 | 467 |

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0 Census: Alaska Profile,"
https://www2.census.gov/geo/pdfs/reference/guidestloc/02_Alaska.pdf

<그림 1> 2010년 미국의 인구센서스에 의거한 알래스카 인구 지도



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2010census/news/pdf/cb11cn83_ak_totalpop_2010map.pdf

III. 알래스카 원주민

원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알래스카 주(내륙과 섬)의 해안선의 길이는 약 5만 3,000km에 이

르고 있다. 2011년 7월 기준으로 알래스카 원주민의 수는 전체 인구수의 13%로서 10만 9,000여명의 여러 원주민 그룹들이 213개의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다(U.S. Census Bureau, 2014).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알래스카 원주민으로 유픽((Yup'ik)인 33,889명, 이누피아트(Inupiat)인 33,360명, 틀링깃-하이다(Tlingit-Haida)인 26,080명, 알래스카 아타파스카(Alaskan Athabascan) 22,484명, 알류트(Aleut)인 19,282명, 트심쉬안(Tsimshian)인 3,75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앵커리즈 총인구수는 29만 1,826명 아메리카인디언과 알래스카원주민 혹은 결합한 사람의 비중은 12.4%(3만 6,602명), 아메리카인디언과 알래스카원주민의 비중은 7.9%(2만 3,130명), 두 종족의 결합된 사람의 비중은 4.4%(1만 2,932명)로 집계됐다.³⁾

<표 2> 2000-2010년 아메리카 인디언 및 원주민 인구추이

| 내역 | 2000년 | | 2010년 | | 2000-10년 증감수/률 | |
|--|-------------|-------------|-------------|--------|----------------|--------|
| | 인구수 | 전체 인구 비중(%) | 인구수 | 증감률(%) | 인구수 | 증감률(%) |
| 미국 전체인구 | 281,421,906 | 100.0 | 308,745,538 | 100.0 | 27,323,632 | 9.7 |
|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혹은 결합 | 4,119,301 | 1.5 | 5,220,579 | 1.7 | 1,101,278 | 26.7 |
|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 2,475,956 | 0.9 | 2,932,248 | 0.9 | 456,292 | 18.4 |
|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결합 | 1,643,345 | 0.6 | 2,288,331 | 0.7 | 644,986 | 39.2 |
|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백인 | 1,082,683 | 0.4 | 1,432,309 | 0.5 | 349,626 | 32.3 |
|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흑인 혹은 아프리카 미국인 | 182,494 | 0.1 | 269,421 | 0.1 | 86,927 | 47.6 |
|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백인, 흑인 혹은 아프리카 미국인 | 112,207 | - | 230,848 | 0.1 | 118,641 | 105.7 |
|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기타 종족 | 93,842 | - | 115,752 | - | 21,910 | 23.3 |
|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인 | 52,429 | - | 58,829 | - | 6,400 | 12.2 |
|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결합 | 119,690 | - | 181,172 | 0.1 | 61,482 | 51.4 |
|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흑인 | 277,302,605 | 98.5 | 303,524,959 | 98.3 | 26,222,354 | 9.5 |

3) Tina Norris, Paula L. Vines, and Elizabeth M. Hoeffel, "The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Population: 2010," 2010 Census Brief, Issued Jan. 2012, p. 13.

| | | | | | |
|------------|--|--|--|--|--|
| 결합이 아닌 미국인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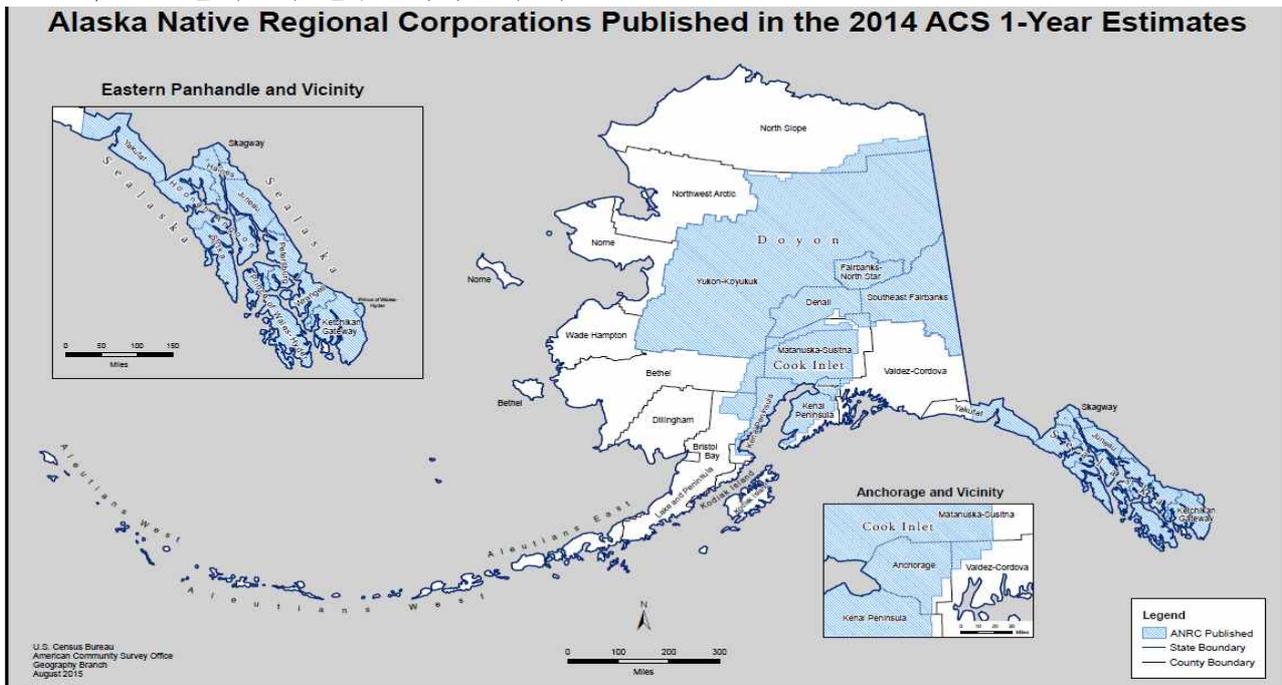
자료: Tina Norris, Paula L. Vines, and Elizabeth M. Hoeffel, "The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Population: 2010," 2010 Census Brief, Issued Jan. 2012, p. 4.

<표 3>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알래스카 원주민의 인구 분포

| 알래스카 원주민 | 원주민 | 여러 결합 원주민 | 원주민 혹은 결합 |
|--------------------------------|-------|-----------|-----------|
| 유픽(Yup'ik) | 85.4% | 14.6% | 33,889명 |
| 이누피아트(Inupiat) | 74.5% | 25.5% | 33,360명 |
| 틀링깃-하이다(Tlingit-Haida) | 58.5% | 41.5% | 26,080명 |
| 알래스카 아타파스카(Alaskan Athabascan) | 69.5% | 30.5% | 22,484명 |
| 알류트(Aleut) | 61.8% | 38.3% | 19,282명 |
| 트십쉬안(Tsimshian) | 61.4% | 38.6% | 3,755명 |

자료: Tina Norris, Paula L. Vines, and Elizabeth M. Hoeffel, "The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Population: 2010," 2010 Census Brief, Issued Jan. 2012, p. 19.

<그림 2> 알래스카 원주민지역단체 지도



https://www2.census.gov/programs-surveys/acs/geography/areas_published/reference_maps/2014/AK_ANRC_ACS14.pdf (검색일: 2018.1.17.)

<표 4> 2010년 아메리카 인디언 보호구역 및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 통계단위지역인구

| 지 | 지역 | 총인구 | 아메리카 | *** |
|---|----|-----|------|-----|
|---|----|-----|------|-----|

| 역 | | |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 | | |
|-----------|--|---------|--------------|---------|-------|--------|
| | | | 1 | 2 | 3 | |
| 아메리카인디언* | Navajo Nation Reservation and Off-Reservation Trust Land, AZ-NM-UT | 173,667 | 169,321 | 166,824 | 2,497 | 4,346 |
| | Pine Ridge Reservation, SD-NE | 18,834 | 16,906 | 16,580 | 326 | 1,928 |
| | Fort Apache Reservation, AZ | 13,409 | 13,014 | 12,870 | 144 | 395 |
| | Gila River Indian Reservation, AZ | 11,712 | 11,251 | 10,845 | 406 | 461 |
| | Osage Reservation, OK | 47,472 | 9,920 | 6,858 | 3,062 | 37,552 |
| | San Carlos Reservation, AZ | 10,068 | 9,901 | 9,835 | 66 | 167 |
| | Rosebud Indian Reservation and Off-Reservation Trust Land, SD | 10,869 | 9,809 | 9,617 | 192 | 1,060 |
| | Tohono O'odham Nation Reservation and Off-Reservation Trust Land, AZ | 10,201 | 9,278 | 9,139 | 139 | 923 |
| | Blackfeet Indian Reservation and Off-Reservation Trust Land, MT | 10,405 | 9,149 | 8,944 | 205 | 1,256 |
| | Flathead Reservation, MT | 28,359 | 9,138 | 7,042 | 2,096 | 19,221 |
| 알래스카원주민마을 | Knik Alaska Native village statistical area | 65,768 | 6,582 | 3,529 | 3,053 | 59,186 |
| | Bethel Alaska Native village statistical area | 6,080 | 4,334 | 3,953 | 381 | 1,746 |
| | Kenaitze Alaska Native village statistical area | 32,902 | 3,417 | 2,001 | 1,416 | 29,485 |
| | Barrow Alaska Native village statistical area | 4,212 | 2,889 | 2,577 | 312 | 1,323 |
| | Ketchikan Alaska Native village statistical area | 12,742 | 2,605 | 1,692 | 913 | 10,137 |
| | Kotzebue Alaska Native village statistical area | 3,201 | 2,585 | 2,355 | 230 | 616 |
| | Nome Alaska Native village statistical area | 3,681 | 2,396 | 1,994 | 402 | 1,285 |
| | Chickaloon Alaska Native village statistical area | 23,087 | 2,373 | 1,369 | 1,004 | 20,714 |
| | Dillingham Alaska Native village statistical area | 2,378 | 1,583 | 1,333 | 250 | 795 |
| | Sitka Alaska Native village statistical area | 4,480 | 1,240 | 855 | 385 | 3,240 |

주: * 보호구역; ** 통계지역단위;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혹은 결합 아닌 미국인; 1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혹은 결합; 2.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3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결합

자료: Tina Norris, Paula L. Vines, and Elizabeth M. Hoeffel, "The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Population: 2010," 2010 Census Brief, Issued Jan. 2012, p. 14.

<표 5>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아메리카 인디언 보호구역과 알래스카 원주민 통계지역단위

| 지역 | 총인구 | 아메리카인디언과 알래스카원주민 | | | 아메리카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혹은 결합이 아닌 미국인 |
|--------------------------|-------------|------------------|-----------|-----------|--------------------------------|
| | | * 혹은 결합 | * | * 결합 | |
| 총 아메리카 인디언 지역 | 4,576,127 | 1,069,411 | 901,280 | 168,131 | 3,506,716 |
| 총 알래스카 원주민통계 지역단위 | 242,613 | 78,141 | 65,855 | 12,286 | 164,472 |
| 아메리카 인디언 / 알래스카 원주민 이외지역 | 303,926,798 | 4,073,027 | 1,965,113 | 2,107,914 | 299,583,771 |

주: * 아메리카인디언과 알래스카원주민

자료: Tina Norris, Paula L. Vines, and Elizabeth M. Hoeffel, “The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Population: 2010,” 2010 Census Brief, Issued Jan. 2012, p. 13.

<그림 3> 베링 해 지도



<http://libarch.nmu.org.ua/bitstream/handle/GenofondUA/13536/7aa674cc486b90b76238f8cbcfab42af.pdf?sequence=1>

IV. 주요 지표

<표 6> 2010-2016년 알래스카 주요 인구/사회지표

| 내역 | 2016년 7월 1일 기준 추정치 | | 2010년 4월 1일 인구센서스 | |
|----------------|--------------------|-------------|-------------------|-------------|
| | 알래스카 | 미국 전체 | 알래스카 | 미국 전체 |
| 인구수(명) | 741,894 | 323,127,513 | 710,231 | 308,745,538 |
| 동기간 증감률(%) | 4.5 | 4.7 | - | - |
| 5세 이하 인구비율(%) | 7.3 | 6.2 | 7.6 | 6.5 |
| 18세 이하 인구비율(%) | 25.2 | 22.8 | 26.4 | 24.0 |
| 65세 이상 인구비율(%) | 10.5 | 15.2 | 7.7 | 13.0 |
| 여성 인구비율(%) | 47.7 | 50.8 | 48.0 | 50.8 |
| 백인 비율(%) | 66.1 | 76.9 | - | - |

| | | | | |
|--------------------------------|-----------|---------------|---------|-------------|
| 흑인 혹은 아프리카 주민비율(%) | 3.8 | 13.8 | - | - |
|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비율(%) | 15.2 | 1.3 | - | - |
| 아시아인 비율(%) | 6.3 | 5.7 | - | - |
| 하와이원주민/기타 태평양제도 민족(%) | 1.3 | 0.2 | - | - |
| 2개 이상 종족 경합 비율(%) | 7.3 | 2.6 | - | - |
| 히스패닉/라틴계 안중 비율(%) | 7.0 | 17.8 | - | - |
| 백인(히스패닉/라틴계 제외)비율(%) | 61.2 | 61.3 | - | - |
| 2011-15년 퇴역군인 수(명) | 69,323 | 20,108,332 | - | - |
| 2011-15년 해외에서 태어난 주민 비율(%) | 7.4 | 12.3 | - | - |
| 주택 수(개) | 310,658 | 135,697,926 | 306,967 | 131,704,730 |
| 2011-15년 자가 주택 비율(%) | 63.4 | 63.9 | - | - |
| 2011-15년 자가주택 평균가격(\$) | 250,000 | 178,600 | - | - |
| 2011-15년 자가주택 월별 모기지론(\$) | 1,827 | 1,492 | - | - |
| 2011-15년 모기지 론 없이 월평균 주택비용(\$) | 554 | 458 | - | - |
| 2011-15년 월평균 총 렌트 비용(\$) | 1,146 | 928 | - | - |
| 2016년 건물허가 건수(건) | 1,503 | 1,206,642 | - | - |
| 2011-15년 가계 수 | 250,969 | 116,926,305 | - | - |
| 2011-15년 가구당 인구수(명) | 2.81 | 2.64 | - | - |
| 2011-15년 1년 이상 동주택 거주 비율(%) | 80.9 | 85.1 | - | - |
| 2011-15년 영어 이외 언어 사용인구 비율(%) | 16.2 | 21.0 | - | - |
| 2011-15년 고등학교 졸업률 25세 기준(%) | 92.1 | 86.7 | - | - |
| 2011-15년 대학 졸업률 25세 기준(%) | 28.0 | 29.8 | - | - |
| 2011-15년 65세 이하 신체장애자 비율(%) | 8.1 | 8.6 | - | - |
| 2011-15년 65세 이하 의료보험 없는 비율(%) | 15.5 | 10.1 | - | - |
| 2011-15년 16세 노동력 비율(%) | 67.7 | 63.3 | - | - |
| 2011-15년 16세 여성노동력 비율(%) | 65.0 | 58.5 | - | - |
| 2012년 주택/식료 서비스 총비용(1,000\$) | 2,221,335 | 708,138,598 | - | - |
| 2012년 의료/사회지원 총비용(1,000\$) | 6,375,483 | 2,040,441,203 | - | - |
| 2012년 제조품 선적 총비용(1,000\$) | 정보 없음 | 5,696,729,632 | - | - |

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QuickFacts: selected: Alaska; UNITED STATES"

<https://www.census.gov/quickfacts/fact/table/AK,US/PST045216> (검색일: 2018.1.17.)

<표 7> 2010-2016년 알래스카 주요 사회경제지표

| 내역 | 알래스카 | 미국 전체 |
|-------------------------------|-----------|---------------|
| 2011-15년 16세 이상 노동인구 비율(%) | 67.7 | 63.3 |
| 2011-15년 16세 이상 여성 노동인구 비율(%) | 65.0 | 58.5 |
| 2012년 주택/식료 서비스 총비용(1,000\$) | 2,221,335 | 708,138,598 |
| 2012년 의료/사회지원 총비용(1,000\$) | 6,375,483 | 2,040,441,203 |
| 2012년 제조품 선적 총비용(1,000\$) | 정보 없음 | 5,696,729,632 |
| 2012년 도매 판매 총액수(1,000\$) | 5,216,303 | 5,208,023,478 |

| | | |
|---|------------|---------------|
| 2012년 소매 판매 총액수(1,000\$) | 1,044,275 | 4,219,821,871 |
| 일인당 소매 판매 총액수(\$) | 14,320 | 13,343 |
| 2011-15년 16세 이상 근로자 출근 평균 시간(분) | 19.0 | 25.9 |
| 2011-15년 가계 평균소득(2015년 기준 달러) | 72,515 | 53,889 |
| 2011-15년 지난 12개월 동안 일인당 가계소득(2015년 기준 달러) | 33,413 | 28,930 |
| 2011-15년 빈곤자 비율(%) | 9.9 | 12.7 |
| 2015년 고용주 수(명) | 20,907 | 7,663,938 |
| 2015년 총 취업자 수(명) | 267,999 | 124,085,947 |
| 2015년 연간 임금 총액(1,000\$) | 15,643,303 | 6,253,448,252 |
| 2014-15년 총 취업 증감률(%) | 0.4 | 2.5 |
| 2015년 비고용주 수(명) | 55,521 | 24,331,403 |
| 2012년 모든 형태의 회사 수(갯수) | 68,032 | 27,626,360 |
| 2012년 남성 소유 회사 수(갯수) | 35,402 | 14,844,597 |
| 2012년 여성 소유 회사 수(갯수) | 22,141 | 9,878,397 |
| 2012년 소수민족 소유 회사 수(갯수) | 13,688 | 7,952,386 |
| 2012년 비소수민족 소유 회사 수(갯수) | 51,147 | 18,987,918 |
| 2012년 퇴직군인 소유 회사 수(갯수) | 7,953 | 2,521,682 |
| 2012년 비퇴직군인 소유 회사 수(갯수) | 56,091 | 24,070,685 |
| 2010년 1평방마일 당 인구밀도(명) | 1.2 | 87.4 |
| 2010년 1평방마일 당농경지 면적(1평방마일) | 570,640.95 | 3,531,905.43 |
| PIPS 코드 | 02 | 00 |

자료: “QuickFacts: selected: Alaska; UNITED STATES”

<https://www.census.gov/quickfacts/fact/table/AK,US/PST045216> (검색일: 2018.1.17.)

<표 8> 2013-2016년 알래스카 주요 수출 품목 추이

| 순위 | 내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3 점유% | 2014 점유% | 2015 점유% | 2016 점유% | 2015-2016 증감률 % |
|----|----------------------------|-------|-------|-------|-------|----------|----------|----------|----------|-----------------|
| - | 알래스카 총수출 규모; 미국 전체 수출 점유율 | 4,528 | 5,111 | 4,620 | 4,347 | 0.3 | 0.3 | 0.3 | 0.3 | -5.9 |
| - | 25개 상품군 수출규모; 알래스카주 전체 점유율 | 4,253 | 4,534 | 4,202 | 4,114 | 93.9 | 88.7 | 90.9 | 94.6 | -2.1 |
| 1 | 아연광석 | 814 | 1,068 | 887 | 846 | 18.0 | 20.9 | 19.2 | 19.5 | -4.6 |
| 2 | 냉동 생선육류 | 341 | 347 | 374 | 399 | 7.5 | 6.8 | 8.1 | 9.2 | 6.5 |

| | | | | | | | | | | |
|----|--------------------------|-----|-----|-----|-----|-----|-----|-----|-----|-------|
| 3 | 납광석 | 389 | 367 | 327 | 383 | 8.6 | 7.2 | 7.1 | 8.8 | 16.9 |
| 4 | 냉동 알래스카 폴록 필레 | 284 | 319 | 299 | 295 | 6.3 | 6.2 | 6.5 | 6.8 | -1.4 |
| 5 | 냉동 어류 | 251 | 270 | 246 | 255 | 5.5 | 5.3 | 5.3 | 5.9 | 3.7 |
| 6 | 냉동 대구살 | 231 | 253 | 267 | 251 | 5.1 | 4.9 | 5.8 | 5.8 | -6.1 |
| 7 | 냉동 생선간 및 어란 | 246 | 225 | 256 | 177 | 5.4 | 4.4 | 5.5 | 4.1 | -30.6 |
| 8 | 냉동 홍연어 | 61 | 94 | 135 | 162 | 1.3 | 1.8 | 2.9 | 3.7 | 20.3 |
| 9 | 휘발류, 타르광석 | 285 | 176 | 163 | 150 | 6.3 | 3.4 | 3.5 | 3.4 | -7.8 |
| 10 | 넙치(필레, 간, 어란 제외) | 161 | 164 | 139 | 149 | 3.6 | 3.2 | 3.0 | 3.4 | 6.8 |
| 11 | 귀금속 광석 | 140 | 140 | 154 | 148 | 3.1 | 2.7 | 3.3 | 3.4 | -4.0 |
| 12 | 원유, 역청류 | 50 | 74 | 58 | 147 | 1.1 | 1.4 | 1.3 | 3.4 | 152.2 |
| 13 | 구리광석 | 150 | 186 | 99 | 146 | 3.3 | 3.6 | 2.1 | 3.4 | 47.3 |
| 14 | 냉동 태평양 연어 | 258 | 208 | 282 | 138 | 5.7 | 4.1 | 6.1 | 3.2 | -51.0 |
| 15 | 생선/갑각류 동물 필레 및 가루 | 77 | 100 | 100 | 96 | 1.7 | 2.0 | 2.2 | 2.2 | -3.8 |
| 16 | 침엽수 목재(가공되지 않은) | 163 | 123 | 90 | 93 | 3.6 | 2.4 | 1.9 | 2.1 | 3.2 |
| 17 | 냉동 알래스카 폴록 | 112 | 132 | 99 | 90 | 2.5 | 2.6 | 2.1 | 2.1 | -9.3 |
| 18 | 냉동 계 | 99 | 97 | 102 | 66 | 2.2 | 1.9 | 2.2 | 1.5 | -35.1 |
| 19 | 민간 항공기, 엔진, 부속품 | 46 | 104 | 47 | 28 | 1.0 | 2.0 | 1.0 | 0.7 | -39.6 |
| 20 | 냉동 청어 | 45 | 38 | 24 | 23 | 1.0 | 0.8 | 0.5 | 0.5 | -7.5 |
| 21 | 태평양 연어(신선 및 냉장) | 21 | 19 | 17 | 18 | 0.5 | 0.4 | 0.4 | 0.4 | 5.1 |
| 22 | 태평양/대서양/다뉴브 연어 필레 | 3 | 7 | 10 | 17 | 0.1 | 0.1 | 0.2 | 0.4 | 68.1 |
| 23 | 큰 넙치, 그린란드 가자미 필레, 간, 어란 | 18 | 12 | 14 | 15 | 0.4 | 0.2 | 0.3 | 0.3 | 2.3 |
| 24 | 귀금속 찌꺼기, 조각 | 0 | 0 | 0 | 12 | 0.0 | 0.0 | 0.0 | 0.3 | * |
| 25 | 생선지방, 오일 | 7 | 12 | 12 | 12 | 0.1 | 0.2 | 0.3 | 0.3 | -1.0 |

주: 100만 달러; * 500배 이상 증감률

자료: State Exports from Alaska, US Census, 2016.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state/data/ak.html> (검색일: 2018.1.12.)

<표 9> 2014-2017년 알래스카 주요 수출 품목 추이(단위: 100만 달러)

| 순위 | 내역 | 2014 | 2015 | 2016 | 2017 | 2014 점유 % | 2015 점유 % | 2016 점유 % | 2017 점유 % | 2016-2017 증감률 % |
|----|----------------------------|-------|-------|-------|-------|-----------|-----------|-----------|-----------|-----------------|
| - | 알래스카 총수출 규모; 미국 전체 수출 점유율 | 5,111 | 4,620 | 4,347 | 4,934 | 0.3 | 0.3 | 0.3 | 0.3 | +13.5 |
| - | 25개 상품군 수출규모; 알래스카주 전체 점유율 | 4,124 | 3,847 | 3,782 | 4,704 | 80.7 | 83.3 | 87.0 | 95.3 | +24.4 |

| | | | | | | | | | | |
|----|--------------------------|-------|-----|-----|-------|------|------|------|------|--------|
| 1 | 아연광석 | 1,068 | 887 | 846 | 1,231 | 20.9 | 19.2 | 19.5 | 24.9 | +45.4 |
| 2 | 납광석 | 367 | 327 | 383 | 431 | 7.2 | 7.1 | 8.8 | 8.7 | +12.6 |
| 3 | 냉동 생선육류 | 347 | 374 | 399 | 384 | 6.8 | 8.1 | 9.2 | 7.8 | -3.6 |
| 4 | 냉동 태평양 연어 | 208 | 282 | 138 | 315 | 4.1 | 6.1 | 3.2 | 6.4 | +128.6 |
| 5 | 냉동 어류 | 270 | 246 | 255 | 294 | 5.3 | 5.3 | 5.9 | 6.0 | +15.5 |
| 6 | 냉동 생선 간/어란 | 0 | 0 | 0 | 290 | 0.0 | 0.0 | 0.0 | 5.9 | 0.0 |
| 7 | 냉동 알래스카 폴록 필레 | 319 | 299 | 295 | 265 | 6.2 | 6.5 | 6.8 | 5.4 | -10.0 |
| 8 | 냉동 대구 | 253 | 267 | 251 | 244 | 4.9 | 5.8 | 5.8 | 4.9 | -3.0 |
| 9 | 냉동 홍연어 | 94 | 135 | 162 | 180 | 1.8 | 2.9 | 3.7 | 3.7 | +11.2 |
| 10 | 휘발류, 타르광석 | 176 | 163 | 150 | 174 | 3.4 | 3.5 | 3.4 | 3.5 | +16.1 |
| 11 | 넙치(필레, 간, 어란 제외) | 164 | 139 | 149 | 149 | 3.2 | 3.0 | 3.4 | 3.0 | +0.5 |
| 12 | 희귀금속 광석 | 140 | 154 | 148 | 131 | 2.7 | 3.3 | 3.4 | 2.7 | -11.4 |
| 13 | 냉동 알래스카 폴록 | 132 | 99 | 90 | 99 | 2.6 | 2.1 | 2.1 | 2.0 | +10.8 |
| 14 | 생선/갑각 동물 필레 및 가루 | 100 | 100 | 96 | 98 | 2.0 | 2.2 | 2.2 | 2.0 | +1.2 |
| 15 | 원유, 역청류 | 74 | 58 | 147 | 86 | 1.4 | 1.3 | 3.4 | 1.7 | -41.4 |
| 16 | 침엽수 목재(가공되지 않은) | 123 | 90 | 93 | 70 | 2.4 | 1.9 | 2.1 | 1.4 | -24.1 |
| 17 | 민간 항공기, 엔진, 부속품 | 104 | 47 | 28 | 60 | 2.0 | 1.0 | 0.7 | 1.2 | +112.7 |
| 18 | 냉동 게(조개 포함) | 97 | 102 | 66 | 55 | 1.9 | 2.2 | 1.5 | 1.1 | -16.6 |
| 19 | 태평양/대서양/다뉴브 연어 | 7 | 10 | 17 | 30 | 0.1 | 0.2 | 0.4 | 0.6 | +73.8 |
| 20 | 항공기 혹은 헬기 부품 | 0 | 1 | 3 | 25 | 0.0 | 0.0 | 0.1 | 0.5 | * |
| 21 | 태평양 연어(신선 및 냉장) | 19 | 17 | 18 | 23 | 0.4 | 0.4 | 0.4 | 0.5 | +28.1 |
| 22 | 의약품 | 0 | 0 | 0 | 22 | 0.0 | 0.0 | 0.0 | 0.5 | 0.0 |
| 23 | 냉동 청어 | 38 | 24 | 23 | 22 | 0.8 | 0.5 | 0.5 | 0.5 | -0.9 |
| 24 | 생선지방, 오일 | 12 | 12 | 12 | 13 | 0.2 | 0.3 | 0.3 | 0.3 | +12.5 |
| 25 | 큰 넙치, 그린란드 가자미 필레, 간, 어란 | 12 | 14 | 15 | 9 | 0.2 | 0.3 | 0.3 | 0.2 | -36.7 |

주: 100만 달러; * 500배 이상 증감률.

자료: US Census, "Total U.S. Exports (Origin of Movement) from Alaska, Top 25 6-digit HS Commodities Based on 2017 Dollar Value,"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state/data/ak.html> (검색일: 2018.3.16.)

<표 10> 2013-2016년 알래스카 제품의 주요 수출국

| 순위 | 내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3 점유 % | 2014 점유 % | 2015 점유 % | 2016 점유 % | 2015-2016 증감률 % |
|----|---------------------------|-------|-------|-------|-------|-----------|-----------|-----------|-----------|-----------------|
| - | 알래스카 총수출 규모; 미국 전체 수출 점유율 | 4,528 | 5,111 | 4,620 | 4,347 | 0.3 | 0.3 | 0.3 | 0.3 | -5.9 |

| | | | | | | | | | | |
|----|-------------------------------|-------|-------|-------|-------|------|------|------|------|-------|
| - | 25개 국가 수출규모; 알래스카 주 전체 점유율 | 4,440 | 4,933 | 4,550 | 4,229 | 98.1 | 96.5 | 98.5 | 98.9 | -5.5 |
| 1 | 중국 | 1,236 | 1,467 | 1,203 | 1,181 | 27.3 | 28.7 | 26.0 | 27.2 | -1.8 |
| 2 | 일본 | 688 | 1,015 | 964 | 816 | 15.2 | 19.8 | 20.9 | 18.8 | -15.4 |
| 3 | 한국 | 705 | 673 | 733 | 732 | 15.6 | 13.2 | 15.9 | 16.8 | -0.2 |
| 4 | 캐나다 | 604 | 517 | 419 | 485 | 13.3 | 10.1 | 9.1 | 11.2 | 15.6 |
| 5 | 독일 | 289 | 323 | 279 | 257 | 6.4 | 6.3 | 6.0 | 5.9 | -8.0 |
| 6 | 스페인 | 141 | 182 | 150 | 152 | 3.1 | 3.6 | 3.3 | 3.5 | 0.9 |
| 7 | 네덜란드 | 112 | 104 | 119 | 135 | 2.5 | 2.0 | 2.6 | 3.1 | 13.0 |
| 8 | 말레이시아 | 2 | 2 | 106 | 85 | 0.1 | 0.0 | 2.3 | 1.9 | -20.1 |
| 9 | 호주 | 62 | 111 | 86 | 74 | 1.4 | 2.2 | 1.9 | 1.7 | -14.3 |
| 10 | 프랑스 | 50 | 51 | 46 | 55 | 1.1 | 1.0 | 1.0 | 1.3 | 18.6 |
| 11 | 핀란드 | 43 | 65 | 57 | 45 | 0.9 | 1.3 | 1.2 | 1.0 | -21.5 |
| 12 | 벨기에 | 65 | 63 | 49 | 37 | 1.4 | 1.2 | 1.1 | 0.9 | -24.3 |
| 13 | 멕시코 | 7 | 10 | 8 | 36 | 0.2 | 0.2 | 0.2 | 0.8 | 365.8 |
| 14 | 이탈리아 | 8 | 69 | 57 | 31 | 0.2 | 1.4 | 1.2 | 0.7 | -45.3 |
| 15 | 대만 | 16 | 15 | 104 | 29 | 0.4 | 0.3 | 2.3 | 0.7 | -71.9 |
| 16 | 태국 | 41 | 41 | 49 | 27 | 0.9 | 0.8 | 1.1 | 0.6 | -45.3 |
| 17 | 영국 | 28 | 40 | 41 | 26 | 0.6 | 0.8 | 0.9 | 0.6 | -36.9 |
| 18 | 니카라과아 | 0 | 0 | 0 | 21 | 0.0 | 0.0 | 0.0 | 0.5 | * |
| 19 | 리투아니아 | 33 | 15 | 14 | 14 | 0.7 | 0.3 | 0.3 | 0.3 | -3.5 |
| 20 | 베트남 | 2 | 6 | 6 | 13 | 0.0 | 0.1 | 0.1 | 0.3 | 114.7 |
| 21 | 홍콩 | 24 | 18 | 11 | 13 | 0.5 | 0.4 | 0.2 | 0.3 | 12.6 |
| 22 | 우크라이나 | 39 | 19 | 4 | 11 | 0.9 | 0.4 | 0.1 | 0.3 | 170.6 |
| 23 | 덴마크 | 17 | 14 | 14 | 10 | 0.4 | 0.3 | 0.3 | 0.2 | -24.1 |
| 24 | 싱가포르 | 217 | 100 | 21 | 9 | 4.8 | 2.0 | 0.5 | 0.2 | -59.3 |
| 25 | 인도네시아 | 9 | 10 | 8 | 9 | 0.2 | 0.2 | 0.2 | 0.2 | 1.6 |

주: 100만 달러; * 500배 이상 증감률

자료: "Total U.S. Exports (Origin of Movement) from Alaska, Top 25 Countries Based on 2017 Dollar Value,"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state/data/ak.html> (검색일: 2018.1.12.)

<표 11> 2014-2017년 알래스카 제품의 주요 수출국

| 순위 | 내역 | 2014 | 2015 | 2016 | 2017 | 2014 점유 % | 2015 점유 % | 2016 점유 % | 2017 점유 % | 2016- 2017 증감률 % |
|----|------------------------------|-------|-------|-------|-------|-----------------|-----------------|-----------------|-----------------|---------------------------|
| - | 알래스카 총수출 규모; 미국 전체 수출 점유율 | 5,111 | 4,620 | 4,347 | 4,934 | 0.3 | 0.3 | 0.3 | 0.3 | +13.5 |

| | | | | | | | | | | |
|----|-------------------------------|-------|-------|-------|-------|------|------|------|------|--------|
| - | 25개 국가 수출규모; 알래스카 주 전체 점유율 | 4,900 | 4,525 | 4,247 | 4,843 | 95.9 | 98.0 | 97.7 | 98.2 | +14.0 |
| 1 | 중국 | 1,467 | 1,203 | 1,181 | 1,323 | 28.7 | 26.0 | 27.2 | 26.8 | +12.0 |
| 2 | 일본 | 1,015 | 964 | 816 | 812 | 19.8 | 20.9 | 18.8 | 16.5 | -0.4 |
| 3 | 캐나다 | 517 | 419 | 485 | 707 | 10.1 | 9.1 | 11.2 | 14.3 | +45.7 |
| 4 | 한국 | 673 | 733 | 732 | 669 | 13.2 | 15.9 | 16.8 | 13.6 | -8.5 |
| 5 | 독일 | 323 | 279 | 257 | 182 | 6.3 | 6.0 | 5.9 | 3.7 | -29.3 |
| 6 | 네덜란드 | 104 | 119 | 135 | 181 | 2.0 | 2.6 | 3.1 | 3.7 | +34.5 |
| 7 | 스페인 | 182 | 150 | 152 | 161 | 3.6 | 3.3 | 3.5 | 3.3 | +6.3 |
| 8 | 호주 | 111 | 86 | 74 | 159 | 2.2 | 1.9 | 1.7 | 3.2 | +115.6 |
| 9 | 말레이시아 | 2 | 106 | 85 | 72 | 0.0 | 2.3 | 1.9 | 1.4 | -14.6 |
| 10 | 프랑스 | 51 | 46 | 55 | 71 | 1.0 | 1.0 | 1.3 | 1.4 | +28.5 |
| 11 | 이탈리아 | 69 | 57 | 31 | 68 | 1.4 | 1.2 | 0.7 | 1.4 | +118.5 |
| 12 | 벨기에 | 63 | 49 | 37 | 61 | 1.2 | 1.1 | 0.9 | 1.2 | +62.5 |
| 13 | 태국 | 41 | 49 | 27 | 60 | 0.8 | 1.1 | 0.6 | 1.2 | +126.2 |
| 14 | 핀란드 | 65 | 57 | 45 | 57 | 1.3 | 1.2 | 1.0 | 1.2 | +28.6 |
| 15 | 대만 | 15 | 104 | 29 | 51 | 0.3 | 2.3 | 0.7 | 1.0 | +72.4 |
| 16 | 페루 | 2 | 1 | 0 | 37 | 0.0 | 0.0 | 0.0 | 0.8 | * |
| 17 | 영국(GB) | 40 | 41 | 26 | 27 | 0.8 | 0.9 | 0.6 | 0.5 | +3.7 |
| 18 | 아일랜드 | 0 | 0 | 0 | 23 | 0.0 | 0.0 | 0.0 | 0.5 | * |
| 19 | 싱가포르 | 100 | 21 | 9 | 21 | 2.0 | 0.5 | 0.2 | 0.4 | +147.1 |
| 20 | 멕시코 | 10 | 8 | 36 | 21 | 0.2 | 0.2 | 0.8 | 0.4 | -40.5 |
| 21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 0 | 0 | 1 | 20 | 0.0 | 0.0 | 0.0 | 0.4 | * |
| 22 | 우크라이나 | 19 | 4 | 11 | 19 | 0.4 | 0.1 | 0.3 | 0.4 | +72.8 |
| 23 | 리투아니아 | 15 | 14 | 14 | 17 | 0.3 | 0.3 | 0.3 | 0.4 | +26.8 |
| 24 | 덴마크 | 14 | 14 | 10 | 13 | 0.3 | 0.3 | 0.2 | 0.2 | +18.8 |
| 25 | 쿠웨이트 | 0 | 0 | 1 | 11 | 0.0 | 0.0 | 0.0 | 0.2 | * |

주: 100만 달러; * 500배 이상 증감률

자료: “Total U.S. Exports (Origin of Movement) from Alaska, Top 25 Countries Based on 2017 Dollar Value,”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state/data/ak.html> (검색일: 2018.3.16.)

<표 12> 2013-16년 알래스카 주요 수입 품목

| 순 위 | 내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3 점유 % | 2014 점유 % | 2015 점유 % | 2016 점유 % | 2015- 2016 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알래스카 총수입 규모; 미국 전체 수입 점유율 | 1,481 | 2,016 | 2,494 | 1,611 | 0.1 | 0.1 | 0.1 | 0.1 | -16.0 |
| - | 25개 상품군 수입규모; 알래스카 주 전체 점유율 | 855 | 1,424 | 1,461 | 1,611 | 57.7 | 70.7 | 58.6 | 76.9 | 10.3 |
| 1 | 휘발류, 타르광석 | 526 | 692 | 703 | 463 | 35.5 | 34.3 | 28.2 | 22.1 | -34.2 |
| 2 | 선내전기설비/변환/교통/재생. 음성/이미지 기기 | 2 | 22 | 35 | 237 | 0.1 | 1.1 | 1.4 | 11.3 | * |
| 3 | 전화방송시설 및 기타 통신/레코드 기기 | 1 | 4 | 9 | 170 | 0.1 | 0.2 | 0.3 | 8.1 | * |
| 4 | 구리광석 | 66 | 88 | 74 | 145 | 4.5 | 4.4 | 3.0 | 6.9 | 95.8 |
| 5 | 자동 데이터 가공기기 포트 | 93 | 97 | 83 | 109 | 6.3 | 4.8 | 3.3 | 5.2 | 31.9 |
| 6 | 디지털 가공제품 | 1 | 21 | 72 | 74 | 0.0 | 1.0 | 2.9 | 3.5 | 2.5 |
| 7 | 원유, 역청류 | 0 | 310 | 33 | 69 | 0.0 | 15.4 | 1.3 | 3.3 | 107.5 |
| 8 | 파일롯트 라이트 기름(총중량 70% 석유, 바이오유류 제외) | 108 | 94 | 64 | 59 | 7.3 | 4.7 | 2.6 | 2.8 | -7.9 |
| 9 | 고체 반도체 저장 장치 | 0 | 9 | 275 | 38 | 0.0 | 0.4 | 11.0 | 1.8 | -86.1 |
| 10 | 일렉트릭 통합 가공통계기기 | 7 | 10 | 13 | 34 | 0.5 | 0.5 | 0.5 | 1.6 | 162.8 |
| 11 | 일렉트릭 통합회로 기기 | 1 | 4 | 5 | 31 | 0.1 | 0.2 | 0.2 | 1.5 | 56.4 |
| 12 | 절연 광섬유 케이블 | 0 | 0 | 0 | 27 | 0.0 | 0.0 | 0.0 | 1.3 | * |
| 13 | 사진용 반도체 기기 | 1 | 1 | 13 | 20 | 0.1 | 0.1 | 0.5 | 1.0 | 56.4 |
| 14 | 셀룰러 네트워크 전화 혹은 기타 무선전화 | 2 | 0 | 1 | 18 | 0.2 | 0.0 | 0.0 | 0.9 | * |
| 15 | 포트랜트 시멘트(백색 포트랜트 세멘트 제외) | 5 | 6 | 6 | 18 | 0.3 | 0.3 | 0.2 | 0.9 | 201.4 |
| 16 | 케이싱, 터빈 류/가스채굴/철광석 | 7 | 21 | 17 | 17 | 0.5 | 1.1 | 0.7 | 0.8 | -2.7 |
| 17 | 자동처리기기 부품/액세서리 | 0 | 3 | 19 | 12 | 0.0 | 0.2 | 0.8 | 0.6 | -34.3 |
| 18 | 터보프로펠러 | 9 | 12 | 3 | 11 | 0.6 | 0.6 | 0.1 | 0.5 | 245.5 |
| 19 | 특별 고안된 텔레커뮤니케이션 기타 장비 | 0 | 0 | 0 | 10 | 0.0 | 0.0 | 0.0 | 0.5 | * |
| 20 | 구리 황산염광물 | 14 | 19 | 15 | 10 | 1.0 | 0.9 | 0.6 | 0.5 | -35.9 |
| 21 | 보석 및 은 가공품 | 0 | 0 | 1 | 9 | 0.0 | 0.0 | 0.0 | 0.4 | * |
| 22 | 트랜지스터 | 1 | 1 | 2 | 8 | 0.1 | 0.0 | 0.1 | 0.4 | 345.2 |
| 23 | 메탄올(메탄 알코올) | 4 | 6 | 12 | 7 | 0.2 | 0.3 | 0.5 | 0.3 | -42.0 |
| 24 | 비디오 랩스, 정밀 자동추적장치 | 6 | 5 | 6 | 7 | 0.4 | 0.3 | 0.2 | 0.3 | 21.4 |
| 25 | LCF/LED 패널 | 0 | 0 | 0 | 7 | 0.0 | 0.0 | 0.0 | 0.3 | * |

주: 100만 달러; * 500배 이상 증감률

자료: State Imports from Alaska, US Census, 2016.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state/data/imports/ak.html> (검색일: 2018.1.12.)

<표 13> 2014-17년 알래스카 주요 수입 품목(단위: 100만 달러)

| 순 위 | 내역 | 2014 | 2015 | 2016 | 2017 | 2014 점유% | 2015 점유% | 2016 점유% | 2017 점유% | 2016- 2017 증감률% |
|--------|------------------------------|-------|-------|-------|-------|-------------|-------------|-------------|-------------|-----------------------|
| - | 알래스카 총수입 규모; 미국 전체 수입 점유율 | 2,016 | 2,494 | 2,094 | 1,730 | 0.1 | 0.1 | 0.1 | 0.1 | -17.4 |

| | | | | | | | | | | |
|----|--------------------------------------|-------|-------|-------|-------|------|------|------|------|--------|
| - | 25개 상품군 수입규모; 알래스카 주 전체 점유율 | 1,470 | 1,555 | 1,549 | 1,348 | 73.0 | 62.4 | 73.9 | 77.9 | -13.0 |
| 1 | 휘발유, 타르광석 | 692 | 703 | 463 | 617 | 34.3 | 28.2 | 22.1 | 35.7 | +33.4 |
| 2 | 고체 반도체 저장 장치 | 9 | 275 | 38 | 128 | 0.4 | 11.0 | 1.8 | 7.4 | +236.0 |
| 3 | 전화방송시설 및 기타 통신/레코드 기기 | 22 | 35 | 237 | 71 | 1.1 | 1.4 | 11.3 | 4.1 | -70.0 |
| 4 | 구리광석 | 88 | 74 | 145 | 69 | 4.4 | 3.0 | 6.9 | 4.0 | -52.1 |
| 5 | 디지털 가공제품 | 21 | 72 | 74 | 54 | 1.0 | 2.9 | 3.5 | 3.1 | -27.9 |
| 6 | 원유, 역청류 | 310 | 33 | 69 | 52 | 15.4 | 1.3 | 3.3 | 3.0 | -24.4 |
| 7 | 파일롯트 라이트 기름(총중량 70% 석유, 바이오유류 제외) | 94 | 64 | 59 | 52 | 4.7 | 2.6 | 2.8 | 3.0 | -11.9 |
| 8 | 항공부품(비전력 및 전력) | 0 | 0 | 6 | 45 | 0.0 | 0.0 | 0.3 | 2.6 | * |
| 9 | 자동 데이터 가공기기 포트 | 97 | 83 | 109 | 42 | 4.8 | 3.3 | 5.2 | 2.4 | -61.8 |
| 10 | 터보프로펠로(1,100Kw 이하) | 12 | 3 | 11 | 30 | 0.6 | 0.1 | 0.5 | 1.7 | +164.4 |
| 11 | 보링 부품 및 잠수기 | 16 | 81 | 5 | 24 | 0.8 | 3.3 | 0.2 | 1.4 | +407.3 |
| 12 | 사진용 반도체 기기 | 1 | 13 | 20 | 21 | 0.1 | 0.5 | 1.0 | 1.2 | +4.3 |
| 13 | 일렉트릭 통합회로 기기 | 10 | 13 | 34 | 21 | 0.5 | 0.5 | 1.6 | 1.2 | -39.8 |
| 14 | 자동처리기기 부품/액세서리 | 3 | 19 | 12 | 16 | 0.2 | 0.8 | 0.6 | 0.9 | +25.3 |
| 15 | 케이싱, 터빈 류/가스채굴/철광석 | 21 | 17 | 17 | 15 | 1.1 | 0.7 | 0.8 | 0.9 | -11.7 |
| 16 | 일렉트릭 통합 가공통계기기 | 4 | 5 | 31 | 13 | 0.2 | 0.2 | 1.5 | 0.7 | -58.9 |
| 17 | 구리 황산염광물 | 19 | 15 | 10 | 12 | 0.9 | 0.6 | 0.5 | 0.7 | +21.3 |
| 18 | 터보프로펠로(1,100Kw 이상) | 0 | 1 | 1 | 10 | 0.0 | 0.0 | 0.1 | 0.6 | * |
| 19 | LCD/LED 패널 | 0 | 0 | 7 | 10 | 0.0 | 0.0 | 0.3 | 0.6 | +46.6 |
| 20 | 창살/등근 쇠지렛대 | 0 | 0 | 0 | 10 | 0.0 | 0.0 | 0.0 | 0.6 | 0.0 |
| 21 | 짐을 싣지 않는 비행기 | 30 | 16 | 2 | 9 | 1.5 | 0.6 | 0.1 | 0.5 | +295.5 |
| 22 | 전화세트/기타 제품 | 4 | 9 | 170 | 8 | 0.2 | 0.3 | 8.1 | 0.5 | -95.0 |
| 23 | 메탄올(메탄 알코올) | 6 | 12 | 7 | 8 | 0.3 | 0.5 | 0.3 | 0.5 | +12.6 |
| 24 | 포트랜드 시멘트(백색 포트랜드 시멘트 제외) | 6 | 6 | 18 | 7 | 0.3 | 0.2 | 0.9 | 0.4 | -63.5 |
| 25 | 개인용 기타 장비 | 7 | 6 | 3 | 7 | 0.3 | 0.2 | 0.1 | 0.4 | +159.2 |

주: * 500배 이상 증감률.

자료: US Census, "Total U.S. Imports to Alaska Top 25 6-digit HS Commodities Based on 2017 Dollar Value,"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state/data/imports/ak.html> (검색일 2018.3.16.)

<표 14> 2013-2016년 알래스카의 주요 수입국가 (단위: 100만 달러)

| 순위 | 내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3 점유 % | 2014 점유 % | 2015 점유 % | 2016 점유 % | 2015- 2016 증감률 % |
|----|--------------------------------|-------|-------|-------|-------|--------------|--------------|--------------|--------------|------------------------|
| - | 알래스카 총수입 규모; 미국 전체 수입 점유율 | 1,481 | 2,016 | 2,494 | 1,611 | 0.1 | 0.1 | 0.1 | 0.1 | -16.0 |
| - | 25개 상품군 수입규모; 알래스카 주 전체 점유율 | 1,433 | 1,989 | 2,453 | 2,076 | 96.8 | 98.7 | 98.4 | 99.1 | -15.4 |
| 1 | 캐나다 | 548 | 646 | 612 | 482 | 37.0 | 32.0 | 24.5 | 23.0 | -21.3 |
| 2 | 중국 | 181 | 339 | 663 | 455 | 12.2 | 16.8 | 26.6 | 21.7 | -31.4 |

| | | | | | | | | | | |
|----|---------|-----|-----|-----|-----|------|------|------|------|-------|
| 3 | 한국 | 439 | 357 | 329 | 317 | 29.6 | 17.7 | 13.2 | 15.1 | -3.5 |
| 4 | 태국 | 1 | 15 | 17 | 313 | 0.1 | 0.8 | 0.7 | 14.9 | * |
| 5 | 일본 | 66 | 86 | 528 | 81 | 4.5 | 4.3 | 21.2 | 3.0 | -84.7 |
| 6 | 러시아 | 18 | 321 | 47 | 76 | 1.2 | 15.9 | 1.9 | 3.6 | 61.9 |
| 7 | 말레이시아 | 3 | 8 | 10 | 68 | 0.2 | 0.4 | 0.4 | 3.2 | * |
| 8 | 싱가포르 | 10 | 11 | 28 | 65 | 0.7 | 0.6 | 1.1 | 3.1 | 130.3 |
| 9 | 프랑스 | 42 | 49 | 14 | 63 | 2.9 | 2.4 | 0.6 | 3.0 | 338.3 |
| 10 | 대만 | 12 | 15 | 68 | 31 | 0.8 | 0.8 | 2.7 | 1.5 | -54.8 |
| 11 | 멕시코 | 14 | 21 | 33 | 28 | 0.9 | 1.0 | 1.3 | 1.3 | -14.8 |
| 12 | 영국 | 21 | 36 | 30 | 22 | 1.4 | 1.8 | 1.2 | 1.1 | -25.5 |
| 13 | 필리핀 | 7 | 9 | 13 | 16 | 0.5 | 0.5 | 0.5 | 0.7 | 20.0 |
| 14 | 독일 | 17 | 24 | 16 | 13 | 1.1 | 1.2 | 0.6 | 0.6 | -17.2 |
| 15 | 덴마크 | 5 | 8 | 6 | 8 | 0.3 | 0.4 | 0.2 | 0.4 | 39.5 |
| 16 | 이탈리아 | 6 | 14 | 11 | 6 | 0.4 | 0.7 | 0.4 | 0.3 | -42.6 |
| 17 | 네덜란드 | 5 | 2 | 6 | 5 | 0.3 | 0.1 | 0.3 | 0.3 | -12.9 |
| 18 | 인도 | 4 | 5 | 2 | 5 | 0.2 | 0.2 | 0.1 | 0.3 | 145.0 |
| 19 | 호주 | 4 | 4 | 5 | 4 | 0.3 | 0.2 | 0.2 | 0.2 | -13.1 |
| 20 | 오스트리아 | 0 | 1 | 2 | 4 | 0.0 | 0.0 | 0.1 | 0.2 | 82.0 |
| 21 | 스웨덴 | 5 | 4 | 3 | 3 | 0.3 | 0.2 | 0.1 | 0.2 | 6.2 |
| 22 | 베트남 | 0 | 1 | 2 | 3 | 0.0 | 0.0 | 0.1 | 0.1 | 73.8 |
| 23 | 사우디아라비아 | 0 | 0 | 0 | 3 | 0.0 | 0.0 | 0.0 | 0.1 | * |
| 24 | 아르헨티나 | 5 | 8 | 3 | 2 | 0.3 | 0.4 | 0.1 | 0.1 | -10.8 |
| 25 | 핀란드 | 21 | 3 | 5 | 2 | 1.4 | 0.2 | 0.2 | 0.1 | -55.7 |

주: 100만 달러; * 500배 이상 증감률

자료: State Imports from Alaska, US Census, 2016.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state/data/imports/ak.html> (검색일: 2018.1.12.)

<표 15> 2014-2017년 알래스카의 주요 수입국가(단위: 100만 달러)

| 순위 | 내역 | 2014 | 2015 | 2016 | 2017 | 2015 점유% | 2015 점유% | 2016 점유% | 2017 점유% | 2016- 2017 증감률 % |
|----|--------------------------------|-------|-------|-------|-------|-------------|-------------|-------------|-------------|------------------------|
| - | 알래스카 총수입 규모; 미국 전체 수입 점유율 | 2,016 | 2,494 | 2,094 | 1,730 | 0.1 | 0.1 | 0.1 | 0.1 | -17.4 |
| - | 25개 상품군 수입규모; 알래스카 주 전체 점유율 | 1,987 | 2,449 | 2,068 | 1,703 | 98.6 | 98.2 | 98.8 | 98.5 | -17.6 |
| 1 | 한국 | 357 | 329 | 317 | 463 | 17.7 | 13.2 | 15.1 | 26.8 | +46.1 |
| 2 | 캐나다 | 646 | 612 | 482 | 455 | 32.0 | 24.5 | 23.0 | 26.3 | -5.5 |
| 3 | 중국 | 339 | 663 | 455 | 374 | 16.8 | 26.6 | 21.7 | 21.6 | -17.8 |
| 4 | 러시아 | 321 | 47 | 76 | 83 | 15.9 | 1.9 | 3.6 | 4.8 | +9.4 |

| | | | | | | | | | | |
|----|----------|----|-----|-----|----|-----|------|------|-----|-------|
| 5 | 일본 | 86 | 528 | 81 | 66 | 4.3 | 21.2 | 3.9 | 3.8 | -18.8 |
| 6 | 태국 | 15 | 17 | 313 | 62 | 0.8 | 0.7 | 14.9 | 3.6 | -80.2 |
| 7 | 말레이시아 | 8 | 10 | 68 | 45 | 0.4 | 0.4 | 3.2 | 2.6 | -34.4 |
| 8 | 대만 | 15 | 68 | 31 | 29 | 0.8 | 2.7 | 1.5 | 1.7 | -7.7 |
| 9 | 멕시코 | 21 | 33 | 28 | 20 | 1.0 | 1.3 | 1.3 | 1.2 | -28.5 |
| 10 | 영국(GB) | 36 | 30 | 22 | 18 | 1.8 | 1.2 | 1.1 | 1.1 | -18.4 |
| 11 | 필리핀 | 9 | 13 | 16 | 17 | 0.5 | 0.5 | 0.7 | 1.0 | +6.0 |
| 12 | 독일 | 24 | 16 | 13 | 14 | 1.2 | 0.6 | 0.6 | 0.8 | +4.3 |
| 13 | 브라질 | 0 | 0 | 0 | 10 | 0.0 | 0.0 | 0.0 | 0.6 | * |
| 14 | 프랑스 | 49 | 14 | 63 | 9 | 2.4 | 0.6 | 3.0 | 0.5 | -85.6 |
| 15 | 네덜란드 | 2 | 6 | 5 | 5 | 0.1 | 0.3 | 0.3 | 0.3 | -7.1 |
| 16 | 스웨덴 | 4 | 3 | 3 | 5 | 0.2 | 0.1 | 0.2 | 0.3 | +36.4 |
| 17 | 덴마크 | 8 | 6 | 8 | 4 | 0.4 | 0.2 | 0.4 | 0.3 | -46.3 |
| 18 | 이탈리아 | 14 | 11 | 6 | 4 | 0.7 | 0.4 | 0.3 | 0.2 | -38.7 |
| 19 | 아르헨티나 | 8 | 3 | 2 | 4 | 0.4 | 0.1 | 0.1 | 0.2 | +69.2 |
| 20 | 핀란드 | 3 | 5 | 2 | 4 | 0.2 | 0.2 | 0.1 | 0.2 | +59.0 |
| 21 | 사우디아라비아 | 0 | 0 | 3 | 3 | 0.0 | 0.0 | 0.1 | 0.2 | +29.8 |
| 22 | 인도 | 5 | 2 | 5 | 3 | 0.2 | 0.1 | 0.3 | 0.2 | -44.2 |
| 23 | 베트남 | 1 | 2 | 3 | 3 | 0.0 | 0.1 | 0.1 | 0.2 | 0+0.9 |
| 24 | 트리니다드토바고 | 3 | 3 | 0 | 3 | 0.2 | 0.1 | 0.0 | 0.2 | * |
| 25 | 싱가포르 | 11 | 28 | 65 | 3 | 0.6 | 1.1 | 3.1 | 0.2 | -95.7 |

주: * 500배 이상 증감률

자료: US Census, "Total U.S. Imports to Alaska Top 25 Countries Based on 2017 Dollar Value,"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state/data/imports/ak.html> (검색일 2018.3.16.)

러시아연방공화국의 북극 관문 도시 및 지역소개 3 : 네네츠자치구와 야말로-네네츠자치구¹⁾

김정훈

1. 네네츠자치구(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아르한겔스크 주에 포함되어 있는 네네츠자치구는 러시아연방의 독립적인 행정주체이다. 자치구는 연방주체 중 면적에 있어서는 20위, 인구수에 있어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네츠자치구의 면적은 약 17,681,000km²로 러시아연방 총면적의 1.03%에 해당한다. 자치구는 백해(Белое море)와 바렌츠(Баренц)해 그리고 카라해(Карское море)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영토의 대부분이 북극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러시아연방공화국내의 네네츠자치구 위치



출처: <http://www.bankgorodov.ru/region/neneckii>

네네츠자치구의 주요 인구밀집 지역의 대부분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의 중심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도 주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며, 페초라 강을 따라 짧은 여름 기간 동안의 항해 또는 겨울도로를 통한 일시적인 육로 통행이 가능하다[2015

1) 다음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한 글 임. Российская Арктика в поисках интегр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 *Российская Арктика в поисках интегр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М., 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2016. с. 27-67.

년 12월 기준, 우신스크(Усинск)까지의 자동차도로는 미준공 상태]. 지역 내에 철도시설은 전무하며, 도로교통망 체계 역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설상차(снегоход, 스노우 모빌)는 최근 들어 지역 내 가장 널리 보급된 형태의 개인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네네츠자치구는 1929년 현대적인 국경선 개념 하에 행정-영토 단위(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единица)의 지위를 획득했다[당시 ‘북방영토(Северный край, Northern Territory)’의 일원으로 포함]2). 1932년 노동자 중심의 도시형 촌락인 나리얀-마르(Нарьян-Мар)가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네네츠자치구의 행정중심지의 역할을 했다3). 1935년 나리얀 마르는 도시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지금까지 관구 내에서 유일하게 도시 지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관구 내의 총 인구는 43,373명으로 그 중 거의 절반이 나리얀-마르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1km² 당 0.25명으로 매우 희박한 상태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주민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점차 그 추세가 수그러들면서 2011년부터는 다소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네네츠자치구 주요 지역



출처: <http://geosfera.org/evropa/russia/2560-neneckiy-avtonomnyy-okrug.html>

관구 내 대표적 민족은 전체 인구의 약 18%를 점유하고 있는 네네츠인으로 러시아에 분포

2) ‘북방영토’는 1929년 1월 14일부터 1936년 12월 5일 까지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RSFSR) 북서쪽에 있는 관리 및 영토 단위. 1929년 1월 14일의 “RSFSR 영역에 대한 영토 및 지역의 중요성에 관한 행정 영토 연합의 형성에 관한 선언”에 따라 1929년 10월 1일에 RSFSR의 영역에서 ‘북방영토’를 구성하기로 결정됐다. ‘북방영토’는 아르한겔스크 시를 중심으로 아르한겔스크, 볼로그드와 북-드빈스크 주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네네츠어를 기원으로 하는 ‘나리얀-마르(Нарьян-Мар)’는 ‘아름다운 도시(красный горо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고 있는 사모예드(самоед) 민족 중 가장 큰 민족 집단이다. 사모예드 민족 집단은 핀-우고르어군⁴⁾과 함께 우랄어족을 형성하고 있다. 우그로-핀족 내에서 사모예드 민족의 차별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네네츠 대표자들은 적절한 조직들에 참여하거나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네네츠인의 총수는 약 4만 5천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네네츠인들은 러시아연방공화국 내의 3개 행정주체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네네츠자치구, 야말로-네네츠자치구(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와 최근 자치구(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가 된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의 돌간-네네츠 타이미르 자치구역(Долгано-Ненецкий Таймыр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그 중 네네츠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야말로-네네츠자치구이며, 네네츠자치구는 2위에 해당한다. 2010년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 거주하는 네네츠인은 약 7천 5백명 정도이며, 현재 인구구성 비율 뿐 아니라 총 수에 있어서도 감세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연방 내 여러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네네츠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네네츠어와 문화의 발전과 보급부분에 있어 중요한 업적을 수행하고 있는 네네츠자치구와 야말로-네네츠자치구 출신의 저명하고 대중으로부터 존경받는 문학작가와 계몽자로는 이반 이스토민(Иван Истомин), 안톤 피레르카(Антон Пырерка), 프로고피이 야브트스이(Прокопий Явтысый), 레오니드 라프쭈이(Лонид Лашуй) 등이 있다.

역사의 흐름 속에 네네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러시아 식민화 작업에 무장화된 저항운동을 전개했다(현재 유명도시가 된 푸스토제르스크(Пустозерск)⁵⁾는 16세기부터 오늘날의 네네츠자치구 내에서 중심지역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네네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푸스토제르스크시를 되찾고자 습격을 실행하기도 했다). 19세기 중엽에는 네네츠의 툰드라지역 내에서 15년에 걸친 ‘바울리 봉기(Восстание Ваули)⁶⁾’라 불리는 네네츠인과 러시아의 식민정복자들과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20세기 네네츠의 저항의 역사흐름 속에는 네네츠인의 전통적인 사회

4) 핀-우고르어군은 노르웨이에서 동쪽으로는 시베리아의 오브 강 지역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도나우 강 하류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핀우고르어 사용자들은 이 넓은 지역에서 게르만어와 슬라브어, 루마니아어 및 튀르크어 사용자들에게 둘러싸인 고립 집단을 이루고 있다.

5) 푸스토제르스크는 페초라 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의 나리얀-마르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져 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도시이다. 푸스토제르스크 고도시는 북극권 지역의 러시아 최초의 도시이자, 북극권과 시베리아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전초기지 중 하나였다. 18세기부터 점차적으로 도시로서의 중요성이 약화되었으며, 1924년에는 도시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마침내 1962년에는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년 법령에 의해 국가의 보호하에 있는 ‘역사와 문화의 기념물 목록(список памятников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хране)’에 포함되었다. 러시아연방문화유산 대상(등록번호 831000300). <http://pustozersk-nao.ru/index.php/ru/novosti/19-den-pustozerska>

6) ‘바울리 반란’이라고도 불리는, 1825년-1841년 사이에 야말 툰드라의 네네츠인들과 러시아 식민 정복자들간의 전투. 당시 ‘바울리 네냐기(Ваули Няняги) 또는 바블료 네냐기(Вавлё Няняги, 네네츠어)’라 불리는 자가 네네츠인의 지도자였다. ‘바울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하다: ‘선한사람들을 강탈하는 강도(일명, 네네츠의 로빈 훗)’, 또는 ‘많은 사람들을 경외심에 빠지게 하는 위대한 샤먼’ 등.

경제구조의 해체와 이들의 소비에트사회로의 동화 그리고 집단화 및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한 경제적 착취 등을 추구하는 소비에트 정부에 대한 반발을 시도했던 ‘만달라다(Мандалада)⁷⁾’ 봉기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43년 봉기는 바로 네네츠자치구 영토내에서 전개되었다. 봉기가 진압된 후 38명의 참가자는 아르한겔스크에서 진행된 재판과정에 피고인석에 앉게 되었다.

<그림 3> 만달라다 봉기



출처: <http://russian7.ru/post/mandalada-kak-nency-voevali-protiv/>

1950년대부터 네네츠자치구 내 러시아인 비율은 총인구의 약 2/3에 달했고, 그 비중은 그리 큰 변동이 없었다. 이웃하고 있는 연방주체의 대표적 민족인 코미인은 네네츠자치구의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

네네츠자치구는 러시아 내 3위의 탄화수소자원(석유 및 가스) 매장지이다. 1966년 12월 최초의 석유채굴 작업이 시행되었으며, 산업생산을 위한 대규모 채굴은 1988년에 이르러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1975년 산업생산을 위한 가스 채굴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단지 나리얀-마르 지역으로의 공급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지역 내의 대규모 석유 및 가스매장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개발은 주로 포스트 소비에트(체제전환 이후) 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국제 시장에서의 석유와 가스 가격은 네네츠자치구의 경제개발과 소득 수준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지역 내 탐사된 탄화수소자원 개발 잠재력은 10% 정도에도 도달하지 못하며, 특히 가스의 경우는 2%이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7) 만달라다 봉기는 1934년부터 1943년 사이에 야말과 볼세제멜스카야 툰드라 지역의 원주민에 의해 발생했던 무장저항운동으로, 소련 정부의 전통적 사회경제 구조의 제거와 신흥 소비에트 사회의 공간 내에서의 문화적응 그리고 집단화 및 2차 세계대전을 위한 경제적 착취에 대항하는 운동이었다.

다8). 관구 내에는 이밖에도 수많은 기타 유용광물 매장지가 존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 지역은 경제 개발의 관점에서 러시아연방 내의 가장 전망 있는 지역 중 한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림 4> 네네츠자치구 내 석유 매장지



출처: <https://ria.ru/infografika/20110415/364902512.html>

석유와 가스 붐은 현재 상황에서 지역 내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신도시 출현 등과 같은 현상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네네츠자치구 영토내의 채굴과 건설사업은 주로 교대작업방식(вахтовый мето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최고 인구수(54,840명)는 1989년에 54,84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며 2001년에 40,931명의 최저 인구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접어들면서 수차례에 걸쳐 네네츠자치구와 아르한겔스크주의 합병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2004년 러시아 내의 여러 연방주체와 자치구들 간의 통합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북서관구의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전권대표인 일리야 클레바노프(Илья Клебанов)는 네네츠자치구와 아르한겔스크주의 통합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⁹⁾. 이에 더하여 아르한겔스크주 주지사인 이반 미하일추크(И

8) Пономарев В. Нефть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 Эксперт. Online. 20.09.2011./ <http://expert.ru/expert/2011/38/neft-vyisokih-tehnologij/>

ван Михайлчук) 역시 통합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확대된 프로젝트는 현재 국정의 의사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현재 현실화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네네츠자치구의 정치 엘리트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어 러시아연방주체의 통합과정에서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

희박한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정치적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번의 네네츠자치구의 수장 교체가 이루어졌다. 2000년 중반부터는 네네츠자치구의 행정관계는 2개의 도시 행정자치체(городской округ)로 분리되어 유지되고 있다: ‘나리얀-마르(Нарьян-Мар)’와 ‘자뻬랴르 구(Заполярный район)’

2. 야말로-네네츠자치구(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야말로-네네츠자치구는 프랑스 또는 스페인과 같은 유럽지역에서 비교적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약 1.5배에 해당하는 약 770,000km²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영토의 북쪽에서 남쪽,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연장길이는 각각 약 1,200km와 1,130km에 달한다. 이 관구의 영토 절반이상이 북극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의 수도인 살레하르트(Салехард)는 위도상 북극권(66° 33′ 44) 연장선 상(66° 35′)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 명칭의 근간인 야말반도의 면적은 약 112,000km²에 이른다. 그러나 야말로-네네츠자치구 내에 위치하면서 면적상 야말 반도를 상회하는 기단반도(Гыданский полуостров)의 인지도가 낮은 점은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는 야말반도에 비해 개발진도와 상황이 낮은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러시아연방공화국내의 야말로-네네츠자치구 위치



출처: <http://www.bankgorodov.ru/region/yamalo-neneckii>

9) 참조. Клебанов И. Объединение Архангель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О принесет пользу стране // <http://viperson.ru/articles/ilya-klebanov-ob-edinenie-arhangelskoy-oblasti-i-nao-prineset-polzu-strane>

지역 통합보다는 오히려 동과 서로 구분시키는 카라 해의 오비 만(Обская губа)은 자신의 위도상의 위치로 인해 수로의 주된 근간이 되고 있다. 관구에 접해 있는 해안선의 길이는 총 5,100km이며, 그 중 약 900km는 러시아연방공화국 국경선에 해당한다. 서로 상이한 기후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굴곡이 심한 해안선은 항해술 발전을 촉진시켜 주는 요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극 내에서의 이러한 여건은 상대적으로 통신 및 교통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야말로-네네츠자치구 내에는 대규모 항구가 없다. 1940년대 말 카멘 곶(Мыс Каменный)에 대형 항구 건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대대적인 준비 작업이 시행되었지만, 항구건설의 비현실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관구 내 대양 진출의 주된 항구의 임무는 아직까지는 그리 크지 않은 교대 캠프(또는 회전 캠프, вахтовый поселок: Shift camp) 역할을 하고 있는 사베타(Сабетта)가 책임질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2013년 10월 항구 선착장에 최초의 선박단이 계류하기도 했음).

<그림 6> 야말로-네네츠자치구의 주요 도시 및 교통



출처: http://nemiga.info/rossiya/severny_shirotny_hod.htm

이전부터 지역 내 주된 교통로의 역할은 주로 하천들이 담당해왔다. 그 중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하천은 오비 강이며 그 뒤를 이어 나딤(Надым), 따즈(Таз)와 뿌르(Пур) 강

등이 있다.

철도 교통은 처음부터 지역 내 서부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10년대 ‘위대한 북부 철도 트랙 프로젝트(Проект Великого Северн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ути)’가 제안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철로는 오비 강에서 시작하여 북극권을 따라 추코트카까지 혹은 타타르 해협을 에워싸는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제1차세계 대전 직후 기존의 예니세이 강 하류와 노틸스크 공장지대로부터 페초라 호 지역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춤(Чум)-살레하르트-이가르카(Игарка) 노선의 극지방횡단 철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이 작업은 당시 야말로-네네츠자치구의 황량한 전 영토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후 수년 동안의 세월이 걸쳐 철로 건설 대부분의 지역에 수용소(ГУЛАГ)의 많은 수감자들과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사망 직후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이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살레하르트로부터 약 16km 떨어져 오비 강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라브이뜨난기(Лавытнанги)는 이 노선의 종착역이 되었으며, 이 극지방 횡단 노선은 불충분한 조사와 그로 인해 미완성된 ‘제국의 거대 프로젝트’의 선명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항에서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다. 열정적인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거의 무인지역인 이 공간은 버려진 도로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존되어 소련시대의 거대한 기념물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¹⁰⁾.

1980년대 초반 새롭게 형성된 노브이 우렌고이(Новый Уренгой) 시의 남쪽으로부터 이웃 행정구역인 한티-만시(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округ)의 수르구트(Сургут) 그리고 더 나아가 튜멘(Тюмень)을 연결하는 철로가 건설되었다. 이후 불과 수년 만에 이 도로는 북쪽으로는 오비 강 기슭의 얄부르크(Ямбург)와 서쪽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 중 하나인 나딤까지 연장됐다(이 지역은 기존의 극지방횡단 노선과 일치함).

육상 교통로 역시 남쪽지역으로부터 포장이 시작되어 주로 새롭게 생성된 석유와 가스 채굴 중심지로 이어져 나갔다. 그러나 아직까지 야말-네네츠의 행정 중심지역은 주요 철도와 육상 교통로 등과 같은 그 어느 교통망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살레하르트와 나딤 간 육상교통로의 건설이 완성된 후에도 해결되어 질 것 같다.

관구 내 항공운송 역시 정기항로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수 일간의 항공지연 현상은 야말로-네네츠자치구에서는 매우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역 내의 교통 및 수송 시스템 발전과정 하에서 승객운송 부분보다 화물 유통 및 수송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야말지역에서 파이프라인의 유통수단 발전이 최고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곳으로부터 러시아와 유럽 중심부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동

10) Вологодский А. Мертвая дорога // <http://crab.chem.nyu.edu/~deadroad/Road.htm>

맥이 시작되기도 하며, 주요 간선 파이프라인이 서로 얽혀 있는 공간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야말로-네네츠자치구의 이러한 수송발전과 관련된 특징들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희박한 ‘고립된 섬’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관구의 민족적 근간을 이루며 대표성을 보유하고 있는 네네츠인이 이 지역에 출현한 것은 1000년대 초이다. 현재 네네츠인의 절반 이상이 야말로-네네츠자치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러시아의 식민화는 16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55년 오비 강 근처에 현재의 살레하르드의 기원이 되는 ‘오비도르 요새(Обидопская крепость)’가 건설되었다. 1600년에는 타즈 강가에 시베리아 지역의 주요 무역 중심지 중 하나로 급격한 성장을 보인 만가제야(Мангазея) 도시가 부설되어 러시아 팽창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으나, 수십 년 후 버려진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독립행정구역으로서 ‘민족적’인 야말로-네네츠(Ямало-Ненецкий округ)의 행정주체는 1930년 12월 30일 우랄 주(Уральская область)의 하나의 성원이 되며 이루어졌다(1844년 이래 튜멘 주에 편입되어 왔음). 20세기 중반까지 이 지역의 전체인구는 5만 명을 넘지 못했으며, 그 중 절반 정도가 ‘원주민’들이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야말로-네네츠 지역의 대규모 가스 및 유전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 50년 사이 이 지역의 인구는 8배 이상 증가하여 50만을 상회하게 되었다. 개발 기간 동안 야말 지역의 산업체와 건설 현장은 주로 교대 및 교체 시스템(вахтовый метод и смена)으로 조직되었으며, 종종 야말로-네네츠자치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인력이 구성되어 이곳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야말로-네네츠자치구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양은 러시아 전역의 가스생산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세계 생산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에 힘입어 이 지역은 러시아연방공화국 내에서 1인당 산업생산량 분야에서 3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말로-네네츠자치구는 산업분야에서 국민총생산량 관련 5대 선도지역 중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의 기타 유용광물(인, 철광석, 인산염 및 금 등)의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야말’ 지역은 최근 들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연방공화국 내의 소수 지역 중 하나로 새로운 도시들이 끊임없이 급부상하여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은 여전히 매우 낮은 인구밀도(0.7명/km²)를 유지하며, 러시아 총인구수의 약 0.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유입 인구의 흐름을 제안하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이 지역으로 이주한 구성원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야말 반도 내 석유와 가스 매장지



출처: Neftegaz.ru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 호황과 고유의 자연 및 기후조건(겨울, 평균적으로 182-224일 정도 유지)으로 인해 야말로-네네츠자치구는 러시아연방공화국내 가장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변모했다. 행정지역 내 도시인구는 약 83.7%에 해당하며, 현재 지역 내에는 8개의 도시(город)와 여러 곳의 충분한 규모의 도시형 정착촌(поселок)들이 있다. 이들 중에서 단지 살레하르트와 라비뜨난기 만이 20세기 초에 형성된 것이다. 여러 도시 중 큰 도시라 할 수 있는 노브이 우렌고이(Новый Уренгой)에는 약 115,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

으며, 이는 야말로-네네츠자치구에서 인구수에 있어 5번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인구수에 있어 견줄 수 있는 도시로 노야브리스크(Ноябрьск)가 있으며, 약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야말로-네네츠자치구는 행정 중심지역이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러시아연방공화국 내의 몇몇 행정주체 중 하나이다. 살레하르드의 인구수는 2014년 기준, 약 47,900명으로 행정 지역 내 다른 도시인 나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989년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노브이 우렌고이와 노야브리스크 시 역시 상대적으로 추세가 낮기는 하지만 증가하는 상태이며, 나딤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치 및 행정 엘리트들의 지위 강화 결과로 지역 내 삶 속에서 행정주체의 수도로써의 역할은 명백한 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야말로-네네츠자치구 내 주요 도시



출처: <http://www.gammaural.ru/o-predpriyatii/geografiya-provedeniya-rabot/yanao/>

야말로-네네츠자치구와 가장 유사한 지역은 바로 인접한 한티-만시자치구(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로 상대적으로 3배의 인구수와 2배의 도시 수, 도시 인구는 행정관구

전체의 약 92.1%를 보유하고 있다. 한티-만시자치구의 수도인 한티-만시이스크(Ханты-Мансийск)의 인구수는 살레하르드에 비해 거의 2배 정도이다(약 90,000명). 그러나 지표 상의 이 수치는 지역 내에서 네 번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인구수에 있어 지배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살레하르드와 마찬가지로, 한티-만시이스크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970년대 말과 비교하여 한티-만시자치구와 야말로-네네츠자치구 내의 ‘러시아인’의 비율은 구소련의 다른 민족의 증가 추세로 인해 다소 축소되었다. 이들 두 지역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한티-만시자치구가 석유 생산을 압도한다면, 야말로-네네츠자치구는 가스 채굴 분야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산 분야의 특성과 그로 인한 관련 산업 및 기업활동은 두 행정지구 발전의 특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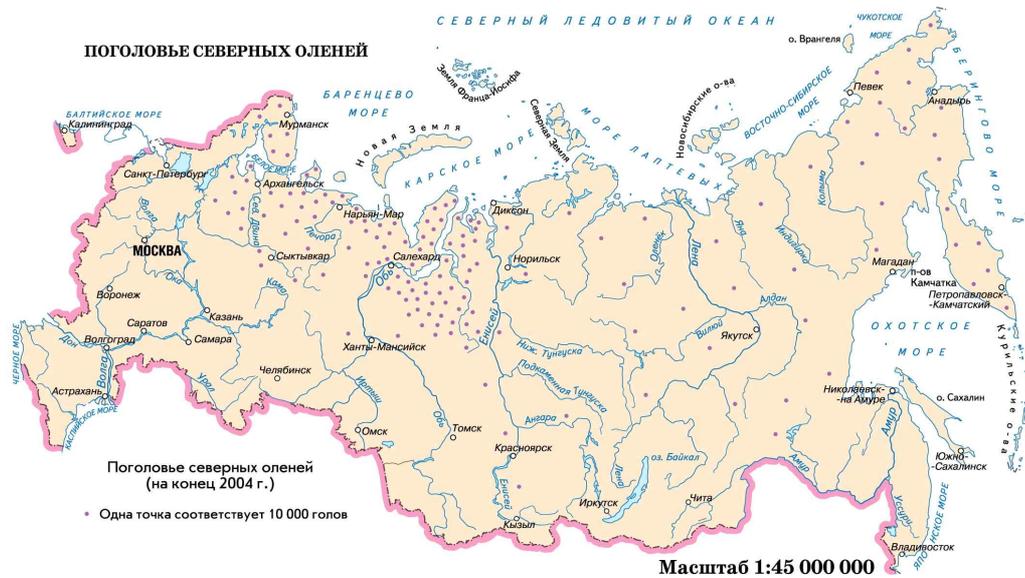
한티-만시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야말로-네네츠자치구 역시 대표적 민족 구성은 다소 이국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거주자들 중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행정주체는 명백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티-만시자치구의 ‘원주민’의 비율은 전체의 약 2%에 해당한다. 그러나 야말로-네네츠자치구의 경우 네네츠인은 약 6%정도, 그리고 기타 북부 민족 집단이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가스 산업의 비대해진 개발에도 불구하고 북부 민족집단의 전통적 경제활동은 ‘야말’ 지역의 경제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0년 초 북부지역의 순록 가축 수는 678,000마리에 달했으며, 이는 이 지역 내 전체 인구수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순록 무리라 할 수 있다. 야말 지역에서의 연어 생산량은 러시아 전체(세계 생산량의 약 3분의 1)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그림 9> 야말로-네네츠자치구 내의 순록 방목



출처: <https://www.rgo.ru/ru/photo/oleni-yamala>

<그림 10> 러시아연방 내 순록 방목지와 개체 수



출처: <https://geographyofrussia.com/zhivotnovodstvo-rossii/>

한티-만시자치구와 비교하여 야말로-자치구의 경우 주요 민족(원주민) 대표부는 정치활동에 있어 다소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 하류치(С.Н. Харючи)는 행정구의 의회를 강력한 지도력 하에 이끌기도 했다¹¹⁾.

상기한 몇몇 차이에도 불구하고, 튜멘주에 포함되어 있는 이 두 ‘북부’자치구들은 ‘재정착’ 유형의 영토로 신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시베리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이들은 ‘새로운’ 정착지역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은 여러 세대에 고착되거나 현재에 합치하는 상징이나 신화와 같은 고유의 전통들은 많이 결여된 상황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이 지역과 관련된 러시아 회화 속에서 ‘북부(Север)’라는 개념은 종종 다른 의미로 수용되기도 한다. 또한 이 두 자치구는 연방뿐 아니라 이들의 지역적으로 중심지가 되고 있는 튜멘주 차원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 최근 들어 이따금 ‘연방차원에서의 통합’에 관련된 의제가 제기되곤 한다.

적어도 이와 관련하여 야말로-네네츠자치구와 한티-만시자치구의 절대적으로 통일된 정체성에 관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증거로, 이웃하고 있는 한티-만시자치구 주지사인 나탈리야 코마로바(Наталья Комарова)는 야말로-자치구내의 일부지역에서 마치 ‘자신’들과 같은 인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11)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한티-만시 자치구 의회에서 대표적 원주민의 적극적인 의회활동이 전개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경우 하류치의 영향력은 의회를 넘어 지역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살레하르트 내에서 그는 특정 네네츠 귀족 출신 중 떠오르는 인물로 회자되고 있다. 그 밖에 하류치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러시아연방공화국의 북부 및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소수민족 협의회(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를 영도했다.

‘북극정책’ 백서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난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배규성

1.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와 ‘북극 실크로드’

중국이 2018년 1월 26일 마침내 ‘북극정책(Arctic Policy)’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해, 북극에서 '북극/극지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신화망 2018-01-27)¹⁾



1월 26일, 쿵쉬안여우(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후카이홍(胡凱紅) 국무원 신문판공실 대변인이 발표회에 참석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했다.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white paper)는 북극과 관련된 최초의 백서이다. 중국은 이것을 계기로 북극을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범위에 포함해 북극의 자원개발·항로개발에 대한 중국의 의욕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극에도 진출하겠다는 의욕을 보여 중국의 '극지 실크로드' 구상을 예고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지난해 7월 러시아 모스크

1) http://kr.xinhuanet.com/2018-01/27/c_136928858.htm (검색일 2018.3.21.)

바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북극까지 확장한 '빙상 실크로드'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백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극 문제와 관련해 "넘보지도, 빠지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극 국가간 및 북극지역 내부에 속한 사안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지만 지역을 넘은 전지구적 문제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백서를 통해 북극 지역에서 보다 많은 과학연구와 환경보호를 주창하며 북극의 석유, 가스, 광물자원 개발과 어업, 관광 투자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북극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천연가스의 30%가 존재하고 석유의 13%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극지 실크로드’로 다시 변신한 북방항로(The Northern Sea Route). 북방항로는 중국-인도양-아프리카-지중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와 중국-오세아니아-남태평양을 잇는 남방항로와 함께 중국이 구상한 해상 경제루트 중 하나이다.

중국의 관심은 특히 북극해를 관통하는 해운항로를 개척하는데 집중돼 있다. 백서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항로는 국제무역의 중요 수송 루트로서 유망하다"면서 관련 인프라 건설과

향해 시험 정기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북극개발 참여가 자원약탈, 또는 환경파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쿵 부부장은 "이런 걱정은 전혀 불필요하다"며 '빙상 실크로드'가 러시아 등 다른 관련 당사국과 공동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찬룡(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극지대, 심해, 우주, 사이버공간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경제규모의 확대, 국제영향력 증대에 맞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전통 영역은 이미 서방 구세력에 의해 장악된 만큼 중국은 새로운 영역의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북극개발에 참여할 기술적 역량과 국가적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국을 '근북극권'으로 자처했지만 중국은 북극에서 3천km나 떨어져 있다. 북극 국가는 통상 영토가 북극해에 걸쳐 있는 러시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가리킨다.

중국은 북극 외에 남극에 대해서도 야심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5월 베이징에서 4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남극조약 회의를 주최했으며 내년에는 남극에 다섯번째 연구기지를 설립할 계획이다.

2. '북극정책' 백서의 내용

백서는 전문 약 9천자 서문과 맺음말을 제외하고, 북극의 형세, 변화, 중국과 북극의 관계, 중국의 북극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 중국이 북극 문제(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요 정책 주장 등 4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북극의 형세와 변화:

경제글로벌화, 지역 단일화가 심도있게 발전하는 배경 하에 전략, 경제, 과학연구, 환경보호, 항로, 자원 등의 분야에서 북극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면서 국제사회가 북극을 주목하고 있다. 북극 문제(거버넌스)는 이미 북극(연안) 국가들간 문제와 지역(북극권) 문제의 범주를 넘어서서 북극 역외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에 관계되고, 인류의 생존과 발전의 공동 운명체와도 관련이 있으며, 글로벌적 의미와 국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백서에서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주창했고, 북극 사무(거버넌스)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건설자, 기여자로 북극의 발전을 위해 중국의 지혜와 역량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② 중국과 북극의 관계:

중국은 자국을 '근(近) 북극 국가'로 칭하며, 북극 사무(거버넌스)의 중요 당사자라 지적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극에 가까운 국가'로 육상에서 북극권에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이다. 북극의 자연적인 상황 및 그 변화는 중국의 기후시스템과 생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중국의 농업, 임업, 어업, 해양 등의 분야의 경제이익에 관계된다.

③ 중국의 북극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

백서에 의하면,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존중•협력•상생•지속가능'의 기본 원칙에 따라 관련 당사국과 함께 북극 발전의 역사적인 기회를 잡아 북극 변화가 가져온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북극의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④ 중국이 북극 문제(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요 정책 주장:

기후변화, 북극 해상항로 개발로 국제무역 개선, 현재 북극 연안국의 관할권 존중, 북극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북극항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험항해를 통해 정규 운항항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중국은 북동항로, 북서항로, 중앙항로 등 북극항로의 항해 안전성과 물류 수송능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북극 해상 실크로드는 선사, 항만 및 복합운송 등에 대한 중국 투자의 근거가 된다. '신 실크로드'를 따라 동남아, 파키스탄, 중앙아, 중동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무역통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을 준수해 북극 해상실크로드를 개발하고, 국제해사기구(IMO)가 북극관련 항해규정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북극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조약은 없으나 중국은 백서에서 북극 해상항로의 개발과 관련한 분쟁은 국제법 하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북극의 미래는 북극권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존중•협력•상생•지속가능'의 원칙 하에 모든 북극 이해당사국들과 협력해 북극개발의 역사적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대일로 정책 하에 북극관련 협력을 발전시켜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북극의 평화와 안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3. 중국 쇄빙선과 컨테이너 선의 북방항로 도전들

2013년 9월 11일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19,000 톤 규모의 컨테이션 선박 "용생 호 (Yong Sheng)"는 북극 항로의 지름길을 따라 아시아와 유럽을 통행한 최초의 컨테이너 운송 선박으로 역사 책에 자리를 잡았다. 중국 국영 국제해운회사인 Cosco 그룹이 운영하는 이 선박은 2013년 8월 8일 중국 항구를 출발했다.

Cosco에 따르면, 아시아 상품은 북방항로 통행을 통해 몇 년 동안 상당한 양으로 수송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China Ocean Shipping(Group) Company 인 Cosco는 전 세계에서 6 번째로 큰 컨테이너 선박 운영 업체이다.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중국에서 가장 큰 건화물 선사 및 라이너 운송 업체이기도 하다.

진행중인 NSR 선적 작업 외에도 Cosco는 러시아 북방항로청에서 이 항로를 따라 2개의 항해를 허가 받았다. 회사는 쇄빙선 지원을 고용 할뿐만 아니라 적절한 얼음상태에서 항로를 따라 독립적인 항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일간지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Nezavisimaya Gazeta)는 말했다.

그러나 1년 전인 2012년 중국의 쇄빙 연구선 "Xue Long"(스노우 드래곤)이 북방항로를 따라 바렌츠 해로 항해한 최초의 중국 선박이었다. 이 여행은 중국 해운회사에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중국 북극연구소의 Huigen Yang 사무총장이 2013년 3월에 오슬로에서 열린 북극 회의에서 말했다.²⁾

2) <http://barentsobserver.com/en/arctic/2013/08/first-container-ship-northern-sea-route-21-08> (검색일 2018.3.23.)



중국의 쇄빙선 Xue Long(雪龍). Photo: Wikimedia Commons. 후에룡(Xue Long) 호는 북극해를 가로 지른 최초의 중국 쇄빙 연구선이다.



아이스 클래스 급으로 중국 해운사(China Ocean Shipping) COSCO Shipping의 자회사인 COSCOL이 소유한 용생(Yong Sheng) 호는 중국 톈진(Tianjin) 항을 출발하여 베링 해협을 거쳐 러시아 북부 (북극) 해안(축치해-동시베리아해-랍체프해-빌키츠키해협-카라해-바렌츠해)을 통해 2013년 9월 10일에 로테르담에 도착했다. 용생 호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러시아 북방향로를 통과한 최초의 상업용 중국 선박이다.

4. 노르웨이 스팔바르의 중국의 북극 연구기지 ‘Arctic Yellow River Station’

중국의 북극기지, The Arctic Yellow River Station(中国北极黄河站)는 2003년 중국 극지연구소(the Polar Research Institute of China)에 의해 노르웨이 스팔바르 섬의 뉘알레순에 설립되었다.



중국이 북극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노르웨이의 스팔바르 정책 때문이다. 스팔바르는 슈피츠베르겐 조약에 의해 통제된다.³⁾ 그리고 슈피츠베르겐 조약 서명국⁴⁾이 된다는 것은 북극

3) 조약(1920년 슈피츠베르겐 군도에 관한 조약 *Treaty Concerning the Archipelago of Spitsbergen*)의 주요 조항은 제1조 : 노르웨이는 “그리니치 동경 10도와 35도 사이의 모든 섬들과 북위 74도와 81도 사이의 모든 섬들에 대해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다. 제2-3조 : 모든 서명국의 국민들은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절대 평등의 기

정책결정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다른 옵션이 없을 경우, 스발바르를 지역 정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노르웨이의 노력은 중국을 포함한 조약 서명국들에게 북극의 미래에 얼마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르웨이는 스발바르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강화를 위해 과학연구 지원정책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스발바르에서 연구는 단순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연구원을 지원하는 국가 정부가 개입하는 정치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설립 초기에도 노르웨이 극지연구소(Norwegian Polar Institute)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노르웨이의 뉘알레순(Ny-Alesund) 광업 활동 중단에 뒤이어 노르웨이는 부분적으로 이 정착촌이 러시아인들에 의해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부분적으로 스발바르에서 석유 탐사 활동을 시작한 타국과 대비하여 노르웨이의 지위 유지를 위해 이 정착촌을 연구센터로 전환하였다.⁵⁾ 노르웨이가 1980년대에 스발바르의 미래의 주요 경제 활동으로 연구와 교육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을 때⁶⁾, 이것은 노르웨이 정부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노르웨이 정착촌의 지속성 보장”을 목표로 했다.⁷⁾ 노르웨이는 당연히 연구와 교육을 경제활동으로 재정의하는 대신 UNIS 대학센터를 개설했다: 이 재정의의 장점은 노르웨이의 주권 유지에 다른 슈퍼츠베르겐 조약 서명국을 관여시키는 능력에 있다.

이 노르웨이 전략은 연구와 교육이 이제 스발바르(롱위에아르비엔) 경제에서 중요한 축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성공적이었다.⁸⁾ 또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뉘알레순에 과학연구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따라서 두 번째 노르웨이 정착촌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에 오픈한 스발바르 세계종자 금고(Svalbard Global Seed Vault)는 식량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가치있는 노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수많은 다른 국가들이(종자 제공국가들로서) 노르웨이의 주권을 승인하게 개입시키는 이니셔티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의 연구 전략은 많은 모호한 결과를 수반했다. 바렌즈부르그에서의 러시아 연구의 활성화⁹⁾와 호른준데(Hornsundet)의 폴란드 극지기지(Polar Station)를 장려

반 위에”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 제한된 기간 동안, 조약의 서명 이전에 점유된 토지에 대한 주장이 심의되었다. 타당한 경우,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자에게 부여되었다. 제7조 모든 서명국의 국민들은 “완전한 평등”의 관점에서 재산(광물권 포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향유하며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 “부과된 세금, 부과금 및 공공요금은 배타적으로” 스발바르 행정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제9조 : 스발바르는 “결코 전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Adam Grydehj, Anne Grydehj, Maria Ackren, “The Globalization of the Arctic: Negotiating Sovereignty and Building Communities in Svalbard, Norway” *Island Studies Journal*, Vol. 7, No. 1, 2012, pp. 99-118.

4) 조약 서명국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태리, 일본,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네주엘라.

5) C. Lüdecke, (2011) ‘Parallel Precedents for the Antarctic Treaty’, in P.A. Berkman, M.A. Lang, D.W.H. Walton, & O.R. Young (eds.) *Science Diplomacy: Antarctica, Science, and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Spaces*,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Scholarly Press, pp. 256-259; T.B. Arlov, (2011) *Den rette mann: Historien om Sysselmennen pa Svalbard*, Trondheim, Tapir Akademisk Forlag, p. 247.

6) T.B. Arlov, (2011) *Den rette mann: Historien om Sysselmennen pa Svalbard*, Trondheim, Tapir Akademisk Forlag, p. 330.

7)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3.3

8) Government of Norway (1999)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Svalbard*, §3.3

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행위자들이 스발바르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창조했고, 그 결과 이들 새로운 행위자들이 북극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 한국, 인도와 더불어 중국도 뉘알레순(Ny-Alesund)에 극지연구소를 운영한다. 2004년 더 폭넓은 북극 전략의 일환으로 개설된 중국의 황해연구기지(Huanghe research station)는 2010년에 총 36명의 프로젝트 근로자를 수용하여 이러한 국가 기지들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¹⁰⁾

중국은 안보 문제보다 경제적인 관심사로 인해 북극에 기지를 얻고자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해 북방향로(Northern Sea Route)와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는 현재 늦 여름에 얼음이 없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이런 조건이 점점 더 길어질 것이다. 이 항로를 이용하면 아시아에서 유럽 및 미국 동부해안으로 가는 운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운송거리도 각각 6,400km 및 7,000km까지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방향로를 통해 중국은 연간 US\$600~120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¹¹⁾ 중국 연구자들은 신흥 북극 무역루트를 장악하는 것의 경제적 중요성과 이 루트의 이용이 아시아 지역 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¹²⁾ 지금까지 중국의 북극정책은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일부 중국 연구자들은 중국이 좀 더 정치적으로 정보에 입각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북극에 관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극의) 지역 정책결정 기구와 가장 유사한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에 한국, 일본과 더불어 중국도 영구 옵서버 국가(지위)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극) 정책 개발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9) A. Umbreit, (2009) *Spitsbergen*, Bucks UK, Bradt Travel Guides. p. 43.

10) L. Numminen, (2011) 'A History and Functioning of the Spitsbergen Treaty' In D. Wallis and S. Arnold (eds.) *The Spitsbergen Treaty: Multilateral Governance in the Arctic*, Helsinki, Arctic Papers, Vol. 1, pp. 7-20.

11) M. Byers, (2011a) 'The dragon looks north', *Al Jazeera*, 28 December, 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1/12/20111226145144638282.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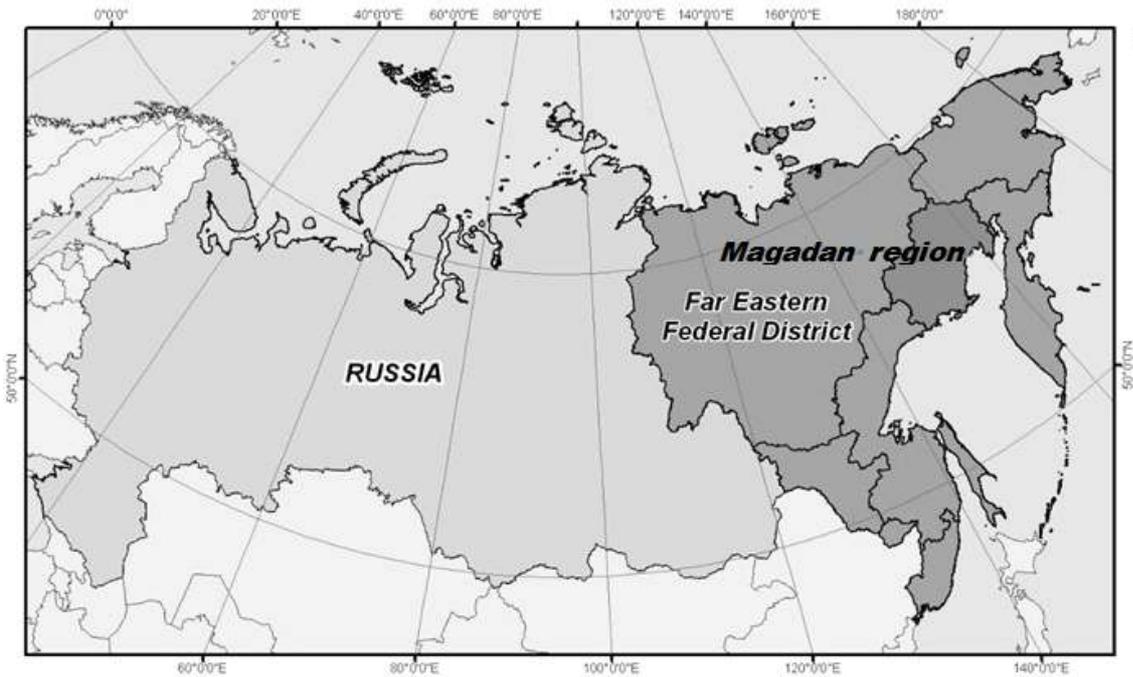
12) L. Jakobsen, (2010) 'C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 *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pp. 6-7.

오호츠크 해 광물자원과 발전 전망: 마가단 주를 중심으로1)

박종관, 최주화2)

마가단 주는 러시아 동북쪽 북극권에 위치해 있다. 오호츠크 해 북안에 위치한 마가단 주의 행정영역은 극동연방지구에 속한다. (그림1 참조). 마가단 주의 면적은 한국의 4.6배, 러시아의 2.6배인 462,500km²로 러시아연방의 11위를 차지한다. 2018년 현재 전체 인구수는 14만 4091명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적은 인구분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1km²당 0.31명이다. 1953년 3월 소비에트 연방 최고위원회의 지령으로 설립된 마가단 주에는 러시아 인 81%,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인 6.3%등 러시아 북극권 소수민족인 예벤인 1.7%로를 비롯한 코랴크, 축치, 캄차달 등 기타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그림1> 러시아연방에서의 마가단 주 위치



마가단 주는 지리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끝자락으로 북쪽으로는 추코트카 자치주, 동쪽으로는 캄차카 변경주, 서쪽으로는 야쿠츠크 공화국, 남쪽으로는 하바롭스크 주와 경계한다. 그리고 바다는 오호츠크 해로 연결된다. 또한 마가단 주는 오호츠크 해에 둘러싸여 있어 해안

1) 이 글은 지난 NEAR 국제포럼(2017.9.25. ~ 9.28)에서 발표한 자료를 최주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사무국 국제협력 팀장이 번역한 자료를 공동 수정 및 보완한 글임
 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국제협력 팀장

선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간 경계선은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산간지역이다. 이렇듯 러시아 최고 극동지역 북안의 북극권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가장 혹독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마가단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3000km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까지 항공 거리는 7110km 등 러시아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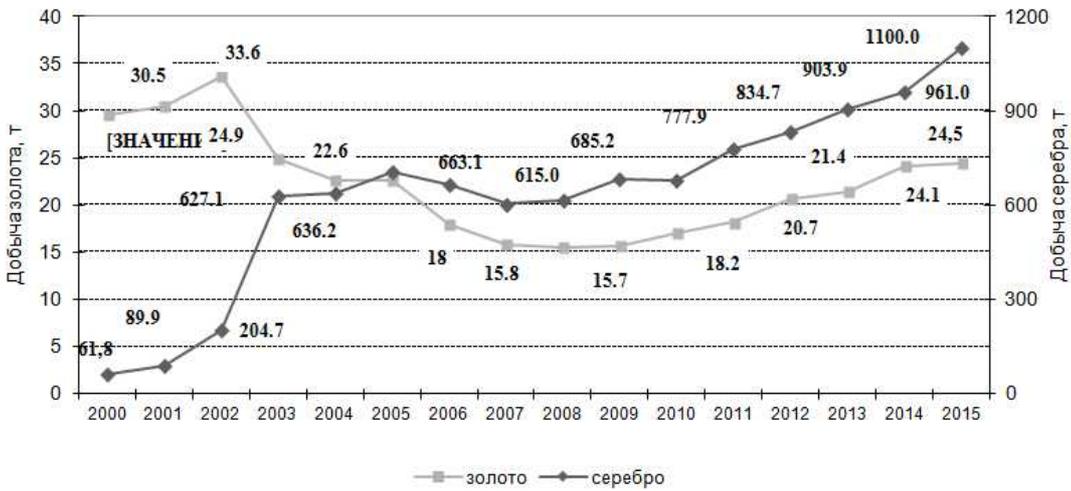
마가단 주에는 러시아 동북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주의 중심에 위치한 부동항 나가예프 만과 '마가단' 국제공항이 있다. 마가단 주에는 아직 철도가 없지만 러시아연방정부의 철도 계획 2030 발표에 따르면 야쿠츠크 시에서 마가단 시까지 철도 건설사업을 계획 중이다. 국내 물류수송을 위한 주요 운송수단은 자동차이며 마가단 주 자동차 도로 총 길이는 2,702.2 km이며 도로의 표면은 토사로 마감되어 있다.

마가단 주의 전력공급은 '콜리마 수력발전소'의 동력으로 충당되며 2018년까지 '우스츠-스레드네칸스카야 수력발전소'가 최대전력으로 풀가동된다. 그러면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남은 전력은 광물가공업체를 비롯한 새로운 기업 건설에 사용될 계획이다. 마가단 주는 동북아 주요국 수도와 약 3,000km 떨어져 있지만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동북아 국가들과 인접하여 위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마가단 주의 주요산업의 특징으로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광물 채굴업이 주력 산업이다. 이 외에도 오호츠크 해로부터의 풍부한 수산자원 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룬다. 주요 수산물로는 명태, 청어, 대구, 가자미, 넙치, 대구, 연어, 게, 새우, 소라, 멍게 등이다. 특히 명태가 오호츠크 해에서 많이 잡히기에 한국원양어선들이 이곳에서 명태 잡이를 많이 하고 있다.

광물채굴 산업으로는 지난 1928년부터 현재까지 금 3,000톤 이상, 은 7,000톤 이상, 주석 69,000톤, 코발트 744톤, 석탄 8,170만 톤을 채굴하였다. 지역 경제의 주요 산업은 귀금속(금, 은)과 자체 소비용 석탄 및 건축 자재(모래, 자갈, 석재) 채굴이다. 80년이 넘게 광산지에서 금을 채굴했기 때문에 광·지질학적 특성상 현재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2000~2015년 동안 마가단 주의 금 채굴량은 18%가 감소하여 러시아 지역 중 금 채굴량 1위(2000~2002년)에서 현재 5위로 밀려났다. 그 대신 지역 생산량의 보완산업으로 은 생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마가단 주는 러시아 최대 금속 생산지로 자리 잡고 있다(그림2 참조).

<그림2> 마가단주의 금·은 채굴 동향 (단위: 톤)



지하자원을 비롯하여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마가단 주는 러시아 최대 광물지역 중 한 곳으로 원료광물 매장량이 상당히 크다. 또 마가단에서 채굴되는 귀금속, 석탄 이외에도 비철금속, 철, 탄화수소 등이 지하층에 매장되어 있으며 이들 광물 대부분은 동북아시아 국가들로 수출된다. 주요원유 및 가스 매장지로는 북오호츠크 해 대륙붕 지대이며 현재 마가단-1, 마가단-2 프로젝트로 명명된 동 유전 개발 실현시 연간 원유 1,500에서 2,000만 톤, 가스 350-500m³억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 참조).

<표 1> 마가단 주의 자원 매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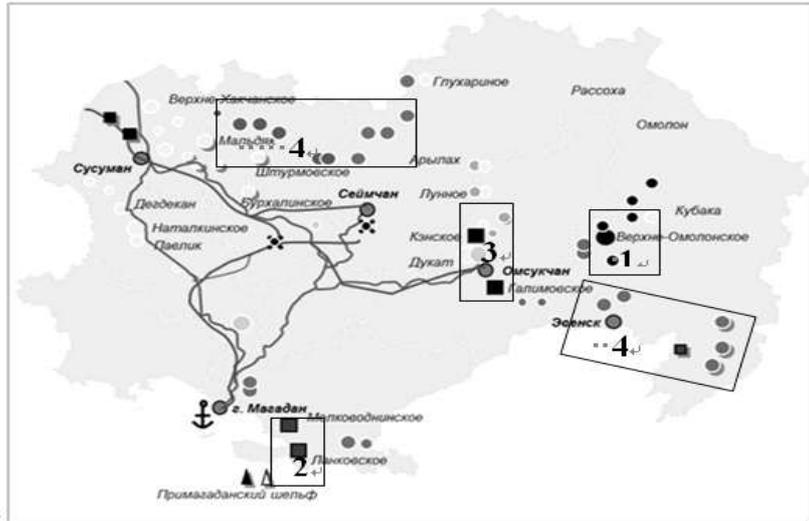
| 자원 종류 | 매장량 | 단위 |
|----------|----------|--------------------|
| 금 | 3,891.0 | 톤 |
| 은 | 44,691.0 | 톤 |
| 몰리브덴 | 200.0 | 천 톤 |
| 주석 | 311.0 | 천 톤 |
| 구리 | 10.1 | 100만 톤 |
| 아연 | 18.0 | 100만 톤 |
| 납 | 5.4 | 100만 톤 |
| 철 | 1.4 | 10억 톤 |
| 석탄 | 8.7 | 10억 톤 |
| 석유 (대륙붕) | 1.9 | 10억 톤 |
| 가스 (대륙붕) | 1,987.7 | 10억 m ³ |

(측량하여 채굴된 자원, 측량했지만 미채굴된 자원 및 추정 자원)

마가단 주의 유망한 투자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그림3과 같다: 7억 5,600만 톤 철 생산 규모의 '오폴론' 철광석지구 개발 (1), 1억 3,700만 톤 석탄 생산 규모의 '란스코예' 갈탄산지 개

발과 '멜코보드닌스코예' 갈탄산지 개발 (5억 500만 톤 규모) (2), '움수크찬스키' 지역의 석탄 매장지 개발 (1억 톤 규모) (3), 그 외 여러 지역의 비철금속(구리, 텅스텐, 납, 아연, 몰리브덴 등) 채굴 (4).

<그림3> 마가단 주의 자원개발 투자 프로젝트 위치 현황



마가단 주의 원료 광물 잠재력 개발관련 문제점은,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실현의 주된 장벽은 프로젝트 장소가 외지에 위치해 있어 교통 및 물류, 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지역이다. 전체 투자 프로젝트 추진비용 중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장비 수송과 완제품 반출에 드는 물류 운송비는 프로젝트 추진비용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러시아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방해 요소들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 시켜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방향을 제시하였다.

1) 극동 및 바이칼 지역에서 광물채굴 투자 프로젝트를 실시할 경우 투자자에게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혜택이 적용된다. №267-Φ3 2013년 9월 30일부터 연방 법률에 따라 이 혜택이 적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투자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투자규모가 5천만 루블(83만 3천 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세 혜택
- 투자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투자규모가 5억 루블(833만 3천 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세 혜택

2) 교통 및 에너지 국가 인프라 구축에 관한 재정 프로젝트

- '러시아연방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2025' 등 국가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 극동과 바이칼 지역 개발 기금을 사용한 국가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등

3) 세금 및 관세 혜택이 제공되는 마가단 주 특별경제구역

- 세금 및 관세 혜택이 제공되는 마가단 주 투자 프로젝트 중 특별경제구역 '유즈노-오몰론 스크 철광석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국가 혜택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매개변수로는 예상자원이 7억 5,600만 톤의 철, 투자금액 - 13억 9,200만 달러, 그 중 66%는 항구, 자동차 도로 (160km), 송전선 (170km)의 인프라건설비용에 투자해야 한다.

- 재정적 측면에서 프로젝트 효과를 계산한 결과, 특별경제구역의 세관 및 세제 혜택 조건을 고려하면 투자규모가 1.2배 감소하여 연평균 순이익은 1.2배 증가, 투자 회수기는 1.3배 단축, 프로젝트 시행기간 동안 순 현재가치 (NPV)가 1.9배 증가, 내부수익률(IRR)은 1.4배 증가했다. 만일 초기 인프라 투자비를 정부에서 부담한다면 투자자는 훨씬 더 큰 이익을 보는 셈으로 3.6배 투자비 감소, 연평균 순이익 1.4배 증가, 투자 회수기 2.4배 단축, 프로젝트 시행기간 동안 순 현재가치 (NPV)가 3.2배 증가, 내부수익률(IRR)은 3.6배 증가했다.

- 연구결과를 통해 마가단 주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 무엇보다 먼저 기존 인프라가 형성된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나 해안가를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인프라건설이 통합된 공동 개발 지구에 투자자를 유치한다.
- 완제품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원의 정밀한 가공공정을 거친다.

- 앞선 방법의 리스크를 줄인 투자프로젝트로 투자를 실시했을 때 마가단 주의 석탄매장지에서 생산량을 계산해보면 다음의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석탄 잠재 자원은 430억 톤으로 예상되며 관측을 통해 채굴할 수 있는 석탄자원의 양은 22억 톤이다. 매장된 석탄의 70% 이상이 갈탄이다. 석탄 채굴은 연간 40만~50만 톤으로 지역별로 수요량에 따라 채굴량은 결정되게 된다.

- 석탄 수출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석탄산지가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매우 높은 운송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여러 곳의 석탄산지 중 석탄 개발 우선지역은 란코브스코예 (Lankovskoye), 멜코보드닌스코예 (Melkovodninskoye),

- 차이부힌스코예(Chaybukhinskoye)가 경쟁력이 있고, 이들 중 2곳이 오호츠크 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 또 다른 실험연구를 통해 마가단 주에 있는 석탄은 높은 회귀성과 유용성으로 인해 석탄 종합처리 가공시설을 이용하면 완성도 높은 양질의 석탄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 이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갈탄 매장지 개발을 실시하면 효율성이 높은지를 3가지 방법으로 평가해 보았다. (표2 참조)

- 일반적인 석탄 채굴 방법
- 일반적인 석탄 채굴과 연료 연탄 생산 방법

- 연료연탄, 엔진연료, 가스에너지, 비연료 제품(부식산, 오조케라이트)을 생산할 수 있는 석탄종합처리 가공시설을 갖춘 생산 방법

<표2.> Comparative assessment of options of development of fields

| Indicators on fields | Melkovodninskoye | Lankovskoye | Chaybukhinskoye |
|---|------------------|-------------|-----------------|
| Coal mining | | | |
| Investments,mlnUSD | 191 | 170 | 209 |
| Payback period, years | 6 | 7 | 6 |
| Internal standard of profitability (IRR) % | 27 | 20 | 25 |
| Coal mining and production of fuel briquettes | | | |
| Investments, mln USD | 360 | 339 | 379 |
| Payback period, years | 6 | 7 | 7 |
| Internal standard of profitability (IRR) % | 23 | 20 | 22 |
| Complex processing of coals | | | |
| Investments, mln USD | 360 | 339 | 379 |
| Payback period, years | 4 | 4 | 4 |
| Internal standard of profitability (IRR) % | 67 | 69 | 65 |

- 1) 석탄의 정밀 가공공정에 따라 개발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 2) 모든 개발방법을 살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석탄 매장지는 멜코보드닌스코예로 이곳을 개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마가단 주는 풍부한 천연자원 및 수산자원을 중심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마가단 주 경제특구 개정에 관한 연방법’ 채택과 2015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마가단 주 경제특구 입주자 세제혜택 부여 관련 법안이 통과 됐다. 주요 혜택으로는 앞서 살펴본 특구 입주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특혜 제공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면, 제수수료 면제 등 지역 내 생산, 가공 목적으로 반입되는 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천연자원 개발에 따른 국제협력의 방향을 제안한다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속한 국가들과 마가단 주의 잠재 광물을 연구·개발 및 협력방향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연구 및 여러 학문분야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마가단 주의 잠재 광물 연구와 사용방향에 대해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합하여 국제과학재단 보조금 조성 및 국가간 내지 지방간의 교부금 확보를 통해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다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마가단 주 자원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국가간 및 지방간 경제적 이익 결정
 - 특정지역의 자원 유형별 수입 계획 결정
 - 마가단 주의 하층토 연구와 개발에 대해 참여 방안(혁신 기술과 공학, 관심 있는 회사, 투자자)
 - 투자 프로젝트 이행 시 호혜협력 방해요인 확인
 - 하층토 개발에 대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국제협력의 장애물 제거를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와 마가단 주를 위한 입법안 마련

2) 광석 및 비광석에서 광물성분 추출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 혁신기술 개발 및 이전, 첨단기술을 갖춘 컨베이어벨트 설치, 매장산지 개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석탄 등 자원 가공 등의 실시다.

3) 관심 있는 투자자를 발굴하고 공동기업 설립을 위한 투자프로젝트 정보를 정기적으로의 교환이다.

현재 마가단 주는 광물제품, 수산물 등의 수출과 기계, 장비, 운송수단, 화학교무제품, 식료품 등의 수입으로 일본, 한국, 벨기에, 카자흐스탄 등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교역액은 2016년 기준으로 약 6,700 만불로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의 광물에 관한 종합적 학술연구와 더불어 협력 조정의 역할에 관련 대외 교역관계를 활성화에 대한 연구기관이 있는데, 마가단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동북 복합학술 연구소가 바로 대표적이다. 이 연구소는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지리학자, 고고학자, 경제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등 여러 분야의 최고 전문 인력들이 집합한 곳으로 이들이 모여 마가단 주의 광물 잠재력과 개발조건을 연구하는 등 복합적인 학문적 문제의 해결로 투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동 개발의 발전을 제안하는 바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북극권 에너지자원 개발과 에너지 정책¹⁾

예병환

1. 들어가는 말

시베리아는 일반적으로 우랄 산맥에서 극동 지방의 캄차카 반도에 이르는 북위 50° 이북의 북부지역을 지칭하며 이 지역은 북극해와 인접한다. 시베리아지역과 북극권에는 금, 석탄, 석유, 철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경제적 관심을 받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시베리아 북부지역인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시베리아 북부지역과 북극권의 자원개발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북극권을 포함하는 시베리아 북부지역은 화석연료를 포함한 광물 자원의 보고이며, 특히 시베리아 북부지역은 러시아의 목재 자원의 70%를 공급하는 대규모 삼림 자원을 갖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는 에너지 분야로 전이되고 있다. 물론, 석유를 필두로 한 에너지의 중요성은 지난 세기에도 존재했지만, 현재 에너지 시장의 관심은 석유에서 가스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지역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자원 개발 및 삼림 자원 훼손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왔다. 단기적으로는 자원개발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의 과도한 노동력진출과 유럽과 일본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시베리아 고유의 생활문화가 해체되는 부정적인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었다는 점에서 시베리아·북극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 파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러시아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2020’과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0(2006)”에서 환경문제를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환경보존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환경개발부담금을 중앙정부 차원에 부과하고 환경기금 또한 적립해가고 있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최종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완성되지 않은 원고입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분야에 있어서 세계 제1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에너지 관련 국제시장 및 국제정치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 및 입장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다. 러시아는 풍부한 매장량과 유럽 에너지 시장의 최대 공급자(2005년 원유수요의 15%, 가스수요의 30% 차지)라는 지위와 더불어 전 세계 가스 생산의 15% 이상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가스 수출국으로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핵심적 변화요인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러시아의 에너지정책은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안보적 관점에서 전례 없이 관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에너지시장의 환경을 살펴볼 때 에너지 절대 빈국이자 분단 상황 속에서 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는 미래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개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의 대 러시아 교류와 경제협력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절대적인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 특히 액화천연가스 부문에선 메이저급 수입국인 한국은 전략자원인 석유와 가스의 시장상황, 가격 및 생산동향 등에 아주 민감하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에너지자원 개발현황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러시아의 에너지, 특히 가스산업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한국-북한-러시아로 이어지는 가스관 연결을 통한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구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살펴보고자 한다.

2.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북극권의 에너지자원개발과 러시아의 에너지정책

2.1 시베리아와 북극권의 자원개발 현황

시베리아의 자원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석유와 가스등 연료자원이다. 러시아의 자원은 석유 930억톤, 가스는 전체 매장량이 236조 1,000억m³ 인데, 이 중 160조 3,000억m³은 육지에, 75조 8,000억m³은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다. 이들 자원은 러시아의 37개 지자체에 분포되어 매장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하자원은 서부 시베리아, 우랄 불가지역, 북서지역, 극동러시아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표 1> 러시아의 지역별 석유가스 매장 및 생산현황

| 석유 | | | |
|-------------|--------------|---------------|------------|
| 구분 | 지역명 | 매장(십억톤) | 생산(백만톤) |
| 극동 러시아 | 사할린주 | 1.8(추정) | 14.9(2007) |
| | 사하공화국 | 2.4(추정) | 0.3(2007) |
| | 캄차트카 지방 | 1.4(추정) | N/A |
| | 하바로브스크 지방 | 0.5(확인) | N/A |
| | 소 계 | 18(추정) | 최대 16 |
| 우랄 | 한트 만시츠키 자치구 | 20 | 280(2007) |
| | 야말로 네네츠키 자치구 | 0.292(가채) | 36(2006) |
| | 소 계 | 38(추정) | 최대 320 |
| 프리볼쥬스키 (불가) | 페름 지방 | 0.36(추정) | 10 |
| |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 0.385(추정) | 11(2007) |
| | 타타르스탄 공화국 | 0.5(추정) | 28(2003) |
| | 사마라주 | 0.3(확인) | 11 |
| | 오렌부르크주 | 0.466(가채) | 14 |
| | 우두무르트 공화국 | 1.5(추정) | 8~10 |
| | 소 계 | 0.38(추정) | 최대 90 |
| 시베리아 | 투르크주 | 0.514(확인) | 12 |
| | 웁스크주 | 2.3(추정) | 10 |
| |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 0.3(가채) | 8(추정) |
| | 노보시비르스크주 | 27(추정 Taimyr) | 2 |
| | 미르쿠츠크주 | 1.2(Evenki) | 2.4 |
| | 소 계 | 0.070(가채) | 0.85 |
| 북서지방 | 코미 공화국 | 0.242(추정) | 최대 30 |
| | 네네츠크 자치구 | 2.18 | 10.3(2004) |
| | 소 계 | 1.225 | 13.5(2007) |
| 해양 대륙붕 | 러시아 전체 대륙붕 | 2.4(추정) | 최대 30 |
| 러시아 | 전체 | 최대 93(추정) | 491(2007) |

| 가스 | | | |
|------------|--------------|--------------|--------------|
| 구분 | 지역명 | 매장(십억m³) | 생산(백만m³) |
| 극동 러시아 | 사할린주 | 2000(추정) | 6400(2007) |
| | 사하공화국 | 9400(추정) | 1605.9(2007) |
| | 캄차트카 지방 | 800(추정) | N/A |
| | 하바로브스크 지방 | 5 | N/A |
| | 소 계 | 최대 20000(추정) | 최대 8000 |
| 우랄 | 한트 만시츠키 자치구 | N/A | 29500(2007) |
| | 야말로 네네츠키 자치구 | 10400 | 570000(2006) |
| | 소 계 | 43000(추정) | 최대 600000 |
| 프리볼쥬스키(불가) | 페름 지방 | N/A | 750 |
| |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 300(추정) | 394(2007) |
| | 타타르스탄 공화국 | 32 | 740 |
| | 사마라주 | 24(추정) | N/A |
| | 오렌부르크주 | 9945 | 25000 |
| | 우두무르트 공화국 | N/A | N/A |
| | 소 계 | N/A | N/A |
| 시베리아 | 투르크주 | 1500(추정) | 4000 |
| | 웁스크주 | N/A | N/A |
| |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 23000 | N/A |
| | 노보시비르스크주 | 110(추정) | N/A |
| | 소 계 | 1200 | N/A |
| 북서지역 | 코미 공화국 | 37800 | N/A |
| | 네네츠크 자치구 | 1700 | 2800 |
| | 소 계 | 470 | 114.5 |
| 해양 대륙붕 | 러시아 전체 대륙붕 | 1100(추정) | 최대 3000 |
| 러시아 | 전체 | 최대 3000(추정) | 최대 3000 |
| 해양 대륙붕 | 러시아 전체 대륙붕 | 75800 | N/A |
| 러시아 | 전체 | 236100 | 650760(2007) |

출처: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 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FzQUMvNEIVRS82X 0VfOE0z?1=1&workdist=read&id=2044008

시베리아의 석유개발 유망지역은 톰스크,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주이고, 석유가스 유망지역은 이르쿠츠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에벤키스크 자치구이며, 가스 개발 유망지역은 타이르스크 자치구로 나타나고 있다. 추정 총 매장량은 석유 128억 톤, 가스 37조8,000억m³, 액화가스 2조3,000억 톤 이며, 확인된 매장량은 석유 16억 톤, 가스는 6조1000억m³인데 석유 자원의 13%, 가스 매장의 11% 정도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매장지를 살펴보면, 톰스크주는 매장량이 석유가 23억 톤, 가스가 1조 5,000억m³로 추정되어 지고 있으며, 가채 석유매장량은 5억 1,440만 톤으로 이중 100개 의 유전 및 가스전에서 현재 연간 1,200만 톤의 석유와 40억m³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옴스크주에는 약 8억 톤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3억 톤이 채굴 가능한 자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의 가채 석유 매장량은 80억 톤, 가스는 23조m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요 매장지는 반코르스코예 석유가스전, 타남스키 가스전, 볼쉐헤트스키, 유루브첸코-토홈스키, 소빈스코-테테린스키, 니제네안가르스키 석유가스전 등이 있으나, 현재 노틸스키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타남스키 가스전만이 개발돼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에벤키스키 자치구에는 5개의 매장지가 발견되었으며, 확인된 석유 매장은 전체 매장량의 20%인 12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보시비르스크 지방의 추정 석유 매장량은 5억 2,000만 톤, 가스는 1,100억m³이며, 현재 북부 지방의 톰스크주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9개 매장지역 중에서 2곳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르쿠츠크주에서는 11개의 지역에서 석유 2억 4,200만 톤, 가스 1조 2,000억m³, 액화가스 5,200만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유는 베르흐네촌스크에 83.4% 가스는 코브틴스크에 74.8%가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우랄지역은 러시아 총 석유매장량인 930억 톤 의 40%에 달하는 380억 톤, 가스매장량의 약 20%인 43조m³가 매장돼 있으며, 야말로 네네츠크 및 한트 만시스크 자치구에는 300여 개의 석유 및 가스전이 분포되어 서부 시베리아 지역으로 전세계의 석유자원 매장기준으로 페르시아만에 이어 두번째로 큰 지역이다. 주요 매장지역인 한트 만시스크 자치구의 석유 매장량은 200억 톤이며, 이는 러시아 전체 가채 매장량의 57%에 달하며 2007년 기준 연간 석유생산량은 2억 8,000만 톤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한 생산을 나타내고 있다. 야말 반도는 서부 시베리아의 가장 유망한 유전지대인데 2억 9,100만 톤의 석유와 26개 가스 매장지가 발견되었고 10조m³의 가스, 2억 5,000만 톤의 액화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야말로 네네츠크 자치구에 3,600만 톤의 석유와 5,700억m³의 가스가 생산되고 있다.

시베리아 극동지역에는 러시아 전체 석유매장의 20%인 180억 톤, 가스 250억m³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사하공화국 남부와 오흐츠크해 대륙붕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사할린주는 극동지역 중에서 유전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인데, 유전 11개, 가스전 17개가 개발되어 있으며, 전체 에너지자원 매장량은 석유 18억 톤, 가스 2조m³로 추정되어 진다. 이 지역의 에너지 채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1,490만 톤의 석유가 채굴되었다. 사하공화국에서는 32개의 석유 및 가스전이 발견되었으며, 추정 매장량은 석유 24억 톤, 가스 9조4000억m³에 달한다. 이 외에도 캄차트카 지

방에 14억 톤, 하바로브스크 지방에 5억 톤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개발정책과 정부의 지원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8년~2013년간 극동·바이칼 동부지역 경제·사회개발 연방 특별 프로그램을 2007년 12월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민간투자를 포함한 전체 재원은 5660억 루블로 약 2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연방예산 170억 달러, 지방예산 20억 달러, 투자기금 40억 달러로 구성된 것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물류·운송 인프라 개선에 재원의 약 60%가 투입되는 인프라개발이 중심이다. 구체적 내용은 연료 에너지 기간시설 건설에 약 56억 달러가 지원되고, 도로 6,500km 건설에 약 90억 달러가 지원된다. 그 외 철도, 공항, 항만 개보수, 전력망 건설 등에도 지원된다.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이 아시아·태평양과 경제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광물과 어업 및 임업을 개발하고, 철도·도로 등 물류망을 확충하여 이 지역의 자생적 경제 성장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의료 보건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2012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에 위해 회의장 주변 도로와 교량 및 항만을 건설하고, 국제공항 시설과 활주로를 개보수한다. 또한, 7천 석의 국제회의장 및 박람회장, 1만 개 객실 규모의 호텔과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레저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를 건설한다.

②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사업과 바이칼·아무르철도(BAM)4의 연결망을 건설한다. 그리고 주요 항만의 개보수 및 국경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과 극동 지구 내 항만특구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등 주요 운송 인프라를 구축한다.

③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과 가스관 건설 및 산업복합단지 건설 등 에너지 개발 및 석유·화학 산업복합단지를 건설한다.

④ 석탄·우라늄·철광·금광 등의 광산 개발과 철광석 처리 단지 개발, 그리고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하바로브스크(Khabarovsk)에 펄프 공장을 건설하는 등 광물을 개발한다. 아울러 임업, 농업, 어업이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

⑤ 종합병원·소아병원·결핵요양원·한방병원·암센터 등 병원 시설 및 학교를 건립하고, 상하수도 정비 및 폐기물 처리공장, 정화시설을 구축하는 등 의료, 교육, 환경 인프라를 건설한다.

러시아 정부는 위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러시아 극동 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현재의 2.6배, 고정자본투자는 3.5배, 인구는 약 10%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2 '강한 러시아'와 러시아의 가스에너지 전략

집권 1-2기(2001-2008)이후, 잠시 4년 동안 크렘린을 떠나 정부종합청사에서 총리직을 수행한 푸틴은 2012년 다시 제6대 러시아 대통령이 되었다. 푸틴은 집권 1-2기 동안 추진해 왔던 개혁정책, 즉 '강한 러시아'와 '지속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2000년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핵심적인 역량을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개발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 간파했다. 그는 에너지산업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에너지기업을 재배하고 있는 올리가르히에 대한 통제와 에너지와 자원 분야의 전략적 기업들에 대한 국가통제의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러시아 정부가 가장 큰 몫의 기업통제 지분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과 경우에 따라서는 재국유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재국유화를 통해 일단 자연스럽게 독점이 확립된 가스 게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자, 푸틴은 소비에트 전성기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기초위로 천천히 러시아를 되돌리려는 듯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푸틴은 개혁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별 성과가 없자, 재정수입 강화를 위해 에너지 분야, 특히 석유와 가스분야에 눈을 돌린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러시아 최대 가스기업인 가즈프롬은 푸틴의 개혁적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가즈프롬은 가스전의 탐사, 개발, 가공처리, 수송 및 판매 등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시설투자를 위해 많은 투자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것은 국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스가격 인상을 더욱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런 가스가격의 인상은 러시아 사회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천연가스 전체 수출규모의 약 90%는 유럽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총 수출액에서 대 EU 에너지수출 비중이 75%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 재정의 40%를 기여하고 있다. 비록 세계 가스시장에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즉 미국에서 셰일 가스(비전통적 가스)의 생산 증가로 가스가격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즈프롬의 가스 생산량은 세계 가스 생산의 15%, 러시아 전체 생산의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장량의 규모는 전 세계 규모의 25%,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70%이다. 가즈프롬은 2014년까지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Exxon Mobil을 능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가즈프롬의 회장으로 있던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승인한 목표였다(The New York Times. 5/11/2008). 따라서 강력한 러시아를 위한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는 푸틴에게 가즈프롬은 크렘린의 에너지 무기가 되었고, '21세기 대외관계부'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위치로 발전했다. 사실 미국과 EU는 가즈프롬의 민영화 혹은 분할을 주장하고 있지만, 푸틴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가즈프롬은 가스전, 파이프라인, 독점적 가스수출권, 경영에 대한 국가의 통제 등으로 사실상 푸틴의 국내외적 권력강화의 도구가 되고 있다.

2007년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러시아가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을 사용하진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에너지는 정책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모스크바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에너지정책연구원(Institute of Energy Policy)의 원장이자, 전 에너지부 차관이었던 밀로프(Vladimir Milov)는 주장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가스에너지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징벌도구(tool of punishment for neighboring countries)”로 사용되었다고 말했다(The New York Times, 5/11/2008).

에너지와 관련되는 한, 지리적 인접성 이외의 많은 요인들에 의해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다. 2010년 이래, 러시아의 가스수출은 유럽의 에너지 생명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유럽에 대한 전체 가스 수출량의 거의 1/3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핀란드·슬로바키아는 가스의 100%를 러시아에 의존한다. 또한 불가리아는 97%, 폴란드·헝가리는 86%, 터키·체코는 70%, 독일은 36%,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26%의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보유한 가스가 서구에 대항한 제로섬 경쟁에서 조종가능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Aslam, Independent, 27 April 2012).

러시아가 가스수출의 통로역할을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다양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 독일의 슈레더 총리는 러시아의 가스를 통과국을 우회하여 독일에 직접 공급하는 비밀스럽게 준비된 Nord Stream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설사 이것이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과 그것이 독일로 하여금 전례 없이 러시아의 가스공급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제쳐두더라도, 슈레더는 가스프롬이 Nord Stream 주주 위원회(shareholders committee)를 이끌고, 향후 파이프라인 자체를 건설하는 컨소시움의 대표가 되도록 승인했다(Aslam, Independent, 27 April 2012).

가스 가격과 아울러 가스 파이프라인은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하는 에너지 정치 게임의 도구이며, 이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의 대표적 예로 Nord Stream의 건설 과정을 거론할 수 있다. 발트 해저를 따라 건설되는 Nord Stream 파이프라인(길이 1,200km, 102억 달러 상당의 건설비용 소요, 2011년 11월 1차 단계 완공)은 육상의 파이프라인보다 직접적인 운송비용이 30%나 더 소요되기는 하지만, 주요 서유럽 시장에 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부여한다. 이 파이프라인은 추가적인 통과운임을 야기하는 대안적인 루트인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을 우회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점을 파이프라인 통과협상 과정에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Economist, 01.07.2006). 이 새로운 거래는 확실히 통과 수익의 상실 이상으로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을 위협한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러시아는 서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하지 않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것은 맹렬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몇몇 정치인들은 심지어 그것을 1939년의 ‘독소 불가침조약(Nazi-Soviet pact)의 에너지 판’, 한 폴란드 관리는 이것을 가리켜, ‘KGB와 Stasi

(동독비밀경찰)의 조약'이라 불렀다(Economist, 01.07.2006). 가스 공급자인 러시아의 신뢰가능성이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는 소비국들의 딜레마는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가스공급원을 바꾸는 것이다. 구소련에 포함되어 있었던 발트국가들의 경우에 있어 이 모든 사항은 비관적이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에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계산 이면에는 수치맞는 에너지 거래를 상업적 이익의 확보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즉 값싼 가스의 지속적 공급 약속은 독일의 최고위 관료들을 실질적으로 크렘린의 로비스트로 만들어 유럽의 정책결정에서 모스크바가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EU의 규정으로부터 러시아를 면제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새롭게 권좌에 복귀한 푸틴의 미션은 러시아를 다시 한 번 더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의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특히 나토(NATO)가 확장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구축되고, 중동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러시아의 경제가 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때에 외교정책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정략적이다.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석유자원과 가스는 송유관과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지역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들의 수송망은 시베리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총 23만 9,439km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원유 수송용 15만 7km, 가스 수송용 7만 5,539km, 정제유 수송용 1만 3,771km,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액체 및 천연가스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탱커 항만은 약 30개 정도이며, 이 가운데 8개 항만에서 원양유조선의 접안이 가능하다. 원유 수출과 관련하여 특히 극동 연해주 연안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원유물류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동유럽, 중국,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물류체계와의 연계성이 증대 되면서 거대한 유라시아 에너지 물류체계로 발전할 전망이다.

<그림 1> 동시베리아 신규 송유관 계획도



자료출처 : 이준범, 『러시아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석유개발과 파이프라인』 “시베리아 개발과 한반도”, 한국시베리아학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자료, 2003.2.23.

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개발과 러시아 경제발전의 연계를 위해서는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운송망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에너지 수송을 위해서 1999년 러시아 정부는 4개의 파이프라인 구축계획 수립하였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구축계획은 양가라스크-다칭 라인이 계획되었으나, 타당성 조사에서 변경을 고려하였고 2002년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트란스네프트(Transneft)는 양가라스크-나훛카 송유관 건설로 선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에너지 수송망의 변경에는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및 국가안보적 이익을 고려할 때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나훛카로 송유관을 연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극동시베리아 중에서도 개발 전략의 중심인 연해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해주는 동시베리아 송유관과 가스관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종착지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유일의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토크항 등 주요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및 한반도와 닿아있고 일본에 인접해 있어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거점이다.

2.3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러시아는 세계 전체 매장량의 30.5%를 차지하는 1,680조m³에

이르는 매장량과 연간 600BCM 규모로 세계 1위의 생산량과 수출을 자랑하는 가스산업을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실제로 2010년 러시아의 가스생산은 2009년 대비 11.5% 증가한 650BCM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185BCM을 기록하였다. 러시아 최대 기업이자 세계 에너지업계의 공룡인 가즈프롬(Gazprom)의 경우, 2010년 가스 생산량은 508.6BCM을 생산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간 640~660BCM 규모의 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생산량의 절반 가량은 북극해, 야말반도,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지역의 신규 가스전을 개발하여 생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유럽 국가들의 가스수요는 연간 195bcm로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가즈프롬의 생산량 증가분을 유럽시장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 러시아 가즈프롬의 에너지자원 생산현황(2016년)



자료 : <http://www.gazprom.com/about/production/extraction/>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 ‘강한 러시아’로 부상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국가위상을 제고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탈(脫) 러시아화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유·가스를 대외정책 실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영 에너지 회사가 기존의 민간회사가 소유한 개발권을 인수하는 등 석유·가스 산업의 재국유화를 통해 국가 주도의 강력한 자원 통제와 석유·가스 산업의 국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개발과 향후 에너지산업정책의 방향성은 ‘러시아 연방 에너지 전략 2030’에 잘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2009년 11월에 ‘러시아 연방 에너지 전략 2030’이라는 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이 계획의 목적은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석유, 가스 매장지가 점차 고갈됨에 따라 동시베리아, 극동, 야말 반도, 북극해 등 신규 매장지를 적극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광구 가스생산 비중을 확대하여 2030년에는 약 40%까지 늘릴 계획이며,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석유 생산 비중을 2030년에는 약 20%까지 그리고 가스 생산 비중은 15%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안보 확대를 위해 지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석유, 가스 수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에너지산업분야의 개발을 위해서 2030년까지 총 2조 4,000억 달러~2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석유 부문 6,090억 달러~6,250억 달러와 가스 부문 5,650억 달러~5,900억 달러, 투자 재원의 10%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그리고 비화석 연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연방 에너지 전략 2030’에는 천연가스 공급루트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루트 다양화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독일은 2011년 준공된 노드스트림(Nordstream)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직수입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남부유럽 국가들이 사우스스트림(Southstream)을 통해 러시아 가스 수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시아지역으로의 공급루트 확대를 위해서 러시아는 중국과 한국과의 가스공급 협상 및 대규모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을 가장 잠재력이 큰 가스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2030년 중국의 가스수요는 유럽 전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중국으로의 가스공급은 1단계로 서부노선인 알타이 노선이 우선 건설되고 이후 동부노선이 검토되고 있다. 알타이 노선은 주로 동시베리아 가스자원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동부노선은 극동의 야쿠티아 차얀다 가스전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2011년 10월 중국 방문을 통해 러시아의 서부노선과 동부노선을 통하여 연간 68BCM 규모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수출시장에서 극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 수준에서 20~25%, 금액 기준으로는 19.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권원순, “러시아 극동에서의 에너지자원 및 지역협력”, 『동아시아브리프』, 제3권 제3호 통권 11호, pp. 112-127., 2008.
- 김연규·유철중, “EU의 러시아에너지의존 탈피전략과 정책 : EU의 시각” 『슬라브학보』, 제 24권 4호, pp.313-342, 2009.
- 김영진, “러시아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The Status and Policy of the Russian Energy Industry)”, 『아태 쟁점과 연구』, Vol.3 No.1, 2008.
- 이난영, 『러시아의 대유럽 에너지 정책연구 : 북유럽가스관(Nord stream)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1.
- 이용권·이성규·윤익중, “러시아의 지역개발 전략과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 -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0집 2호, pp.1-27. 2007.
- 전홍찬, “러시아 에너지 외교에서 가스프롬의 역할(The Role of Gazprom in Russia's Energy Diplomacy)”,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7 No.2, pp. 203-229, 2007.
- 정우진, “러시아의 에너지정책변화와 동러시아 자원전략”, 『석유』, 제21권 제1호 통권 제 77호, pp. 113-136, 한국석유공사, 2005.
- 최용권,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2004.
- 한종만·성원용,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년.
- 한종만·정태익·김정훈 외, 『남·북·러 협력사업의 시발점 : 가스관 프로젝트』, 푸른길, 2012.
- 현승수·이용현, 『부활하는 러시아의 자원외교』, 일본유라시아연구소 편저, 전략과 문화, 2008.
- Aalto, Pami, “From Seperate Policies to Dialogue? Natural Gas, Oil and Electricity on the Future Agenda of EU-Russia Energy Relations,” CEURUS EU-Russia Papers, No 3. 2012.
- Arkonsuo Hannu, Russian Oil and Gas - Muldimensional Analysis from a European Perspective, Arewcon-Development Of Discussion Paper 150509, Helsinki, 2009.
- Bilgin, Mert, “Energy Security and Russia's Gas Strategy -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Firm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pp. 119-127. 2011.
- Bradshaw, Michael, “Russia's New Energy Frontier: The Way Forward”, Northeast Asia Energy Forum, Vol.6, No.4, Winter, pp.37-47, 2009.
- Buryk, Stephen, Russia's Natural Gas: The Strategy and the State Behind It, Lehigh Univ., 2010.
- Gira, Vytautas S. and Zivile Dambrauskaite, “The Arctic in Russia’s Foreign Policy and

- the
Baltic States,” *European Union Foreign Affairs Journal*, No.2, 2010.
- Göz, Roland, “Zentralasiatische Energieexporte, Zwischen russischer Dominanz, Diversifizierungsplänen der EU und neuen Märkten in Asien”, *Russland-Analysen*, Nr.137, Jun. 8, pp. 2–8, 2007.
- Helm, Dieter, *The Russian Dimension and Europe's External Energy Policy*, Univ. of Oxford, 2007.
- Jonter, Thomas & Viktorov, Ilja, (eds.), *Energy and Security in Baltic Sea Region*, Adita Vastra Aros, 2011.
- Konzelmann, Gerhard, *Oel und Gas, Im Netz der Konzerne*, Herbig Verlagsbuchhandlung, 2006.
- Liuhto, Kari, “Energy in Russia’s foreign policy”,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10, 2010.
- Mäkinen, Hanna, “The future of natural gas as the European Union’s energy source – risks and possibilitie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9, 2010.
- Pailliard, Christophe-Alexandre, “Gazprom, The Fastest Way to Energy Suiside,” *Russie. Nei. Vision*, No 17. IFRI Russia/NIS Center, 2007.
- Pözgen, Gemma, *Gasprom, Die Macht aus der Pipeline* (Hamburg: Europäische Verlagsanstalt, 2008.
- Rahr, Alexander, *Russland gibt Gas, Die Rückkehr einer Weltmacht*, Carl Hanser Verlag, 2008.
- Shadrina, Elena, “Russia's Foreign Energy Policy: Norms, Ideas and Driving Dynamic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18, 2010.
- Seidler, Christoph, *Aktisches Monoploy: Der Kampf um die Rohstoffe der Polarregion*, Deutsch Verlag-Anstalt, 2009.
- Soldatkin, Vladimir, “Putin Tells Russian Gas Exporters to Look East,” *Reuters*, Oct. 23, 2012.
- Stern, Jonathan P., *The Future of Russian Gas and Gazprom*,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Victor, David G.; Amy M. Jaffe; Mark H. Hayes(Eds.) *Natural Gas and Geopolitics From 1970 to 204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캐나다 북극지역 원주민의 언어권(言語權)¹⁾

서승현

1. 들어가는 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는 세계화에 의해 주도되는 핵심 역할, 즉 국가, 시장, 사상, 사회 및 사회의 상호 교류 분야에서 진행된 서구 주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목격했다. 특히 문화적 관습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리 담론이 확산되고 주장되고 있다(Brysk, 2002: Giddens 2002). 이 기간 동안 주창된 다양한 종류의 권리 가운데 언어 권리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능력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및 공식적 맥락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권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 소수 민족에 대한 권리 부여와 이들 그룹의 언어의 실제적인 활성화 및 유지에는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음이 분명하다. 본 기고문의 주된 관심사는 이러한 과정과 관련된 권리와 법적 담론의 인정과 부여가 현지 언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일상 언어에서의 더 작은 언어의 사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이다. 사회언어학 측면에서 이 질문은 '상향식 (Bottom-up)' 언어 계획의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즉, 토착 사회 자체의 참여와 이니셔티브는 언어 계획 노력에 대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통제한다(Hornberger, 1997: 356). 이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례 연구가 원주민 언어의 보호와 보존에 있어서 개인과 기관의 언어 관행의 복합적인 역할을 검토했다. 예를 들면 1999년 순수주의 담론과 진실성 문제 및 관련된 갈등에 대한 연구인 Hornberger and King(1999), Freeland and Patrick(2004)의 사례 연구, Henze and Davis (1999), May (1999), Aikman (2003) 그리고 McCarty and Zepeda (1995) 등이 그것들이다.

본 글에서는 Asad의 2003년 인권 분석에 근거하여,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담론적 관행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언어권을 권리 담론의 장으로 검토하고 출발점으로 삼고자한다. 언어 권리는 언어 관련 갈등을 규제하는 것이지 해결하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원주민의 언어와 다른 권리들을 정당하게 부여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캐나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원주민이나 '소수 민족'의 문화는 활동적인 구성원의 문화로 인정받고 있다.

저의 목표 중 하나는 원주민 토지 소유권 확보와 원주민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 추구하고 소수 민족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보 등 캐나다의 토착민 그룹과 프랑코 폰 소수 그룹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시적 담화와 관련된 실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 하나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정책 입안자와 소수 민족 언어의 일상적인 사용자가 보유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패권주의 담론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이 법

1) 본 기고문은 Donna Patrick(2005)의 "Language rights in Indigenous communities: The case of the Inuit of Arctic Québec"을 발췌, 요약, 보충한 글이다.

적 담론이 이러한 권리를 정의하고 이를 다른 그룹에 할당하는 비대칭적인 방식이다. 본고가 주장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거시적 담화와 권리의 한계와 더 작은 것, 즉 덜 사용되는 언어의 유지를 위해 남아있는 장애물을 이해하기 위해 그 안에 담겨있는 '언어'와 '문화'의 개념화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내에서 중점을 두는 곳은 퀘벡주의 내륙 지역인 누나빅(Nunavik) 또는 북극 퀘벡(Arctic Québec)의 이누이트(Inuit)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나다 내에서 이누크티투트어(Inuktitut)와 이누이트(Inuit) 문화의 출현은 각각 독특한 언어와 해당 문화의 홍보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내에서 어떤 형태의 자치권을 얻는 데 동원력을 이끌어내는 언어와 문화에 있어 민족간의 강력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 언어의 상황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Dorais and Sammons 2002; Dorian 1990; Woodbury 1984, 1998).

이누크티투트어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북극 퀘벡의 이누이트 사회에서 이누크티투트어 유지에 대한 권리 담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시적 수준의 권리, 법적-정치적 담론, 사회-문화적, 경제적 과정을 실제 언어 사용 패턴과 연결시키는 사회 언어학적 틀을 사용 한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개념화 할 때 합법적이거나 제도화 된 언어 공간과 비합법적이거나 모국어가 아닌 사회적 공간에서 만들어진 언어 시장에서 비롯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언어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 할 수 있다(Blommaert, Canagarajah).

2. 권리와 갈등 규제

Asad(2003: 8)는 '법률은 폭력을 항상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절대 폭력을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사하게, 언어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은 사회적 불의, 배타적 관습, 언어 자원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의 다른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과 같은 특정 갈등을 제거하기보다는 규제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민족 국가의 이익이 소수 민족 또는 원주민 그룹에 대한 언어 부여권과 충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일부 언어학자들은 양도 할 수 없는 인권의 한 가지로서 언어적 인권(LHR: Linguistic Human Rights)의 인정을 옹호 해왔다. 언어적 인권을 지지하는 한 가지 목표는 보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여 특정 집단의 언어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적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국가 기반법을 근거로 언어권에 관련한 '갈등 관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Asad는 다음과 같이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인권'개념에서 아주 역설적 인 것을 발견한다.

절대적 권리가 인간을 정의하는 개념은 국가적인 수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권리는 자연 상태와 관련이 있고 시민권의 개념은 계몽이론가들이 언급하는 정치 사회적인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보편적으로 묶는 도덕적 규칙을 포함한 인권은 '문화' 형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법의 인식과 적용은 개별 국가 또는 조약에 의해 묶인 여러 국가에 속한 사법 기관 및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구제 수단과 관련이 없으면 무의미하므로 정치적 주체로서 개인들이 누리는 시민의 정치 사회적 지위를 포함해야만 한다(Asad, 2003: 129).

Asad가 암시 한 것처럼, 인간의 권리가 사회적 불의를 제거하는 데 가질 수 있는 모든 역

할은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는 사회적 불의를 제거함에 있어 도덕적 호소와 효과면에서 심각하게 제한된다. 국가가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제정 할 때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종류의 권리를 가졌으며, 어떤 종류의 정치적 주체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집단들은 이러한 권리가 얼마나 손상 되던지간에 권리 행사력을 얻기 위해 더 큰 세력과 그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운다. 당연히 그러한 집단이 캐나다와 다른 곳에서 법원에 제기하고자하는 언어 및 기타 권리의 경우는 확고한 제도적 관행이나 태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불행히도 도전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실질적인 어려움, 이러한 도전이 성공적이지 않을 가능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불균형이 확립 될 가능성이 법적인 영역에서 펼쳐지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 왜냐하면 사실상 비교적 소수의 사회 불평등 사안들만 언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도전들이 단지 혼란스러운 결과만 낳았다. 그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이유는 법원을 통해서 언어와 다른 인권을 위해 싸웠다는 것, 이러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서로 다른 집단의 비대칭적인 처리 그리고 특히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 기반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3. 언어 및 문화적 권리 인정의 불균형

캐나다의 대법원과 다른 사례에 대한 간단한 고찰에서 비롯된 것은 캐나다의 원주민과 프랑스어를 쓰는 주민의 언어 문화적 이슈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이다. 기존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비대칭이 법적 영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 언어권 행사에서 있어서 '소수 민족' 언어에 의존하는 프랑스-캐나다 문화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단순히 법원의 판결에서 정의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러한 문화가 이미 있다고 인정했다. 프랑스-캐나다 문화는 소수민족 언어교육에 기금을 투자함으로써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Vallance, 2003: 17). 그러나 원주민 권리의 경우 해당 원주민 구성원은 특정 문화적 관습이 유럽과의 접촉 이전에 실시된 '전통적'인 것이라고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대법원 및 기타 법적 담론에 따르면 원주민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살아있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정적이고 고풍스러운 실재물을 보존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존 작업은 문화적이고 언어적 지식의 역사적인 형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깊이 영감을 받는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비대칭성은 캐나다 법원이 캐나다 정치 환경에서 원주민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 생겨났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국제화되고 포괄적인 원주민 의식'(Feldman, 2001 : 149)이 형성된 이후 캐나다에서 원주민의 정치 운동은 토지 소유권 주장의 해결, 캐나다 헌법에서 원주민 권리 인정,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에서의 원주민에 대한 더 중요한 역할의 성취 등이다. 이 정치적 과정은 캐나다 법원이 특정 권리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어떻게 권리를 정의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이것은 원주민 사회가 언어 및 문화 관련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사용하는 방법뿐

만 아니라 제도적 실천에 지배적인 법적 담론을 효과적으로 연결한 원주민 공동체 및 관행의 합법성과 진정성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 냈다. 예를 들어 학교와 같은 원주민 기관은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위임장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언어와 문화적 형태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전통적 과거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이데올로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현대 이누이트와 다른 원주민 사회에 스며드는 새로운 문화적, 언어적 형태의 정당화와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 북극 퀘벡(Arctic Québec)의 언어권(言語權) 및 언어교육

원주민 언어권 담론과 관련된 역설은 원주민 언어와 문화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일을 확실히 복잡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주민 단체들은 그들의 언어권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러한 언어를 홍보하는 것이 원주민의 문화와 지식의 보전에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원주민 단체와 공동체는 원주민의 언어 교육 권리에 대해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의 프랑스 소수민족 교육 권리를 얻기 위한 노력의 성공을 감안할 때, 소규모 언어집단은 소수민족어를 합법적인 학교기반 언어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방금 언급 한 것처럼 이러한 노력을 추구하는 명확한 이유 중 하나는 법적인 정치 담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언어와 문화의 보전은 원주민 단체가 원주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독특성을 증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추구한 또 다른 이유는 유럽-캐나다식 교육 과정에 완전히 의존하기 보다는 언어 커리큘럼과 교육에 대한 지역적 통제가 더 낫다는 것이다. 또한, 원주민에 관한 내용을 교육에서 보장해 주고 원주민 언어를 가르치는 현지 교사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해당 지역에 관한 지식을 육성하며 원주민 학생의 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원주민 언어 교육에 대한 통제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권리를 추구하려는 이러한 동기는 이 담론이 실제로 언어 이데올로기와 언어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 사회의 상징적인 물질적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정책과 실천 관점에서 언어와 문화의 정치화와 언어 교육에 대한 통제의 정도와 지역 사회 참여에 관한 지역 공동체의 진정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원주민 언어 권리에 대한 인식과 원주민 언어 교육을 위한 원주민 통제도 결코 캐나다에서 이러한 언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 할 수는 없다. 소수민족어 교육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독립적인 교육위원회의 기반 시설이 갖추어 지더라도 지역 사회와 교육 위원회는 언어 유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교육자, 커리큘럼 개발자 및 관리자는 언어 교육의 양과 내용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언어 및 문화 유지 정책을 개발 및 구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의 사회적 및 문화적 부수적인 결과에 대처하는 것이다(Tollefson 2002). 그러나 지금까지 원주민 언어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5. 언어 정책과 누나빅의 이누이트

특정 원주민인 누나빅의 이누이트족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이슈들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모든 원주민 언어 중에서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이누크티투트어는 원주민 언어 유지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누크티투트어는 캐나다에서 다음 세기까지 생존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Dorais, 1997; Patrick, 2003a: 3). 그러나 이누크티투트어를 보존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단순한 것들이 아니다.

누나빅의 이누이트족은 수년 동안 그들의 학교에서 이누크티투트어 교육을 받아왔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세계 각국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1960년대 퀘벡 언어 정책을 포함한 역사적인 요소가 합쳐져 가능해졌다. 프랑스 언어권(言語權)은 이 지방의 정치적, 정치적 목표와 얽혀 있었다.

이누이트족이 이누크티투트어 교육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때쯤인 1964년 소수 민족 언어에 대한 관심은 이미 국제적으로(유네스코를 통해) 그리고 퀘벡(Patrick and Shearwood, 1999)에서 모두 표현되었다. 이누크티투트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시작된 탈식민지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주의와 소수민족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장려하는 캐나다의 연방 관료들 사이의 증가하는 관심과 일치한다. 같은 기간 동안 개혁 지향적인 퀘벡 정부는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유지하며, 그곳에서 운영되는 연방 관료제를 자체 정부로 대체하기 위해 북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퀘벡 정부는 북극 지역과 그 곳에 거주하는 이누이트족을 부담으로 여겼던 방치 기간을 끝내고 공식적으로 1963년이 지역에서 통치권을 재확립하였고 1939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누이트족의 연방 정부에 대한 건강, 교육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Patrick 2003a: 103-104, Tester and Kulchyski 1994). 교육과 관련하여 이 방치 기간의 끝을 이끈 것은 이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 기관인 Générale du Nouveau-Québec (DGNQ)의 지시에 따라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 시스템의 일부인 영어와 함께 프랑스어 교육정책을 신속하게 구현한 것이다. DGNQ는 교육의 매체로서 이누크티투트어의 사용을 퀘벡주에서 가장 큰 이누이트 공동체인 Kuujuuaq(쿠우아크)에서 열린 1964년 공동체 회의 전까지는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그 1964년 회의에서 취학 연령의 아이를 갖은 이누이트 학부모가 처음으로 이누이트족이 이누크티투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연방 정부 및 퀘벡 정부 관료에게 질문했었다. 그 지방 당국은 퀘벡 자체가 자신의 지방과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에서 불어 교육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곧 강의 전달언어로 이누크티투트어의 사용이 북극의 퀘벡(Québec) 학교에서 현실화되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이누이트족의 관여는 1975년 제임스 베이 (James Bay)와 북부 퀘벡 협정(James Bay and Northern Quebec Agreement)이 타결된 이후에 실행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이누이트족과 이웃의 남부 크리(Cree)족, 그리고 연방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획기적인 토지 소유권 주장이 있었다. 이 협약은 이누이트족이 운영하는 학교 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학교의 첫 3년 동안 이누크티투트어로 강의하고(Patrick 2003a: 36-44), 그 다음해부터는 불어 또는 영어로 수업강의를 하고 이누크티투트어를 수강 과목으로 가르쳤다. 이누이트 문화 수업은 이누이트족의 가치관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의 일부로 자리 잡

았다. 덕분에 이누크티투트어와 이누이트 문화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며 향후 보존을 위해서는 더욱 제도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북방지역, 시베리아, 극동 토착소수민족의 명절

계용택

러시아 북방지역,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토착 소수민족들의 명절은 자연환경 및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달력의 시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켜지고 있다. 달력에 나타난 토착 소수민족들의 명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²⁾.

[1월]

1. “마아리쉬 축제”, 케메로브 주 타쉬타골 지역에서 개최되며 소수민족 청년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축제이다. 이 축제의 목적은 민족놀이 및 민족스포츠를 널리 알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정신도덕과 문화교육 향상에 있다.
2. “밀틱 축제” - 케메로브 주에서 열리는 사격축제 이다. 이 축제는 2007년에 복원 되어 매년 1월 19일에 타쉬타골 지역에서 개최된다.

[2월]

1. “2월8일 - 국제 사미족 단합 민족의 날”- 무르크만스크주, 무르만스크 및 사미족이 거주하는 여러 마을들에서 개최된다. 이날 시청에서 깃발 게양식 및 원탁회의가 열리고 박물관, 도서관등에서 전시회 개최 및 각종 콘서트가 열린다. 이 축제에는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러시아에 거주하는 사미족들도 참가한다.

이 축일의 역사를 보면, 1917년 이날에 노르웨이 <트론헤임>에서 최초의 사미족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대공국에서 거주하는 사미족 통합체가 결성되어 국경을 초월하여 사미족 상호간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1956년에 사미족 연맹이 설립되어 노르웨이 및 스웨덴, 핀란드에 거주하는 사미족의 이익을 대변하였으며 1992년부터 러시아거주 사미족 대표부가 소속되었다.

이 연맹의 회원들은 매년 열린 전체회의 <사미족 컨퍼런스>에 참여하였다. 1986년에 사미족의 국기와 국가를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

1992년 헬싱키에서 열린 15차 사미족 컨퍼런스에서 2월6일을 사미족 민족의 날로 확정하였다. 1993년에 스웨덴의 <이옥목>에서 최초의 축일을 기념하였다. 러시아 거주 사미족의 민족 역사는 다음과 같다. 1866년에 알렉산드르 2세 황제의 개혁활동 결과로 사미족 마을이 설립되었으며, 이 마을로 아르한겔스현 콜스크 마을이 들어가게 되었다.

2) <https://7x7-journal.ru/post/21868>

<그림 1> 순록사육의 날에 순록썰매 경기모습



2. “순록사육의 날”- 캄차크카 지방 올류토르 지역에서 기념 한다³⁾. 토착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명절로 순록사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젊은이들에게 전통지식의 전달 및 순록사육자의 위신향상을 목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3. “케메로보 주 토착 소수민족 체육대회” - 199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경기의 주도자는 2004년 세상을 떠난 <타쉬타골> 주민이며 광부인 니콜라이 마코로비치 이다.

4. “2월 21일 쇼르츠 민족어의 날”- 케메로브주 , 노보쿠즈네끄시. 국제적인 모국어의 날로 기념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2007년 부터 시작되었다.

5. “브이스트린 개썰매” - 브이스트린 지역 에스소 마을에서 기념한다. 이 경기는 개썰매 경기로 원형의 순환경주로에서 실시한다.“브이스트린 개썰매” 경기는 6마리의 개가 끄는 썰매를 사용하는 성인경기과 4마리의 개가 끄는 청소년경기 2가지가 있다. 성인경기에서 달리는 거리는 45킬로 미터이고 청소년경기는 25킬로미터 이다.

[3월]

1. “순록사육의 날”- 캄차트카 지방의 브이스트린 지역 에스소 마을에서 기념한다. 이 전통 명절에 순록썰매 경주를 비롯하여 북부지역 소수민족간의 각종 경기가 진행된다. 이날은 캄차트카 지방 북부지역에서 최우수자를 선발하는데 경기종목에는 2킬로미터 달리기, 손도끼 투척 경기, 점프게임, 개썰매 경주 등이 있다.

2. “장거리 개썰매 경주 <베린기야>”- 캄차트카 지방 에스소 마을에서 개최된다. “베린기야”는 전통적인 개썰매 경주로서, 에스소 마을에서 오스소르 마을까지 950킬로미터를 달린다. 이 경기 참가자들은 경주에 있는 마을을 지나면서 초봄의 도래를 거주자들에게 알린다.

개인 및 사업가, 기관들은 후원자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학교 및 어린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도 한다. 이 경기 출발지인 에스소 마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여기서 민족-양상불 공연 및 기념품 전시회-판매를 비롯하여 각종 오락 행사가 열린다⁴⁾.

3) <http://argumenti.ru/society/2015/03/390650>

4) <http://kam-kray.ru/news/2012/02/29/bystrinskiy-sprint-sport-i-tradicii.html>

<그림 2> 베린기야 축제에서 참가자들의 개썰매 경주모습



이러한 행사들은 “베린기야”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킨다.

3. “북방민족 축제” - 북방 및 시베리아, 극동 소수민족들의 전통적인 문화를 기념하는 독특한 축일이다. 북방민족 연구소 학생들과 20여개 소수토착민족 대표자들이 학습을 위해 페테르부르그에 도착하다. 이 축제는 학생들을 거대도시에 적응시키고 자신들의 작은 고향에 대한 애국심과 사랑을 고취시킨다. 또한 북방민족의 언어 및 전통, 문화의 발전과 유지, 인종과 국민간의 동일성을 조성시킨다.

토착소수민족들의 비교문화 프로그램에서 북방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고유문화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간 교류에 활성화에 기여한다. “환영식” 경연에서 참가자들은 비디오, 사진 등의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민족, 유명인사, 독특한 장소 등을 소개한다.

4. “쇼르츠족 민족명절 신년” - 3월 22일, 춘분점, 케메로브 주에서 기념한다. 이 축일의 각종 의식에는 전통적인 쇼르츠족 문화의 미학적인 측면과 민속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산악 쇼르츠족은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이날을 기념한다.

5. “토착민족 기념일” - 3월말, 사할린 주, 포로나이스크시에서 기념한다. 기념행사로는 예술 작품 축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민족그룹들의 공연 및 민족예술 수공업품 및 장식작품 전시회, 민족요리 특성 경연대회가 열린다. 그밖에 민족 스포츠 경연대회가 열리는 데 경기종목으로 장애물 넘어 달리기, 도끼 멀리 던지기, 멀리 삼단뛰기, 활쏘기,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줄다리기. 눈길 모바일스키 경주대회도 열린다.

6. “알타이 민족명절 춘분(질가이악)” - 알타이공화국에서 봄 춘분에 기념하는 축일이다. 풍습에 따르면 이른 아침 해맞이 의식을 하면서 축일이 시작된다. 이 의식은 마을의 원로들이 행한다.⁵⁾

처음에 “제례용 불”을 지피고 우유를 뿌려준다, 그리고 빵조각으로 “제례용 불”에 식사를 제공한 다음 풍년을 기원하는 소리를 낸다. 이후 스포츠 시합 및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스포츠

5) http://xn--90ao6b.xn----8sbwdbcc3abhth9e.xn--p1ai/?page_id=3471

경기종목에는 허리띠 싸움, 채찍으로 공을 쳐서 떨어뜨리기, 돌 올리기, 이인삼각 달리기 등이 있다. 또한 축제기간에 각각의 마을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민족음식 요리솜씨 경연에 참가한다. 그밖에 미녀선발대회 및 민족의상, 가보 자랑대회등도 열린다.

<그림 3> 알타이 민족명절 춘분(질가이악)행사 모습



7. “사냥꾼 축일” - 코미공화국, 이젠펙 지역에서 열린다. 이젠펙 지역 민족들은 사냥과 순록사육에 종사해 왔다. 이 축제의 목적은 사라진 사냥꾼들의 전통을 복원시키고 사냥문화 보존에 있다. 축제 사냥경기 대회에서 사냥꾼들은 창과 도끼를 목표물에 던지고 활을 쏜다, 또한 스키를 타고 산에서 이동하면서 장대를 사용하여 눈 쌓인 장벽을 통과한다. 이 밖에 사냥꾼 복장에 대한 경연, 노련한 사냥꾼 및 젊은 사냥꾼의 장애물 코스 경기, 스키 타기 경주 등이 있다. 이 축제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생활태도 형성을 위한 의식재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8. “사냥꾼 및 순록사육자의 날” - 이루쿠츠크 주, 카탄 지역에서 기념한다. 축제에서 사냥꾼 및 순록사육자들을 축하하고 사냥시즌 결산을 통하여 선물과 상패 등을 증정한다. 축제에선 순록 포획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냥경기가 개최되며 창작, 예술작품 공연도 열린다.

8. “북방 축제 -케르헬렘 페이브” - 무르만스크 주, 크라스노셀리에 지역에서 기념한다. 3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순록 포획 및 순록 줄다리기, 썰매타기, 투척, 개썰매 달리기, “사미족 전투” 등의 대회가 열린다.

9.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순록사육자 경기” - 3-4월에 개최된다. 이 경기에는 자치구 모든 지역의 순록사육자들이 참가한다.

10. 셀쿠프 민족의 전통적인 명절 “새들의 도착” -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크라스노셀리쿠프 지역에서 기념한다. 철새들이 이동하는 봄과 가을에 “새들의 도착”을 기념하는 전통의식이 행해진다. 축제기간에 첫 번째로 잡은 들새나 철새로 천신에게 공양하며 조속한 여름의 도래와 더불어 철새의 복귀, 모든 사람의 건강, 가을의 풍족한 수확을 기원한다.

[4월]

1. 한티족의 민족 명절 “까마귀의 날” - 4월 초, 네네즈 자치구에서 기념한다. “까마귀의 날”은 북방민족 토착원주민들이 기념하는 축일로 까마귀가 여자와 어린이를 보호한다고 믿었다. 까마귀는 북부지역으로 날아든 최초의 새들 중 하나로 원주민들은 까마귀를 자연과 삶에서 부활의 상징이라고 믿었다. 이 축일은 우랄과 야말 남부에 인접한 한티족 및 네네즈족들이 기념한다. 이 축일에는 초기 한티 민족의 세계와 자연, 종족의 관습, 전통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축일은 한티족의 중요 명절중의 하나로 봄의 도래와 새들의 도착, 새로운 생명의 탄생 등을 의미한다. 축제기간에는 공동의 전통의례, 교류, 휴식을 통하여 성스러운 장소에서 친족들을 만날 수 있다. 축일에 주신인 “흙 투름”과 집안의 영혼에 대해 숭배의식을 거행한다.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스카프, 두꺼운 천 조각, 의류용 직물 등을 선물 한다⁶⁾. 이날에는 모두 함께 노래와 춤을 추고 게임 등을 하면서 즐겁게 지낸다.

<그림 4> 한티족 무용수가 까마귀 복장을 하고 춤을 추고 있다



축제기간동안 한티족은 하늘, 중앙, 아래의 신들에게 숭배의식을 시행하고 자작나무가지에 직물 쪼가리나 리본을 걸어둔다. 한티족의 신앙에서 나무는 세계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2. 토착 소수민족 어린이 작품 축제 “엘림” - 케메로프 주, 미스키 지역에서 기념한다.
3. 개썰매 경주 “희망”, 추코트카 자치구, 개썰매 스포츠 경기.
4. 스포츠 축제 “베가” - 추코트카 자치구,
5. 순록사육자 체육문화 축제 “릴레트” - 추코트카 자치구.
6. 사미족 음악 축제 “모아이나스 란”- 4월 마지막 토요일. 무르만스크주 알레네고르스크 지역에서 기념한다. 사미족의 전통노래 축제 및 어린이 영화 축제 “이야기 나라”가 개최된다.

[5월]

6) <http://ethnic.ru/news/voronyi-den-pochemu-khanty-poklonyayutsya-vorone.html>

1. “새끼 순록 탄생” 축제 - 5월 초, 네네쯔 자치구에서 기념한다. 5월은 툰드라지역에서 야생의 약탈자와 나쁜 날씨 때문에 순록사육자들은 순록새끼를 보호하고 먹이를 잘 주어야만 한다. 순록은 네네쯔족에게 삶의 상징이며 새끼순록의 탄생은 삶의 지속을 의미한다. 경험이 있는 순록사육자들은 미리 임신한 순록을 위해 방목자리를 선택한다. 그곳은 눈과 얼음이 녹은 곳으로 많은 지의류가 있어 임신한 순록이 먹이를 찾기 위해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다.
3. 셀쿠프족의 전통적인 명절 “북방의 새벽” - “새들의 도착” 의식으로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타르코-살레 지역에서 기념한다.

<그림 5> 템버린 의식을 벌이고 있는 에벤족



[6월]

1. “사미족의 여름 운동회“ - 6월 2번째 토요일, 무르만스크 주에서 기념하며 스포츠게임, 음악회, 수공업품 전시회, 전통 음식경연 대회가 열린다.
2. “첫 물고기 수확 축제“ , 캄차트카 지방, 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차트스키이에서 행해진다. 이 전통적인 명절은 토착원주민이 캄차트카 하천에서 최초로 연어를 맞이한 날을 기념한다. 축제의 의식행사에서 첫 번째로 잡은 물고기를 환영하며 연못에다 데려다 놓고 자연과 불, 물에 공양물을 바친다. 축제 프로그램에서 민족전체의 음악회, 경연대회, 게임 등이 진행된다. 그밖에 민족 전통 헤어스타일 및 민족의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3. 에벤족 민속명절 “누르게넥”- 에벤족 달력에 따른 신년 맞이(하짓날) 명절로 캄차트카 지방, 아나브가이 마을에서 기념한다.⁷⁾

명절 전통에 따라 에벤족은 노간주나무 세례식과 불에 대해 공양의식을 거행한다. 축일 밤 정오에 템버린 소리에 맞춰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의식이 진행된다. 모든 참가자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둥글게 모여 “노르갈리”춤을 추게 되는데, 고리(원형)는 태양을 상징하고, 팔은 햇빛을 상징한다.

7) http://www.kamlib.ru/library.php?page=res6_kalin

<그림 6> 전통의상을 입은 유카기르족



5. 유카기르족 축일 “쇠할이베”- 태양과의 만남을 기념하며 사하공화국, 야쿠치아에서 기념한다. “쇠할이베”는 유카기르어로 모든 종족의 회의라는 의미이다. 축제는 불에 대한 공양으로부터 시작 된다. 마을 원로 남자는 태양과 불에 기원을 하며 짐승고기, 물고기 등을 공양한다. 이후 축제를 기념하는 연주회와 마을 거래시장이 열린다.

태양과의 만남에 앞서 남자와 아이들은 힘과 날렵함을 겨루는 시합을 가진다. 경기종목에는 투척,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짐승의 가죽덩어리로 만든 공을 사용하는 유카기르족의 축구시합 등이 있다.⁸⁾

축일 해맞이 행사에서 유카기르족은 독특한 모양의 아치형 문을 통과하면서 낙엽송 잔가지로 약하게 휘두르는데 이는 정화를 의미한다. 이후 한쌍의 무용수를 둘러싸고 참가자들은 윤무를 추기 시작한다.

[7월]

1. 전통적인 명절 “어민의 날”,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2. 한티족의 전통 민족명절 “한여름”,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8월]

1. “네네쯔족의 한여름 축일“, 야말로-네네쯔 자치구에서 축제는 8월초 한여름에 열리며 특히 어부들이 이 축제를 널리 기념하고 있다.
2. “에벤키족의 자연의 날”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 열리며 에벤키족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알림과 동시에 환경 및 민족-관광 발전을 도모한다.
3. “순록사육의 날”, 8월2일, 코미공화국, 이쵸프 지역.
4. 코미족의 축일 “일리아 선지자의 날”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5. 에벤키 전통 의례 명절 “만남”, 이르쿠츠크주, 카탄그 지역. 이 축제는 사냥시즌에 앞서 “니즈니 퉁구스카”강가에서 열린다. 에벤키족은 명절 의식에서 불에 공양을 드린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리본을 매달아 조상을 추모하고 노간주나무를 태워 신성한 연기를 만든다.

8) <http://yakutiakmns.org/archives/4274>

축일에 에벤키족은 자신들의 조상에게 풍족한 사냥 및 물고기 잡이를 비롯하여 친족 및 지인들에 대한 건강과 성공적인 한해가 되도록 기원한다. 이 축제기간에 민족 스포츠 경기 및 민족고유의 요리 경연대회가 열린다. 민속공예품 전시회 및 원형 집단 춤이 축제 마지막 날을 장식한다.

- 3. 극동지역 원주민 예술적 수공업 제품 축제 “살아있는 시간의 실”, 하바로프 지방.
- 4. 북방 토착소수민족의 작품 페스티벌 “황금의 샘” 캄차트카 지방.
- 5. 고래 축제 “폴리아”, 추코트카 자치구.
- 6. 야생 유용식물 축제 “어디서 약초가 자라는가”, 8월 마지막 토요일, 캄차트카 지방.

[9월]

- 1. “가을 민속게임”, 9월 첫 번째 휴일, 무르만스크 주.
- 2. “북부지방 민족들의 구비문학 축제“ -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 3. 이텔멘족의 전통축일 “알할랄라이”, 9월 상순, 캄차트카 지방, 코르반 마을에서 기념한다. “알할랄라이”는 이텔멘족의 가을명절로 여름의 마감을 기념하며 물고기, 육류, 쌀, 버섯 등의 자연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그림 7> 코랴족 전통명절 “홀롤로”에서 순록의 힘줄과 풀로 잔가지를 엮어 짐승모양을 만들고 있다



[12월]

- 1. 코랴족의 전통 명절 “홀롤로”⁹⁾, 11월-12월 캄차트카 지방, 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차트스키 지역에서 기념한다, 이 명절은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행사가 치루어진다. 해안 거주 코랴족들은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사냥에서의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명절을 준비한다, “홀롤로”는 바다짐승들이 내는 소리를 모방한 것이다. 축일에 가정부인들은 손님을 맞이하여 풀을 나누어 주며 민족음식을 대접한다. 명절의 주요행사로 민족음악을 연주한다. 그리고 이명절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행운의 나무”만들기 의식을 시행한다. 각각의 사람들은 어린나무가지를 모아 곱, 양 모양을 만들어 순록의 힘줄과 풀로 감싸 묶는다. 그밖에 곱 마스크를 쓰고 춤을 추면서 악령을 몰아내기도 한다.

9) <http://www.folkcentr.ru/koryakskij-obryadovyj-prazdnik-xololo-ololo/>

**북극권 관련 뉴스
(2017.12.21 - 2018.03.21. 최신 뉴스순 정리)**

계용택

| |
|--|
| 2018-03-21 http://www.kommersant.ru/doc/3579197 |
| ☞ 러시아는 북극 경제수역 확장 신청에 대한 유엔의 결정을 2018년말 이후로 기대하다 |
| 2018-03-15 http://fishretail.ru/news/karskoe-more-obladaet-bolshim-potentsialom-dlya-384150 |
| ☞ 북극의 산업발전에서 카르해는 큰 잠재력을 보유하다 |
| 2018-03-12 http://www.interfax.ru/russia/525386 |
| ☞ 프란쯔-이오시프 지역이 러시아 북극지역 국립공원에 소속되다 |
| 2018-03-02 http://www.itar-tass.com/nauka/5001692 |
| ☞ 러시아 기초연구펀드는 2018년 북극조사에 20퍼센트 증가한 금액을 지원하다 |
| 2018-03-02 http://www.itar-tass.com/nauka/5002004 |
| ☞ 튜멘의 학자들은 북극에 지하의 저온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장고 건설을 제안하다 |
| 2018-03-01 http://www.itar-tass.com/obschestvo/4994195 |
| ☞ 2월에 유럽보다 북극이 높은 온도를 기록하다 |
| 2018-02-16 http://fishretail.ru/news/rosribolovstvo-i-fano-budut-sotrudnicat-v-izuchenii-arktiki-383094 |
| ☞ 러시아 어업협회와 연방학술기관 협회는 북극연구에 협력을 할 것이다 |
| 2018-02-16 http://www.itar-tass.com/sport/4964451 |
| ☞ 야말로-네네쯔 자치구가 제안한 북극 겨울올림픽 이행 신청서에 대한 심사에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태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 2018-02-14 http://www.kommersant.ru/doc/3548354 |
| ☞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군대주둔을 확대하다 |

2018-02-13 <http://www.kommersant.ru/doc/3547663>

☞ 러시아 환경자연부는 북극에서의 LNG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제한을 제안하다

2018-01-26 <http://interfax.com.ua/news/economic/480158.html>

☞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극에서의 극지비단길 구축의향을 밝히다

2018-01-26 <http://www.kommersant.ru/doc/3529455>

☞ 러시아와 미국은 북극에서의 선박통행 시스템을 개발하다

2018-01-16 <http://interfax.com.ua/news/economic/477184.html>

☞ 노르웨이는 앞으로 4년간 북극에서의 시추 및 지질조사를 금지하다

2018-01-04 <http://www.kommersant.ru/doc/3514291>

☞ 트럼프는 대서양 및 북극에서 시추활동 허가를 계획하다

2017-12-25 <http://echo.msk.ru/news/2116916-echo.html>

☞ 러시아 국방부는 북극에 새로운 단거리 대공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계획하다

2017-12-21 <http://www.itar-tass.com/nauka/4828885>

☞ 북극의 해빙현상은 북극의 동식물 성장을 방해하다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통계자료¹⁾

백영준

1. 서론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극항로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극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말로-네네츠 자치구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를 이용해 천연가스 수송계획을 가지고 있다(야말 LNG 프로젝트).

2017년 8월 17일 러시아는 대우조선에서 건조한 7만5천톤급 자체 쇠빙 능력을 보유한 LNG 수송 선박 '크리스토퍼 데 마르제리(Christophe de Margerie)'호를 이용해 야말반도의 천연가스를 한국 보령까지 약 19일 만에 빠르게 수송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를 이용한 자원 수출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았다.¹⁾

한국 역시, 2017년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북극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²⁾

현재 한국에서는 2014년 러시아에서 수주한 야말 프로젝트에 필요한 15척의 LNG 수송선박 중에서 중 5번째 선박인 블라디미르호가 4월 중 발주될 예정이다.³⁾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항로의 개척과 자원의 판로를 찾고 있고,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입의 다각화 측면과 선점효과 및 미래 성장동력 개발 측면에서 해당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극항로와 북극지역 자원의 개발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에 있어 상호 이익의 접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지역에 대한 분석을 2회(1회 해당지역 통계자료/2회

1) 이 글은 러시아 통계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А 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7. 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1) 백영준, “배는 다닐 수 있는가? “북극항로”의 가능성” 『북극연구 11호』 겨울호 p.99.

2)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문재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전문” <https://goo.gl/CFrHwt> (검색일: 2018년 3월 30일)

3) 헤럴드 신문,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강한 관심” <https://goo.gl/8V982v> (검색일: 2018년 3월 30일)

야말로-네네츠 프로젝트)에 걸쳐서 작성해보려고 한다.

2. 개괄

<그림 1>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위치



인구밀도: 1 км² 0.7명 (2017년1월 기준)

도시 및 정착촌: 55개 (2017년 1월 기준)

지방자치 구 (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йоны) - 7 개

도시 구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 6개

도시 정착촌 (городские поселения) - 6개

농촌 정착촌 (сельские поселения) - 36개

면적 - 769,3 천км²

북쪽 - 북극성 기후

중앙 - 아 북극성(해양성)기후

남쪽 - 북극-대륙성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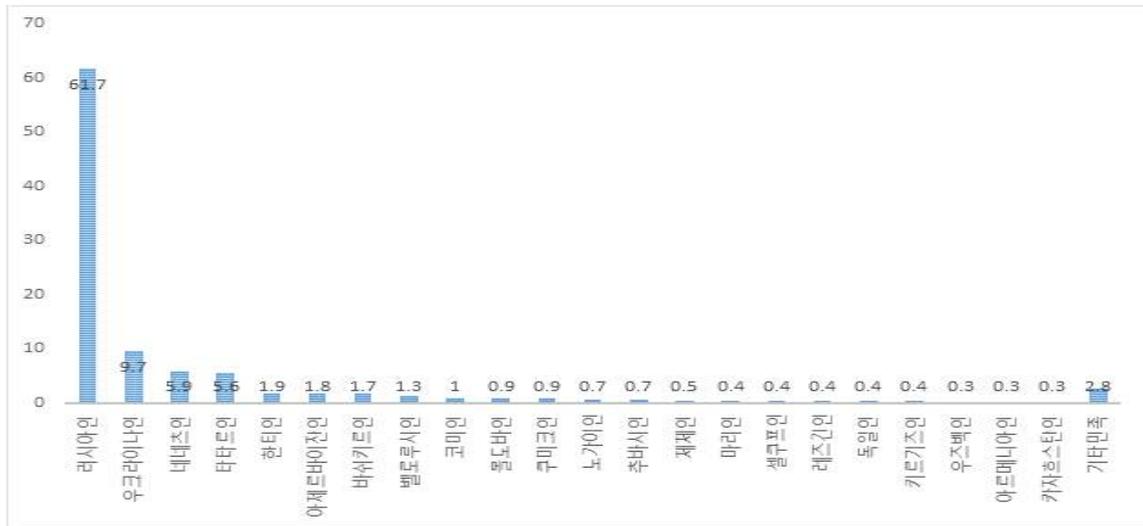
2016년1월 중간 온도: -20.1°C

2016년 7월 중간 온도: +18.0°C

인구 (2017년 1월 기준) 단위: 천명

전체인구 —53만6천명
 도시인구 —44만8천8백명
 농촌인구 — 8만7천2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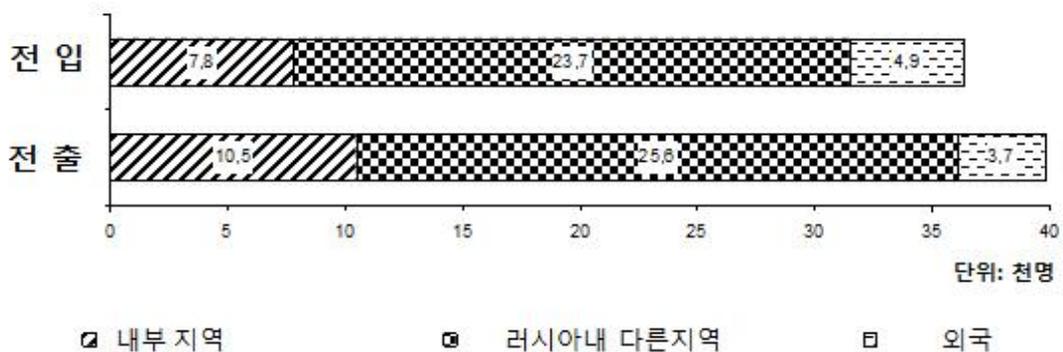
<표 1>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의 인구구성 (2010년 10월14일 인구조사 기준)



자치구내 도시 순위 (2017년 1월기준) (단위: 천명)

- 살레하르트(Салехард) - 48.5명
- 노브이 우렌고이(Новый Уренгой) - 113.3명
- 나야브리스크(Ноябрьск) - 106.9명
- 나딤(Надым) - 44.7명
- 무라블렌코(Муравленко) - 32.5명

<표 3> 2016년 주민의 주요 흐름



3. 2016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경제

2015년 지역상품의 총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경제활동:

광물채광 — 54.9%; 건설 — 11.6%; 상품의 도매 및 소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생활 용품 및 개인용품 — 9.4%; 운송과 통신 — 8.6% 등.

2015년 비교된 산업 생산 지표는 106%로 상승하였으며, 각 부분 별 상황을 살펴보면, «광물 채광» — 106.3%, «제조» — 104%, «전기, 가스 및 수도의 생산 및 유통» — 106.1% 등이다.

자체 생산품의 운송량, 광물 채굴 작업 및 서비스 수행지역으로 전체 러시아연방공화국 행정주체 중에서 2위에 해당하며, 제조 산업은 5위, 전기, 가스 및 수도의 생산 및 유통은 4위이다.

이 지역의 러시아 천연 가스 및 가스관련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농촌의 주요 산업은 순록 및 가축 사육, 모피교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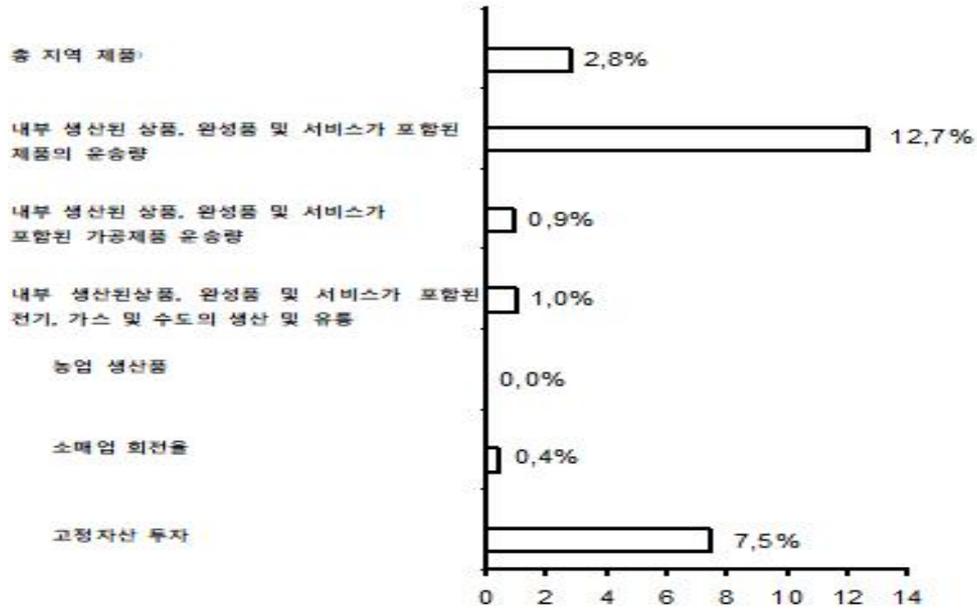
소매 매출액은 1,226억 루블로 2015년 대비 88.5%에 해당하며, 1인당 소매 회전율로 볼 때 러시아 전체 6위이다(2015년 — 3위). 본 연방구의 소매 무역 매출액 구조에서 음료 및 담배 제품을 포함한 식품의 비중은 44.9 %이며, 비 식료제품은 55.1%이다(2015년에는 48.6과 51.4%).

식료품 유통과 관련한 연간 총 비용은 126억 루블로 2015년 대비 87.6%에 해당한다. 손익 대비 총재무결산액은 604,478만 루블에 달했다. 이 지역 경제분야에 투여된 재정규모는 1,170,816백만 루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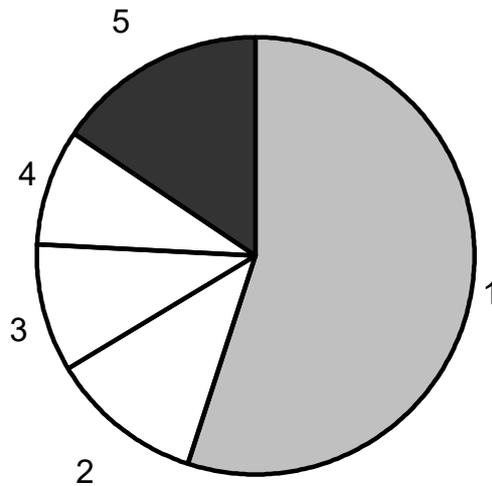
고정 자산 투자 규모는 23.1 %가 차입금으로 76.9 %를 차입했다.

이 중 러시아 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의 잔고는 1,493 백만 달러였다. 자치구의 대외 무역 회전율은 수출16억 7830만 달러를 포함한 67억6310만 달러에 달했다.

<표 4> 러시아 기본 경제 지표에서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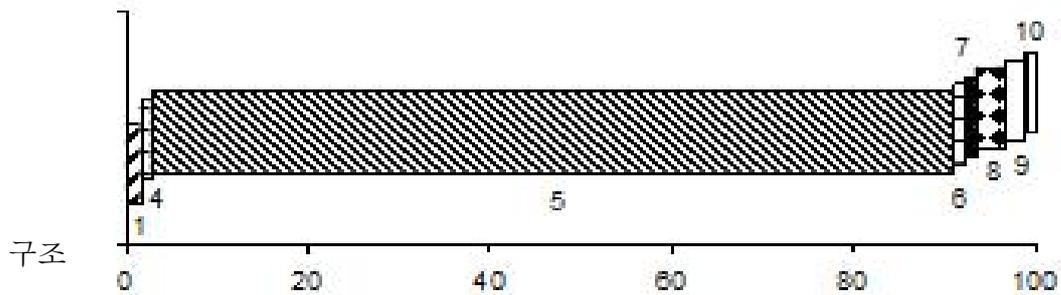
<표 5> 활동별 총 지역 상품의 구성: (현재 기본가격)



주:

- 1 - 자원 채광 (54,9%)
- 2 - 건축업 (11,6%)
- 3 - 도소매업, 자동차, 오토바이, 가정용 제품 및 개인용품 수리 (9,4%)
- 4 - 운송 및 통신 (8,6%)
- 5 - 기타 활동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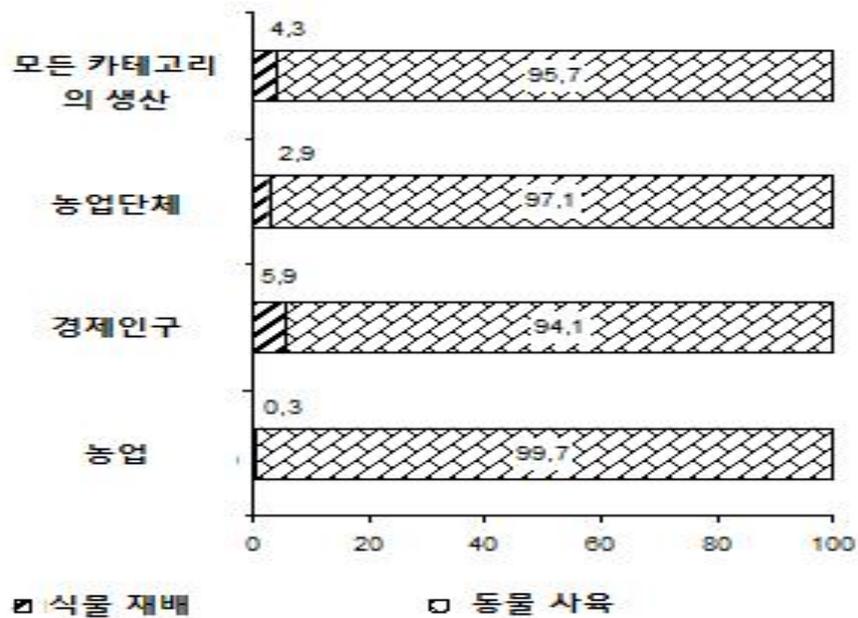
<표 6> 내부 생산된 상품, 완성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운송량의 분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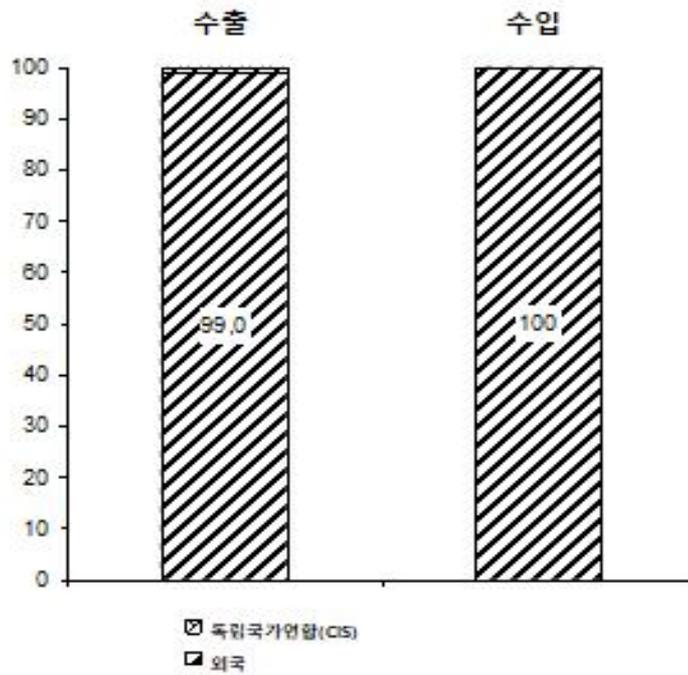
주:

- 1 -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 식품 제조 (0,6 %)
- 2 - 섬유 및 의류 제조, 가죽, 가죽 제품 생산 및 신발류 생산 (0.0 %)
- 3 - 목재 가공 및 목재 제품 제조 (0,0 %)
- 4 - 펄프 및 제지 산업; 출판 및 인쇄 (0.1 %)
- 5 - 코크스 및 석유 제품 생산, 화학 제품 생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94.3 %)
- 6 -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0.4 %)
- 7 - 금속 및 금속으로 만든 제품 (0.1 %)
- 8 - 기계, 차량 및 시설 장비 제조 (3.2 %)
- 9 - 전기, 전자 및 광학 장비 제조(1.2 %)
- 10 - 기타 유형의 제조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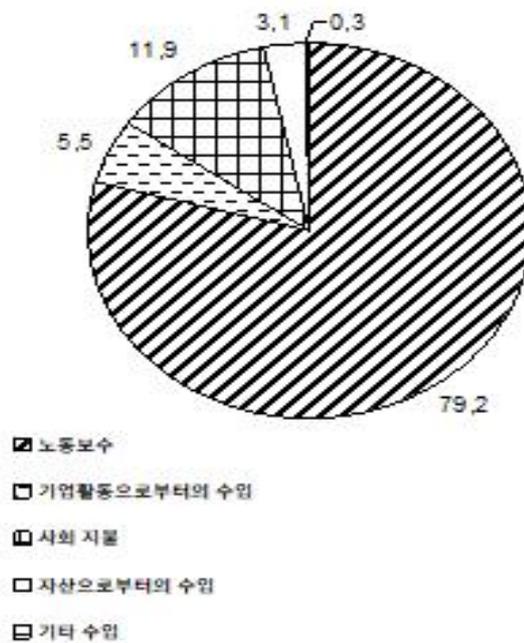
<표 7> 농촌에서의 작물재배와 축산의 생산비중



<표 8> 대외무역구조



<표 9> 주민의 수입구조: (인구 총 수입량으로부터 퍼센트)



주요 사회-경제 지표⁴⁾

| | 2005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인구 | | | | | | | | |
| 인구수(연말 기준), (단위: 천명) | 517,4 | 524,9 | 536,6 | 541,6 | 539,7 | 540,0 | 534,1 | 536,0 |
| 포함한: | | | | | | | | |
| 남성 | 258,6 | 260,1 | 270,0 | 273,6 | 271,2 | 270,7 | 264,9 | 265,5 |
| 여성 | 258,8 | 264,8 | 266,6 | 268,0 | 268,5 | 269,3 | 269,2 | 270,5 |
| 인구수로부터 노동가능 연령 인구 (단위: 천명) | 375,3 | 367,6 | 376,1 | 376,8 | 370,2 | 365,2 | 353,5 | 349,1 |
| 인구 1천명당 출생자수 | 13,9 | 15,8 | 15,6 | 16,8 | 16,6 | 16,9 | 16,6 | 15,4 |
|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 | 6,0 | 5,5 | 5,4 | 5,4 | 5,1 | 5,1 | 5,3 | 5,3 |
| 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 감소(-) | 7,9 | 10,3 | 10,2 | 11,4 | 11,5 | 11,8 | 11,3 | 10,1 |
| 기대수명 (출생 시) | | | | | | | | |
| 전체인구 | 67,58 | 70,05 | 70,16 | 70,66 | 71,23 | 71,92 | 71,70 | 72,13 |
| 남성 | 61,99 | 65,59 | 65,62 | 66,26 | 66,53 | 67,02 | 66,90 | 67,15 |
| 여성 | 73,72 | 74,57 | 74,88 | 75,15 | 75,88 | 76,86 | 76,37 | 77,01 |
| 노동 | | | | | | | | |
| 연평균 노동자 수 (단위: 천명) | 359,7 | 367,8 | 370,5 | 374,5 | 377,8 | 377,2 | 393,8 ¹⁾ | 403,0 ¹⁾ |
|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고용된 노동자 수 (단위: 천명) | 10,5 | 11,5 | 11,3 | 11,2 | 11,5 | 15,3 | 15,5 | 15,2 |
| 실업자 수(단위: 천명) | 22,3 | 13,4 | 11,3 | 11,4 | 10,3 | 10,3 | 11,3 | 8,4 |
| 실업률 (%) | 7,2 | 4,3 | 3,5 | 3,4 | 3,2 | 3,1 | 3,6 | 2,6 |
|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에 적절한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청한 실업자 수(연말 기준)(단위: 천명) | 9,1 | 5,5 | 4,3 | 2,9 | 2,7 | 3,0 | 3,6 | 3,6 |
| 위의 기준으로부터 실직자 | 8,6 | 5,3 | 3,9 | 2,6 | 2,2 | 2,4 | 2,9 | 2,9 |
| 생활수준과 사회분야 | | | | | | | | |
| 일인당 평균 수입 (월간) 루블 | 22231 | 43367 | 46785 | 52585 | 58040 | 61252 | 66795 | 67521 |
| 인구의 실질 수입 퍼센트 (전년도 비율) | 101,0 | 100,4 | 103,8 | 110,6 | 105,1 | 98,4 | 98,4 | 94,2 |
|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월간) 루블 | 10920 | 21441 | 24079 | 25997 | 27465 | 28925 | 29580 | 28701 |
| 기관 노동자의 월평균 명목 월급 루블 | 27534 | 52619 | 59095 | 63696 | 69192 | 74489 | 77272 | 83238 |
| 연금의 평균 크기(2016년 일괄 지급을 고려한 2017년1월 기준) 루블 | 3917 | 11513 | 12644 | 13943 | 15332 | 16672 | 18446 | 23805 |
| 지급 받는 연금의 실질 크기 (퍼센트) (전년도 비율) | 108,2 | 111,8 | 107,1 | 106,1 | 102,9 | 101,2 | 102,9 | 122,5 |
| 러시아 연방 연금 기금 시스템에서 등록 된 수급자 수(단위: 천명) | 88 | 111 | 116 | 119 | 124 | 129 | 133 | 137 |
| 지역 전체 인구에서 최저 생활 수준 이하의 현금 소득을 얻는 인구 점유율 (%) | 8,4 | 7,3 | 7,4 | 6,4 | 6,6 | 6,9 | 7,5 | 7,4 |

4) 러시아에서는 퍼센트(%)를 쓸때 .(점)이 아닌 ,(кома)를 사용한다. 또한 숫자를 셀 때에 ,(кома)가 아닌 .(점) 혹은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점에 유의

계속되는 표

| | 2005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1인당 평균 거주지의 총 면적(연말기준), (단위: M ²) | 17,8 | 19,2 | 19,0 | 19,0 | 19,6 | 20,0 | 21,3 | 21,2 |
| 도시 정착촌 | 18,0 | 19,3 | 19,0 | 19,7 | 19,8 | 20,2 | 21,7 | 21,5 |
| 농촌 지역 | 16,4 | 18,4 | 18,6 | 15,6 | 18,6 | 18,9 | 19,3 | 19,7 |
| 주택 및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지원의 사용자 수 (단위: 천명) | 59,3 | 82,1 | 83,2 | 95,2 | 102,4 | 107,7 | 114,6 | 118,7 |
| 1인당 평균 월간 사회적 지원 금액, (단위: 루블) | 562 | 1207 | 1316 | 1016 | 1028 | 986 | 988 | 1046 |
| 주택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 한 가족 수, (단위: 천명) | 9,8 | 5,6 | 6,0 | 5,1 | 4,1 | 4,0 | 4,2 | 4,8 |
| 가족 당 평균 월 보조금, (단위: 루블) | 1549 | 2576 | 2682 | 2133 | 2263 | 2162 | 2135 | 2303 |
| 취학 전 교육 기관에 등록된 아동 수 2) | | | | | | | | |
| 총 숫자 | 6510 | 14643 | 16163 | 17369 | 17416 | 17549 | 16506 | 16091 |
| 아동 1천명당 1-6세 | 162 | 327 | 353 | 376 | 356 | 352 | 322 | 304 |
| 취학 전 교육, 해당 연령의 어린이 수 대비 퍼센트 | 70,0 | 67,1 | 67,4 | 69,3 | 69,1 | 72,9 | 75,7 | 74,5 |
| 초등, 중등 일반교육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조직의 수(학기 초 기준) | 149 | 137 | 136 | 135 | 134 | 132 | 132 | 121 |
| 초등, 중등 및 일반 교육과정의 학생 수 (단위: 천명) | 78 | 69 | 69 | 68 | 68 | 69 | 70 | 72 |
| 서비스 또는 숙련된 일군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수(단위: 천명) | 3,6 | 3,2 | 3,2 | 2,9 | 2,8 | 2,7 | 2,5 | 2,2 |
| 중급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수 (단위: 천명) | 4,6 | 5,6 | 5,9 | 6,0 | 3,5 | 5,3 | 6,0 | 6,9 |
| 이들을 위한 국가 그리고 지방의 전문 교육 기관 | 4,6 | 4,6 | 4,9 | 4,9 | 2,5 | 4,3 | 4,9 | 5,9 |
| 학사, 석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수(단위: 천명) | 14,7 | 11,6 | 10,4 | 8,5 | 7,3 | 5,6 | 2,6 | 1,6 |
| 이들을 위한 국가 그리고 지방의 교육기관 | 11,5 | 8,0 | 7,1 | 5,7 | 4,7 | 3,3 | 1,6 | 1,6 |
| 의사의 수: | | | | | | | | |
| 전체 (단위: 천) | 2,7 | 2,7 | 2,6 | 2,6 | 2,6 | 2,6 | 2,7 | 2,7 |
| 인구 1만명 당 | 53,0 | 51,2 | 48,7 | 48,1 | 49,1 | 47,2 | 50,3 | 50,5 |
| 의료 종사자의 수 | | | | | | | | |
| 전체 (단위: 천) | 7,3 | 7,3 | 7,2 | 7,1 | 7,1 | 7,0 | 7,5 | 7,5 |
| 인구 1만명 당 | 141,5 | 139,5 | 134,3 | 130,8 | 131,0 | 129,6 | 140,7 | 139,9 |
| 병원 수 | 47 | 28 | 27 | 27 | 24 | 23 | 22 | 23 |
| 침상 수: | | | | | | | | |
| 전체 (단위: 천) | 6,0 | 5,2 | 5,2 | 5,1 | 4,9 | 4,6 | 4,6 | 4,4 |
| 인구 1만명 당 | 116 | 100 | 96 | 94 | 90 | 85 | 86 | 82 |
| 외래 진료 기관 수 | 102 | 40 | 38 | 37 | 36 | 74 | 90 | 71 |
| 외래 진료기관 역량 및 방문 수 | | | | | | | | |
| 전체 (단위: 천) | 12,6 | 10,8 | 11,2 | 10,5 | 10,9 | 11,4 | 12,9 | 13,4 |
| 인구 1만명 당 | 244 | 207 | 209 | 195 | 201 | 211 | 242 | 249 |
| 등록 된 범죄 건수 : | | | | | | | | |
| 전체 (단위: 천) | 13,5 | 9,6 | 9,4 | 9,1 | 9,2 | 9,0 | 9,6 | 8,0 |
| 인구 1만명당 | 2615 | 1836 | 1770 | 1692 | 1692 | 1669 | 1789 | 1495 |
| 전체 지역 제품 | | | | | | | | |
| 총 지역 생산량 : | | | | | | | | |
| 전체 (단위: 백만 루블). | 441722 | 782215 | 966110 | 1191272 | 1375879 | 1633382 | 1813393 | ... |
| 인구 1 인당, (단위: 루블) | | | 1820301 | 2209803 | 2544898 | 3025746 | 3376613 | ... |
| 총 지방 생산량, (전년도 대비, %) | 101,2 | 110,1 | 102,7 | 102,2 | 103,9 | 105,7 | 98,1 | ... |

계속되는 표

| | 2005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고정자산 | | | | | | | | |
| 실제 고정자산 ³⁾ (연말기준, 백만루블) | 2088400 | 4699979 | 5687176 | 6737214 | 6693967 | 7827582 | 8387662 | 10219150 |
| 고정자산운영 (백만 루블) | 135420 | 268724 | 457432 | 673487 | 330399 | 556008 | 479610 | 945199 |
| 고정 자산 감가 상각률 4) (연말 기준, %) | 50,7 | 57,0 | 56,9 | 55,2 | 57,4 | 58,5 | 59,6 | 58,8 |
| 완전 무형 고정 자산의 비중 4) (연말 연시, 고정 자산 총액 대비 백분율) | 15,3 | 17,6 | 17,8 | 16,8 | 18,1 | 19,1 | 20,5 | 20,3 |
| 투자 | | | | | | | | |
| 고정 자산 투자 (실제 가격), 백만 달러. | 141234 | 387696 | 477145 | 581010 | 603194 | 754187 | 779406 | 1097130 |
| 고정 자산 투자의 물리적 크기 지수 (전년 대비, %) | 80,0 | 99,8 | 112,6 | 116,7 | 99,3 | 118,5 | 87,4 | 122,5 |
| 총 투자에서 예산 자금으로 조달 된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 | 9,7 | 3,3 | 5,6 | 7,9 | 5,7 | 4,5 | 23,0 | 2,8 |
| 연방 예산의 포함된 계산 | 0,1 | 0,05 | 0,1 | 0,1 | 0,1 | 1,4 | 21,2 | 1,7 |
| 기업 및 조직 | | | | | | | | |
| 기업 및 조직 수 (국가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연말 기준) | 12292 | 12033 | 11412 | 11440 | 11690 | 11485 | 11849 | 11986 |
| 중소기업 수 5) (연말기준) | | 4104 | 6785 | 6812 | 6621 | 7106 | 4140 | 6207 |
| 광물채광, 가공제조, 가스 및 수도의 생산 및 유통 | | | | | | | | |
| 자기 제품의 선적 물량, 활동 종류별로 자력별로 수행 된 업무 및 서비스.(백만루블) | | | | | | | | |
| 광물채광 | 364787 | 558134 | 671459 | 890918 | 1054857 | 1146823 | 1354152 | 1495221 |
| 제조업 | 27073 | 71151 | 97675 | 115409 | 126393 | 156798 | 295942 | 322287 |
| 전기, 가스 및 수도의 생산 및 유통 | 13366 | 32847 | 35527 | 41034 | 48683 | 49734 | 49234 | 55464 |
| 산업 생산 지수 6), (전년도의 대비) | 98,0 | 104,7 | 102,2 | 99,5 | 106,2 | 100,0 | 104,5 | 106,0 |
| 활동 유형별 생산 지수, (전년대비 %) | | | | | | | | |
| 광물채광 | 97,6 | 103,9 | 101,0 | 97,8 | 103,7 | 98,0 | 100,2 | 106,3 |
| 제조업 | 106,1 | 111,7 | 110,0 | 109,6 | 111,0 | 113,1 | 139,0 | 104,0 |
| 전기, 가스 및 수도의 생산 및 유통 | 96,4 | 108,6 | 109,9 | 110,9 | 135,5 | 105,1 | 94,3 | 106,1 |
| 농업 | | | | | | | | |
| 모든 카테고리의 농장에서 농산물 (실제 가격), (백만 루블) | 497 | 1201 | 1600 | 1641 | 1647 | 1640 | 1616 | 1745 |
| 전년도 대비 모든 카테고리의 농장에서 농산물 생산 지수 (백분율) | 86,8 | 102,7 | 112,6 | 102,1 | 92,8 | 92,3 | 99,7 | 100,0 |
| 모든 종류의 농장에있는 모든 농작물의 파종 면적, (천 헥타르)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 모든 범주의 농장에서 농작물 재배 면적, 총 수확 면적의 백분율 : | | | | | | | | |
| 감자와 야채와 곡물 | 81,8 | 100 | 100 | 100 | 95,8 | 95,6 | 96,0 | 95,5 |
| 사료 작물 | 18,2 | - | - | - | 4,2 | 4,4 | 4,0 | 4,5 |
| 모든 카테고리 농장의 가축 수 (연말기준), (단위: 천마리) | | | | | | | | |
| 소 | 1,1 | 1,0 | 1,0 | 1,0 | 1,1 | 1,1 | 1,0 | 1,1 |
| 소를 포함한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0,6 |
| 돼지 | 1,6 | 2,2 | 2,3 | 2,7 | 1,5 | 1,3 | 1,1 | 0,9 |
| 양과 염소 | 0,1 | 0,1 | 0,0 | 0,1 | 0,1 | 0,1 | 0,1 | 0,1 |

계속되는 표

| | 2005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카테고리 (단위: 천) | | | | | | | | |
| 감자 | 0,9 | 1,0 | 1,0 | 1,0 | 1,1 | 1,1 | 1,3 | 1,3 |
| 채소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 도축된 가축 및 가금류 | 2,7 | 4,5 | 4,9 | 5,1 | 4,8 | 4,3 | 4,4 | 4,4 |
| 우유 | 1,8 | 1,9 | 1,9 | 2,1 | 2,0 | 2,1 | 2,0 | 1,9 |
| 계란 (백만 개) | 0,1 | 0,1 | 0,2 | 0,4 | 0,1 | 0,1 | 0,1 | 0,4 |
| 건설 | | | | | | | | |
| 활동하는 건설회사 수 | 769 | 1245 | 1622 | 1743 | 1591 | 1615 | 925 | 1369 |
| 시행된 건설활동(실제가격) (단위: 백만루블) | 61704,6 | 179857,3 | 156558,9 | 165026,2 | 141827,6 | 151154,8 | 138303,3 | 177220,5 |
| 시행된 건설활동의 물리적 크기(전년대비) (퍼센트) | 77,8 | 88,4 | 78,0 | 100,6 | 82,2 | 100,9 | 76,9 | 119,3 |
| 총주거 면적 중 주거용 건물 (단위:천 m ²) | 183 | 140 | 168 | 198 | 246 | 271 | 297 | 228 |
| 상시 거주인에 의해서 지어진 주거(퍼센트) | 9,3 | 17,5 | 19,5 | 12,8 | 14,0 | 12,4 | 10,5 | 10,9 |
| Ввод в действие мощностей: | | | | | | | | |
| 유치원 교육 기관, | 50 | 400 | - | 655 | 1470 | 420 | 600 | 480 |
| 지역 교육 기관, 학생을 위한 장소 | 2870 | 1280 | - | 960 | 1300 | 350 | 220 | 728 |
| 병원, 침상 | 320 | - | 40 | 25 | 67 | 55 | 162 | - |
| 의뢰진료 기관, 방문 수 | 205 | - | 166 | 230 | 150 | 175 | - | - |
| 상업 과 서비스업 | | | | | | | | |
| 소매업 회전을 (실제 가격 기준) : | | | | | | | | |
| 천체 (백만 루블) | 47788 | 87534 | 98811 | 108559 | 119857 | 127136 | 131876 | 122658 |
| 1 인당, (단위: 루블) | 92616 | 166879 | 186174 | 201376 | 221694 | 235512 | 245559 | 229235 |
| 전년 대비 소매 판매 회전의 물리적 크기 지수 | 120,0 | 94,0 | 104,1 | 107,0 | 105,2 | 100,0 | 90,8 | 88,5 |
| 대중 음식점의 회전을 (실제 가격), (단위: 백만 루블) | 5826 | 11608 | 11364 | 11695 | 13275 | 13984 | 12968 | 12626 |
| 취사 전환율의 물리적 크기 지수 (전년 대비 %) | 113,9 | 97,0 | 93,4 | 98,9 | 102,8 | 97,2 | 87,4 | 87,6 |
| 인구 대비 유료 서비스의 크기(실제 가격, 백만루블). | 14001 | 29929 | 31174 | 33101 | 35772 | 37219 | 38732 | 41181 |
| 인구 대비 유료 서비스의 물리 크기 지표(전년 대비) | 103,9 | 101,3 | 102,5 | 104,7 | 102,2 | 101,5 | 97,9 | 98,3 |
| 수송 | | | | | | | | |
| 철로 사용 총 길이(연말 기준), km | 496 | 481 | 481 | 481 | 481 | 481 | 481 | 481 |
| 포장된 공공 도로의 길이 (연말 기준) 7), km | 1050 | 1348 | 1363 | 1849 | 2165 | 2178 | 2229 | 2313 |
|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하는 조직의 도로 운송 화물 회전을, 백만 t-km | 1206 | 2122 | 2334 | 3159 | 2346 | 2762 | 2144 | 1751 |
| 대중 교통 버스의 승객 회전을, 킬로미터 당 승객 수 | 738 | 646 | 796 | 805 | 639 | 365 | 400 | 333 |

계속되는 표

| | 2005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통신 | | | | | | | | |
| 인구 1000 명 당 공중망 가정용 전화기 사용 가능 수, (연말기준) (단위 :대) | | | | | | | | |
| 도시 | 285,6 | 249,0 | 223,7 | 206,4 | 184,8 | 158,9 | 125,0 | 105,5 |
| 농촌 | 118,7 | 140,5 | 134,9 | 119,0 | 115,9 | 105,5 | 88,7 | 101,9 |
| 인구1000 명당 (연말 기준) 이동 무선 전화 통신의 연결된 가입자 장치 수, (단위: 대) | 887,8 | 2159,3 | 2366,9 | 2464,6 | 2570,7 | 2469,0 | 2683,7 | 2609,5 |
| 인구 100 명당 고정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의 활성 가입자 수 (연말 기준) | | | 14,3 | 15,3 | 16,0 | 18,1 | 19,7 | 20,3 |
| 인구 100 명당 활동적으로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동 전화 이용자 수 (연말기준) | | | 66,5 | 72,3 | 79,6 | 86,4 | 78,3 | 71,8 |
| 정보 통신기술 | | | | | | | | |
| 총 가구수에있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가진 가구의 몫, (%) | | | | | | 87,0 | 82,9 | 86,1 |
| 15-72세 인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 | | | | | | 90,0 | 93,3 | 91,6 |
| 조사 된 총 조직 수에서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사용하는 조직의 비율, (%) | | 57,9 | 61,1 | 74,5 | 80,2 | 90,7 | 86,7 | 86,0 |
| 금융 | | | | | | | | |
| 수입 국제 예산(단위: 백만루블) | 58887 | 106813 | 136859 | 142425 | 138996 | 161683 | 137650 | 155156 |
| 위 수지에 의거한 지방 자치 단체의 소득 | 36842 | 73114 | 95216 | 82034 | 83109 | 87880 | 73919 | 78372 |
| 지출 국제예산(단위 백만루블) | 52172 | 95610 | 145642 | 166807 | 158866 | 159642 | 138527 | 155482 |
| 위 수지에 의거한 지방 자치 단체의 지출 | 37421 | 70447 | 91854 | 85988 | 85396 | 88558 | 73834 | 78028 |
| 세금, 수수료 및 기타 러시아 연방 예산 시스템에 지불해야하는 금액, (단위: 백만 루블). | 276940 | 327395 | 453723 | 598489 | 631806 | 711641 | 783980 | 811093 |
| 러시아 연방의 예산 시스템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 부채, (단위: 백만 루블). | 7076 | 4331 | 4716 | 5431 | 6846 | 7440 | 15796 | 8931 |
| 물가 | | | | | | | | |
|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12 월 ~ 12 월), (퍼센트) | 117,9 | 108,2 | 103,1 | 104,0 | 106,8 | 107,5 | 110,5 | 105,1 |
| 고정 소비재 및 서비스 비용 (연말 기준) : | | | | | | | | |
| 루블 | 7195,0 | 12684,3 | 13231,6 | 13625,7 | 14563,7 | 16038,0 | 17576,0 | 18375,7 |
| 러시아 평균 비용 대비 퍼센트 | 153 | 146 | 144 | 138 | 136 | 133 | 131 | 129 |
| ----- | | | | | | | | |
| 각주 | | | | | | | | |
| 1) 자료는 노동 자원의 균형을 계산하고 노동 비용을 산정하기위한 업데이트 된 방법론에 따라 계산됩니다. | | | | | | | | |
| 2) 러시아 교육 과학부에 따르면 2015 년부터 시작됩니다. | | | | | | | | |
| 3) 재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절의 방법론적 설명 참조). | | | | | | | | |
| 4) 상업 조직 (중소기업 제외). | | | | | | | | |
| 5) 2010 년 및 2015 년 데이터 중소기업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결과 | | | | | | | | |
| 6) 경제 활동 유형별 채광 지수 "광업", "가공 산업", "생산 및 전력 분배, 가자 보이" | | | | | | | | |
| 7) 2012 년부터. 거리의 길이 포함. | | | | | | | | |

학사연구원이 바라 본 북극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

박세영

북극 얼음 녹으면 北美 농업생산 감소¹⁾

[기사요약]

북극에서 얼음이 녹으면 북미 대륙의 농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종성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와 중국 남방과기대 정수종 교수 공동 연구팀은 북극의 온난화가 북미 지역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쳐 농업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연구는 온난화로 북극의 기온이 올라 따뜻해진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북미와 동아시아에 이상 한파가 찾아왔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진은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유발된 북미 지역의 겨울 한파가 농작물의 에너지원인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14%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1~4%가량 줄었다는 것. 일부 지역에서는 곡물 생산량이 2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

온난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다. 과거에는 그저 증발을 촉진시켜 한쪽에는 물난리를, 다른 한쪽에는 가뭄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로 인해 새로운 사실이 증명되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옮겨울이 시베리아와 같은 강추위였던 이유가 밝혀짐과 동시에, 그로 인한 농작물의 에너지원인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소되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

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 과다로 인한 온실효과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온실효과에 대한 부정적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제는 온난화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눈앞의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고, 단계적으로 대비해 더 큰 '나비효과'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시진핑 북극에도 눈독...中, '빙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²⁾

[기사요약]

북극 개발의 기본 정책 방향을 담은 '북극백서'를 최초로 발간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북극의 항로, 자원, 기후변동, 과학 연구 등의 분야에 전면적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북극 개발 선언은 '해양 강국'과 '대국 외교'를 목표로 하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야심이 반영된 정책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북극까지 확장한 '빙상

1) 조선일보, 2017년 7월 13일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3/2017071300056.html

2) 조선일보, 2018년 1월 27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7/2018012700671.html

실크로드'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북극해를 관통하는 해운항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북극의 석유, 가스, 광물자원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니언]

'중국몽'은 끝이 없는 것 같다. 타이완, 몽골 등 곳곳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북극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북극 천연자원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극이사회 정식회원국이 아닌 옵서버 국가이기는 하지만, 많은 투자를 통해 북극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족한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더 투자해야 된다. 현재 우리는 북극 개발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른 옵서버 국가에 뒤지지 않기 위해 북극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북극 컨소시엄' 프로젝트 사업의 결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내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 같다.

한국, 북극투자 중국에 크게 밀린다³⁾

[기사요약]

한국이 북극해를 둘러싼 경쟁에서 대륙국가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하지만 북극해에서 떨어진 역외국가로서 상호 경쟁보다 협력하며 북극에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중국은 2012~2017년 동안 미국을 제외한 북극 연안 5개국에 2474억달러를 투자하며 연안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한국이 북극연안국에 투자한 액수는 중국의 2.1% 수준인 52억1680만달러에 머물렀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과 신북방정책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협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한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무역과 해외 투자 의존도가 높다. 천연자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극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동아시아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중 가정 먼저 북극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3년 처음 옵서버 국가에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북극항로 해빙 예측 시스템 개발' 이외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황이다. 이런 상황에 중국의 적극적 투자로 인해 입지가 더욱 약해지고 있다.

한국도 북극자원 개발과 확보를 위해 북극연안국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또한 동아시아권 옵서버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한국이 북극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길 기대해 본다.

핀란드 북극권 기상 정상회의서 북극 기후변화 감시강화 선언⁴⁾

[기사요약]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권 기상학 정상회의에서 20일 (현지시간) 기상학자들은 북극권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각국의 포괄적인 협력을 요구했

3) 내일신문, 2018년 2월 27일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67679

4) 중앙일보, 2018년 3월 21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22460177>

다. 이 행사는 북극권 국가들의 기상청 및 기상연구소 책임자들과 다양한 관련 투자자들의 총회이다.

올해 초 북극위원회 산하 북극 감시기구(APAP)는 북극지역 기상 감시를 업무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핀란드 기상연구소도 최근 북반부의 극지 강설량과 얼음의 양을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새 사업계획을 출범시켰다.

[오피니언]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북극은 해빙 상태가 진행 중이다. 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는 영구 동토층 마저 녹인다는 것이다. 또, 땅속에 갇혀있던 메탄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 해빙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영구 동토층을 기반으로 세운 건물들이 기울고 있다. 이로 인해 알래스카 주민은 400년간 터를 잡고 살던 마을을 떠나게 됐다.

따라서 핀란드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움직임은 인류 공존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핀란드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가 현재와 미래의 인류를 위해 함께 할 사안이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지구의 자체 공기 자정 능력 훼손을 강력히 억제시켜야 된다. 이를 위해 여러 전문 기구를 통한 감시는 물론, 더 나아가 온난화 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연구단 소개

| | |
|---|---|
| <p>북극연구단장 한종만(韓種萬, Han, Jong-Man)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e-mail: jmhan@pcu.ac.kr</p> | <p>러시아북극연구팀장 김정훈(金正勳, Kim, Joung-Hun)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e-mail: jhkrm@pcu.ac.kr</p> |
| <p>공동연구원 계용택(桂鏞澤, Ke, Yong-Tek)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러시아리서치 센터 대표 e-mail: dovri@hanmail.net</p> | <p>박사급연구원 박종관(朴鍾寬, Park Jong-Kwan)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연구교수 e-mail: parkjk7377@naver.com</p> |
| <p>공동연구원 배규성(裴奎星, Bae Kyu Sung)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국제정치학박사 현)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 연구교수 e-mail: baeks777@naver.com</p> | <p>공동연구원 서승현(徐承顯, Seo, Seunghyun) 미국 Indiana University 슬라브언어학 박사 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e-mail: seoseung5@hanmail.net</p> |
| <p>공동연구원 양정훈(梁庭熏, Yang, Junghun) 러시아외교아카데미 국제정치학 박사 현) 수원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e-mail: jhyang@suwon.ac.kr</p> | <p>공동연구원 예병환(芮秉煥, YAE Byung-Hwan) 독일 Bamberg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대구대학교 강사 e-mail: yaebh@pcu.ac.kr</p> |
| <p>선임연구원 이재혁(李在赫, Yi, Jae-Hyuk) 독일 키일대학교/경희대학교 지리학박사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e-mail: yijenie@hanmail.net</p> | |
| <p>박사과정생 백영준(白榮準, Baek, YoungJun)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아스타피예프 국립 사범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e-mail: kiseling@daum.net</p> | <p>연구보조원 박세영(Park, Chan Ju) 현) 배재대학교 러 시아학 전공 e-mail: qkrtpekr@naver.com</p> |

자문위원

| | |
|-----|------------------------|
| 이병화 | 주 노르웨이/주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대사 |
| 공우석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 홍성조 | 극지연구소 자문위원 |

[공지 사항]

- 2015년 3월 창간한 본 전자저널 ‘북극연구(The Journal of Arctic)’는 한국연구재단 2014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창간한 ‘북극연구단(KARC)’에 의해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선정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호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잡지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